

2007학년도 진로 의식조사

- 제주대학교 3, 4학년 재학생을 중심으로 -

김 경 순* · 김 두 화**

〈 목 차 〉	
I. 서 론	3. 취업 준비
II. 조사대상 및 방법	4. 취업활성화를 위한 제안
1. 조사대상	IV. 요약 및 결론
2. 조사도구 및 내용	1. 요 약
3. 조사 실시 및 자료처리	2. 결론 및 제안
III. 결과분석 및 해석	참고문헌
1. 진로의식	<Abstract>
2. 취업관련 요인	

I. 서 론

진로를 선택하는 일은 한 개인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로 일생동안 생계유지와 사회적 역할과 봉사, 그리고 자아실현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한다(유계식, 이재창, 1997). 자신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직업을 합리적으로 선택하여야 일생동안 직업에 만족하게 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행복한 삶을 꾸려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진로결정은 대학생 시기에 이루어지며,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는 직업의 결정이다. 이러한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인 대학은 학생들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직업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대학에서의 진로교육의 필요성을 김충기(2003)와

* 제주대학교 직업능력개발원
** 제주대학교 직업능력개발원 교수

Isaacson & Brown(2000)은 다음과 같이 제시 하고 있다. 첫째, 고학력 추세에 따라 학생들의 진로교육 시기가 대학으로 연기되고 있다. 둘째, 고등학교에서의 진로지도 부재가 대학의 진로지도 수요를 촉발한다.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대학입시를 준비하기 위하여 진학지도만 이루어지고 있어서 정작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배양해주는 진로지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노동시장의 변화가 진로지도를 필요로 한다. 최근에 와서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기술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함으로 해서 직업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직업의 내용도 분업화, 전문화 되어가고 있다. 이와 같이 과학기술의 발달, 첨단과학 분야의 발전, 직업세계의 다양화와 전문화 등 변화하는 정보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교육이 요청되고 있다. 넷째, 학문의 분화와 통합이 진로지도의 수요를 유발한다. 특히 요즈음 추진되고 있는 학부제와 복수전공제, 그리고 전공과목의 축소와 선택과목의 확대는 더욱 현명한 진로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다섯째, 대학의 인간교육 부재이다.

이처럼 대학은 지식정보의 생성 및 가공, 그리고 활용을 주도하는 지식정보의 중추적인 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인적자원을 공급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학의 위기’, ‘대학의 종말’이라는 소리를 자주 듣고 있다(안관수, 2006). 또한 세계 최고의 대학 진학률과 고학력화의 진전에 따른 전문대졸이상의 고학력자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대졸 실업률 증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이지훈, 이종구, 2004), 외환위기(IMF)를 겪으면서 산업구조의 변화와 고용시장의 불안정은 대졸 청년취업난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청년 실업문제의 심각성은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지표(2005)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2005년 12월 지표에 의하면 청년실업자에 해당되는 20~29세의 연령대를 기준으로 한 청년 실업률 7.7%, 실업자 35만 2천명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청년 실업난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주된 원인은 대학의 취업 및 직업진로 지도의 기능 미비를 들 수 있다. 대학생의 진로는 자신의 능력, 적성, 흥미, 인성, 경제적 여건, 직업적 열망, 학부모의 기대와 영향, 지도교수의 의견 등의 제반 요인을 고려하여 선택·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실제로는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한 체계적인 진로지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학의 진로교육은 단순한 검사의 실시, 또는 취업을 위한 정보의 제공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와 같은 대학 재학 중에 체계적인 취업 및 진로지도의 부재로 수많은 대학생들이 졸업 후 생애 첫 직장을 얻기까지 긴 직업탐색 기간을 필요로 하며, 자칫 장기적인 실업상태로 까지 이어지게 된다(안관수, 2006). 뿐만 아니라, 최근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는 대학생들의 중도 자퇴, 전과, 타교 편입 등과 젊은 직장인들의 잦은 이직 문제, 또한 즉흥적인 진로 선택과 많은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자기의 진로에 대한 충분한 모색과 검토 없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결정이 바람직할 리가 없고,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결정에 만족하며 잘 적응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박행모, 문승태, 2005).

따라서 이러한 대졸 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진입 이전에 대학에서의 지속적인 직업진로 지도를 통해 학교로부터 직업세계로의 이행 과정이 순조롭도록 취업지원책을 강구해야 하며, 산학간의 성공적인 수요 공급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하여 학교교육 내용을 재구성할 수 있는 제도적인 통로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학교육의 질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대학에서의 진로교육은 학생의 흥미, 적성, 능력, 성격, 신체적 조건, 가치관을 중심으로 알맞은 각종 정보활동을 전개하며 학생이 진로를 선택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진로선택은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 흥미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자기 탐색과 이해의 토대 위에서 그 선택이 이루어져야 후회없는 삶을 누릴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제주대학교에서 진로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제주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진로의식을 분석하는 기초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심각한 청년실업난 시대에 취업은 곧 대학경쟁력이 되고 있다. 수요자 중심의 인재양성을 위해서 직업 진로지도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늘어나는 대졸 청년실업률을 낮추고, 제주대학교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대학생들의 단과대학별, 학년별, 성별에 따라서 진로의식 정도를 조사, 분석하고자 한다. 제주대학생들의 진로의식을 파악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제주대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원하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진로상담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주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진로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경직된 서비스가 아닌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고려한 맞춤형 진로지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II. 조사대상 및 방법

1. 조사대상

본 조사는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재학생 중에서 설문에 응답한 238명 중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15명을 제외한 223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에 응한 재학생들의 단과대학별, 학년별, 성별, 출신 고등학교 분포는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2-1> 단과대학별, 학년별, 성별, 출신 고등학교 조사대상자 현황

<단위 : 명, %>

구 분		응답자수	비율	
단과대학	인문대학	25	11.2	
	법정대학	30	13.5	
	경상대학	32	14.3	
	사범대학	6	2.7	
	생명자원과학대학	7	3.1	
	해양과학대학	35	15.7	
	자연과학대학	24	10.8	
	공과대학	63	28.2	
	의과대학	1	0.5	
	합계	223	100	
학년	3학년	125	56.1	
	4학년	98	43.9	
	합계	223	100	
성별	남	군필	137	61.4
		미필	7	3.2
		면제	5	2.2
	여	74	33.2	
	합계	223	100	
출신고등학교	제주시	160	71.7	
	서귀포시	40	17.9	
	서울	6	2.7	
	인천 및 경기	3	1.3	
	광주 및 전남	1	0.4	
	대구 및 경북	2	0.9	
	강원	1	0.4	
	대전 및 충남	1	0.4	
	부산, 울산 및 경남	7	3.1	
	전북	1	0.4	
	해외	1	0.4	
	합계	223	100	

2. 조사도구 및 내용

본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진로의식

대학에 진학한 이유, 전공을 선택하게 된 동기, 전공에 대한 만족도, 전공과 하고자 하는 일의 관련 정도, 학업성적이 진로(취업)에 미치는 영향, 전공학과의 취업기회, 졸업 후 진로선택 가능성, 우리 사회에서의 채용의 공정 정도, 채용과정에서 차별의 심각성 정도

2) 취업관련 요인

졸업 후 진로선택, 직업선택시 중요시 생각되는 것, 졸업 후의 희망 직업, 직업의 사회적 지위, 취업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 기업의 직원 채용기준의 중요성, 성공적인 직장 생활의 필요한 요소,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3) 취업 준비

취업 준비시기, 취업 준비를 위한 대비, 취업사이트 이용 경험, 취업과 학과 공부 중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취업을 위하여 중점을 두고 공부하는 것, 취업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 자격증 취득 여부, 취업을 하는 데 고민하는 문제

4) 취업 활성화를 위한 제안

취업과 관련하여 학교에 기대하는 것, 진로상담 대상, 진로에 대하여 교수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한가?, 교수들의 취업에 대한 관심 정도, 소속학과 교수가 제공하는 상담 및 지도에 대한 만족도, 취업할 때 자신 없는 분야, 취업할 때 자신 있는 분야, 취업할 때 장애가 되는 요인, 학교가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

3. 조사 실시 및 자료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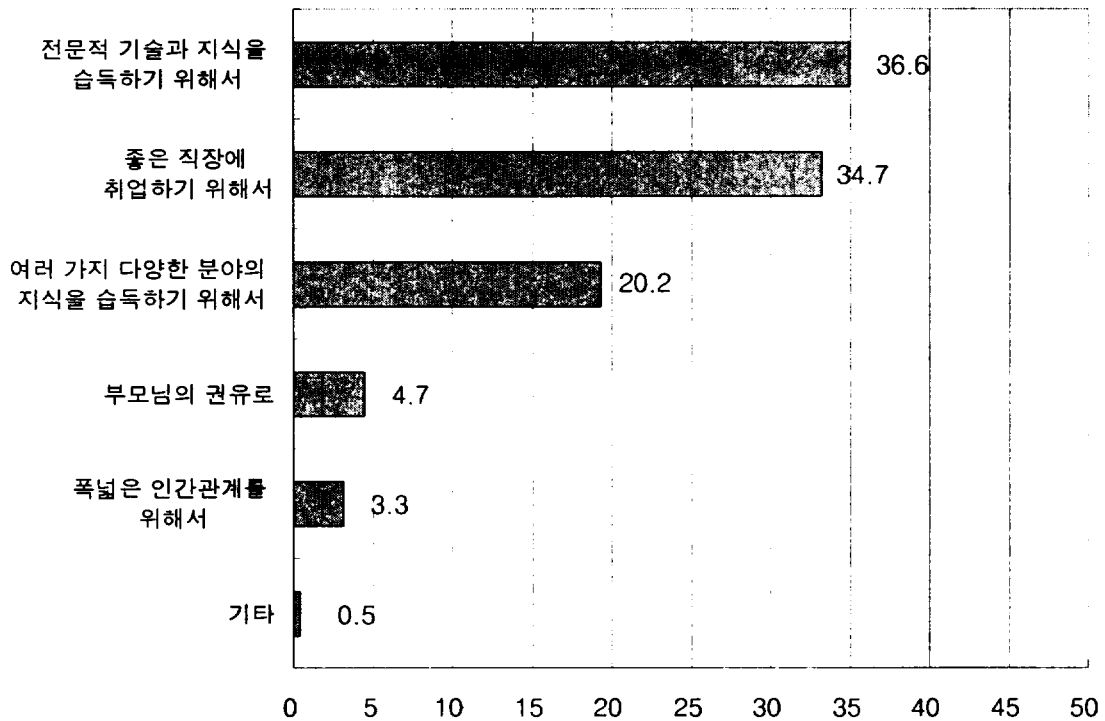
본 조사는 2007년 11월 우리 대학교 취업교과목 강의시간에 설문지를 배부하여 실시되었으며, 총 2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불성실한 설문지 27부를 제외한 223부가 자료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설문에 대한 응답은 빈도분석을 통한 백분율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Ⅲ. 결과분석 및 해석

1. 진로의식

1) 대학에 진학한 이유

2007학년도에 실시된 진로 의식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한 이유는 [그림 3-1]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전문적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36.6%,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하여' 34.7%,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20.2%, '부모님의 권유로' 진학했다고 응답한 학생이 4.7%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 대학에 진학한 이유

대학에 진학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과대학별로 비슷한 분포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범대학의 경우, 83.3%의 학생이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대학에 진학한다고 응답하여 타 대학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3학년의 경우,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학생이 36.4%로 가장 많은 반면에 4학년의 경우에는 '전문적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학생이 39.1%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전문적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41.4%로 가장 많은 반면에 여자의 경우는 45.6%의 학생이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대학에 진학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3-1> 대학에 진학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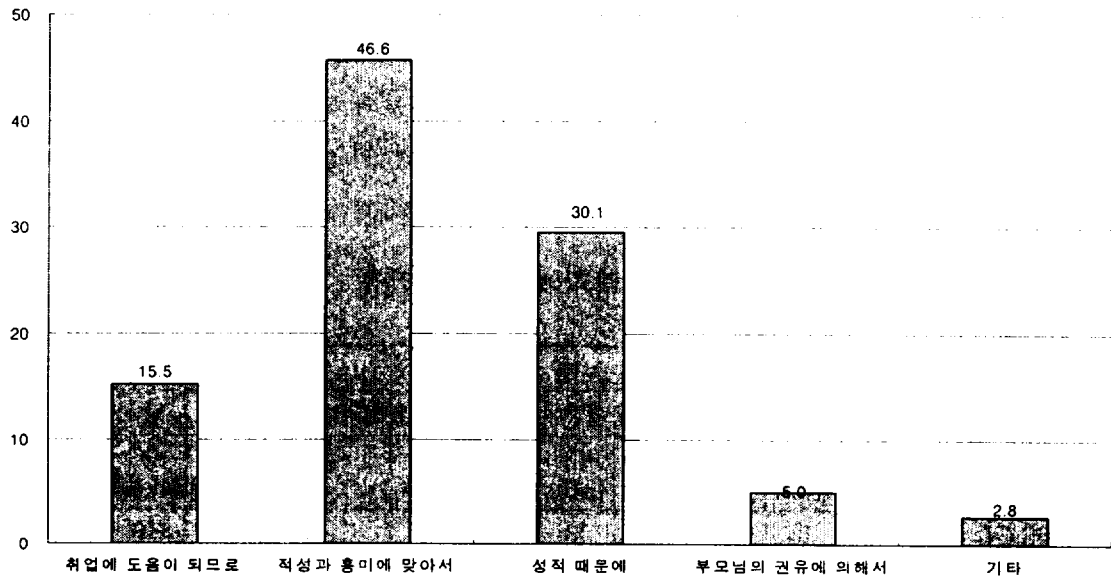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3	4	남	여	
기술 지식 습득	8 (34.8)	4 (13.8)	10 (35.7)		3 (42.9)	12 (34.3)	9 (40.9)	32 (51.6)		42 (34.7)	36 (39.1)	60 (41.4)	18 (26.5)	78 (36.6)
좋은 직장 취업	8 (34.8)	16 (55.2)	10 (35.7)	5 (83.3)	2 (28.6)	13 (37.1)	5 (22.7)	15 (24.2)		44 (36.4)	30 (32.6)	43.0 (29.7)	31.0 (45.6)	74 (34.7)
다양한분야 지식 습득	6 (26.1)	8 (27.6)	7 (25.0)	1 (16.7)	1 (14.3)	5 (14.3)	4 (18.2)	11 (17.7)		22 (18.2)	21 (22.8)	30 (20.7)	13 (19.1)	43 (20.2)
부모 남유 권	1 (4.3)		1 (3.6)			3 (8.6)	3 (13.6)	2 (3.2)		8 (6.6)	2 (2.2)	7 (4.8)	3 (4.4)	10 (4.7)
인간 관계		1 (3.4)				2 (5.7)	1 (4.5)	2 (3.2)	1 (100)	4 (3.3)	3 (3.3)	5 (3.4)	2 (2.9)	7 (36.6)
기 타					1 (14.3)					1.0 (0.8)			1.0 (1.5)	1 (0.5)
계	23.0 (100)	29.0 (100)	28.0 (100)	6.0 (100)	7.0 (100)	35.0 (100)	22.0 (100)	62.0 (100)	1.0 (100)	121.0 (100)	92.0 (100)	145 (100)	68.0 (100)	213 (100)

2) 전공을 선택하게 된 동기

진로 의식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의 전공을 선택하게 된 동기는 [그림 3-2]에 제시되어 있는 것 처럼 '적성과 흥미에 맞아서' 46.6%, '성적 때문에' 30.1%, '취업에 도움이 되므로' 15.5%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는 <표 3-2>에 나타난 것 처럼 인문대학, 법정대학, 경상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의 경우에는 '적성과 흥미에 맞아서' 전공을 선택한 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응답하였으나 사범대학, 해양과학대학은 '성적 때문에' 전공을 선택하였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각각 50%, 58.8%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법정대학의 경우, '부모님의 권유에 의해서' 전공을 선택하였다고 응답한 학생이 17.9%로 다른 대학보다 그 비율이 훨씬 높게 조사되었다.



[그림 3-2] 전공을 선택하게 된 동기

다음으로 학년별로는 4학년의 경우에는 '적성과 흥미에 맞아서' 전공을 선택했다고 응답한 학생이 51.6%였지만, 3학년의 경우에는 42.7%로 줄어들었다. 반면에 '성적 때문에' 전공을 선택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4학년은 26.3%였으나, 3학년은 33.1%로 늘어났다. 그러나 남녀 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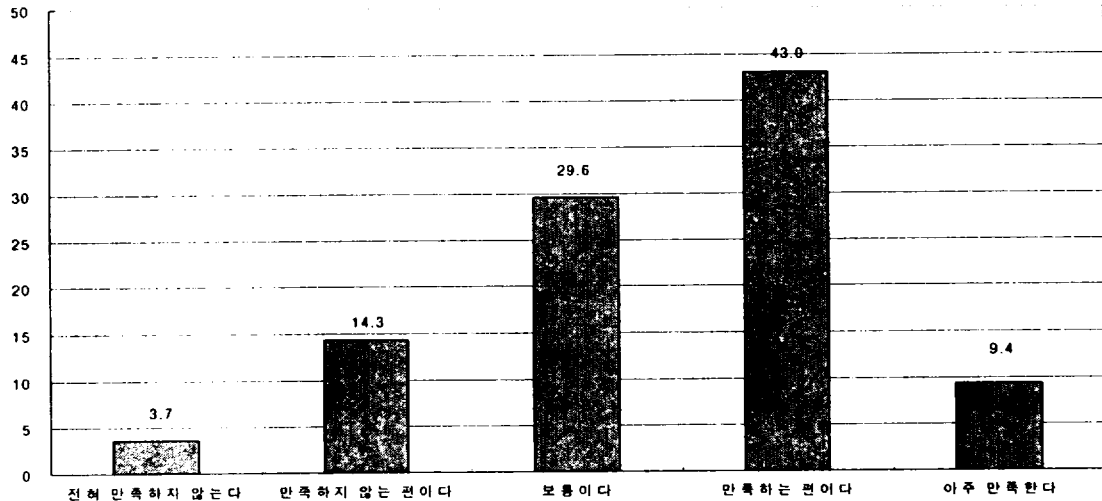
<표 3-2> 전공을 선택하게 된 동기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3	4	남	여	
취업도움	2 (8.3)	6 (21.4)	4 (12.5)	2 (33.3)	2 (28.6)	1 (2.9)	3 (12.5)	14 (22.2)		21 (16.9)	13 (13.7)	22 (15.1)	12 (16.4)	34 (15.5)
적성흥미	12 (50.0)	10 (35.7)	21 (65.6)	1 (16.7)	2 (28.6)	11 (32.4)	14 (58.3)	31 (49.2)		53 (42.7)	49 (51.6)	67 (45.9)	35 (47.9)	102 (46.6)
성적때문에	7 (29.2)	6 (21.4)	5 (15.6)	3 (50.0)	2 (28.6)	20 (58.8)	7 (29.2)	15 (23.8)	1 (100)	41 (33.1)	25 (26.3)	46 (31.5)	20 (27.4)	66 (30.1)
부모님 권유에 의해	1 (4.2)	5 (17.9)	1 (3.1)			2 (5.9)		2 (3.2)		5 (4.0)	6 (6.3)	8 (5.5)	3 (4.1)	11 (5.0)
기 타	2 (8.3)	1 (3.6)	1 (3.1)		1 (14.3)			1 (1.6)		4 (3.2)	2 (2.1)	3 (2.1)	3 (4.1)	6 (2.8)
계	24 (100)	28 (100)	32 (100)	6 (100)	7 (100)	34 (100)	24 (100)	63 (100)	1 (100)	124 (100)	95 (100)	146 (100)	73 (100)	219 (100)

3) 전공에 대한 만족도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설문에 대한 응답은 아래의 [그림 3-3]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3]을 보면 전공에 '만족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43.0%,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29.6%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 전공에 대한 만족도

<표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단과대학별로, 학년별로 전공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분포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로는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남자의 경우, '만족한다'는 학생이 40.9%인 반면에 여자의 경우, 47.3%로 남자 보다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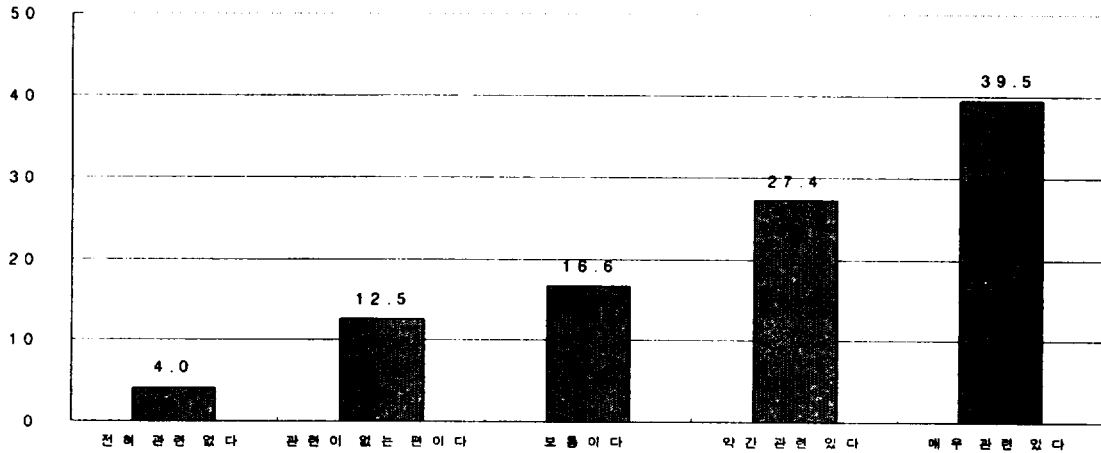
<표 3-3> 전공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3	4	남	여	
전혀 만족 않는다		1 (0.0)	1 (3.1)			5 (14.3)		1 (1.6)		4 (3.2)	4 (4.1)	7 (4.7)	1 (1.4)	8 (3.7)
만족하지 않는 편	3 (12.0)	1 (3.3)	4 (12.5)		2 (28.6)	6 (17.1)	5 (20.8)	10 (15.9)	1 (100)	14 (11.2)	18 (18.4)	23 (15.4)	9 (12.2)	32 (14.3)
보통이다	7 (28.0)	11 (36.7)	9 (28.1)	1 (16.7)	1 (14.3)	8 (22.9)	8 (33.3)	21 (33.3)		40 (32.0)	26 (26.5)	42 (28.2)	24 (32.4)	66 (29.6)
만족하는 편	12 (48.0)	15 (50.0)	14 (43.8)	4 (66.7)	4 (57.1)	11 (31.4)	7 (29.2)	29 (46.0)		55 (44.0)	41 (41.8)	61 (40.9)	35 (47.3)	96 (43.0)
아주 만족	3 (12.0)	2 (6.7)	4 (12.5)	1 (16.7)		5 (14.3)	4 (16.7)	2 (3.2)		12 (9.6)	9 (9.2)	16 (10.7)	5 (6.8)	21 (9.4)
계	25 (100)	30 (100)	32 (100)	6 (100)	7 (100)	35 (100)	24 (100)	63 (100)	1 (100)	125 (100)	98 (100)	149 (100)	74 (100)	223 (100)

4) 전공과 하고자 하는 일의 관련 정도

현재의 전공이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과의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응답은 아래의 [그림 3-4]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4]를 보면 전체 학생의 39.5%가 '매우 관련 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약간 관련 있다' 27.4%, '보통이다' 16.6%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 진로와 하고자 하는 일의 관련 정도

단과대학별로는 <표 3-4>에서 보는바와 같이 법정대학, 경상대학, 해양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의 경우에는 '매우 관련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연과학대학의 경우에는 58.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비교해보면 '매우 관련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남자의 경우, 36.2%, 여자의 경우, 45.9%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년별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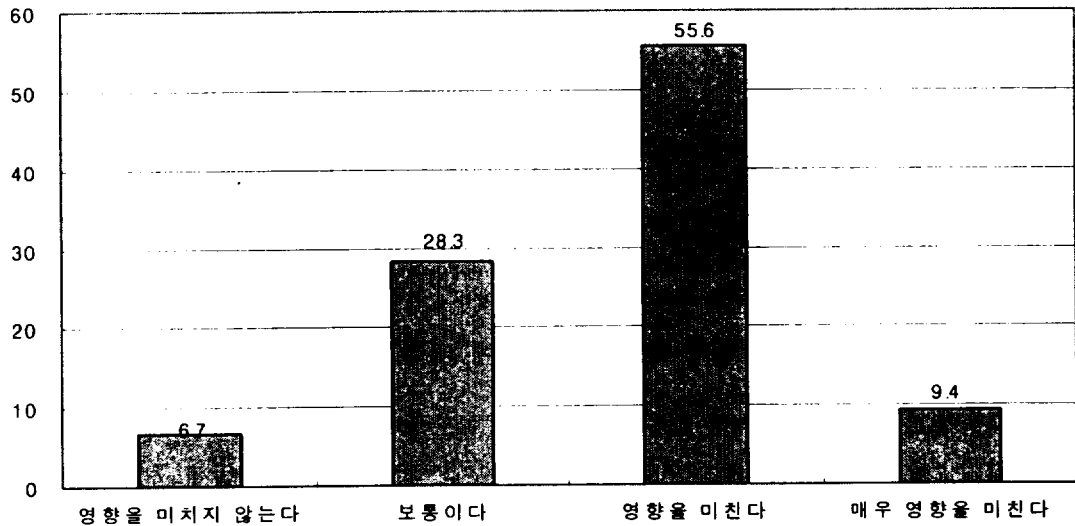
<표 3-4> 진로와 하고자 하는 일의 관련 정도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년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3	4	남	여	
전혀 관련 없다			1 (3.1)			4 (11.4)	1 (4.2)	3 (4.8)		5 (4.0)	4 (4.1)	7 (4.7)	2 (2.7)	9 (4.0)
관련 없다	2 (8.0)	5 (16.7)	1 (3.1)	1 (16.7)	1 (14.3)	10 (28.6)	4 (16.7)	4 (6.3)		14 (11.2)	14 (14.3)	23 (15.4)	5 (6.8)	28 (12.5)
보통	4 (16.0)	4 (13.3)	5 (15.6)	3 (50.0)	2 (28.6)	3 (8.6)	3 (12.5)	12 (19.0)	1 (100)	23 (18.4)	14 (14.3)	25 (16.8)	12 (16.2)	37 (16.6)
약간 관련	13 (52.0)	9 (30.0)	11 (34.4)		3 (42.9)	3 (8.6)	2 (8.3)	20 (31.7)		33 (26.4)	28 (28.6)	40 (26.8)	21 (28.4)	61 (27.4)
매우 관련	6 (24.0)	12 (40.0)	14 (43.8)	2 (33.3)	1 (14.3)	15 (42.9)	14 (58.3)	24 (38.1)		50 (40.0)	38 (38.8)	54 (36.2)	34 (45.9)	88 (39.5)
계	25 (100)	30 (100)	32 (100)	6 (100)	7 (100)	35 (100)	24 (100)	63 (100)	1 (100)	125 (100)	98 (100)	149 (100)	74 (100)	223 (100)

5) 학업성적이 진로(취업)에 미치는 영향

학업성적이 진로(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응답은 아래의 [그림 3-5]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5]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55.6%의 학생이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으며, '보통이다'로 응답한 학생이 28.3%,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6.7%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5] 학업성적이 진로(취업)에 미치는 영향

단과대학별로는 <표 3-5>에 나타난 것 처럼 대체로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생명자원과학대학은 42.9%의 학생이 학업성적이 진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학년별, 성별로는 비슷한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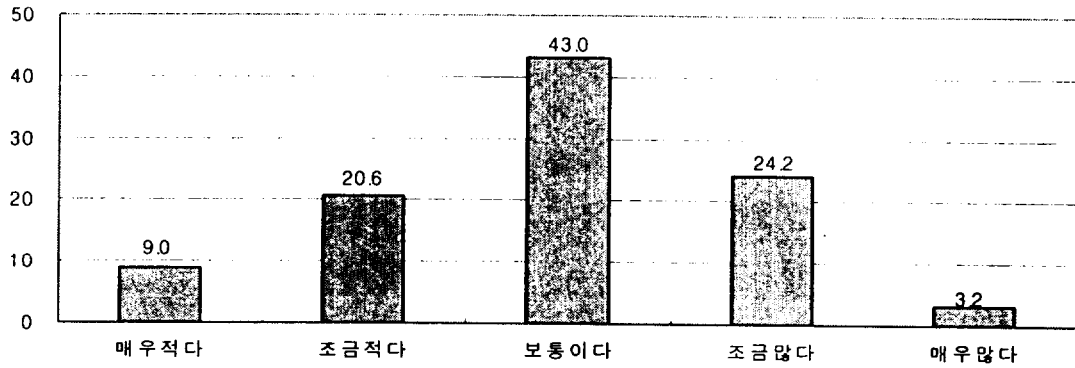
<표 3-5> 학업성적이 진로(취업)에 미치는 영향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년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3	4	남	여	
영향을 미치지않음	1 (4.0)	4 (13.3)	1 (3.1)		3 (42.9)		2 (8.3)	4 (6.3)		8 (6.4)	7 (7.1)	10 (6.7)	5 (6.8)	15 (6.7)
보통이다	10 (40.0)	8 (26.7)	6 (18.8)	2 (33.3)	1 (14.3)	12 (34.3)	8 (33.3)	15 (23.8)	1 (100)	36 (28.8)	27 (27.6)	38 (25.5)	25 (33.8)	63 (28.3)
영향을 미친다	10 (40.0)	13 (43.3)	25 (78.1)	3 (50.0)	2 (28.6)	21 (60.0)	11 (45.8)	39 (61.9)		72 (57.6)	52 (53.1)	89 (59.7)	35 (47.3)	123 (55.6)
매우영향을 미친다	4 (16.0)	5 (16.7)		1 (16.7)	1 (14.3)	2 (5.7)	3 (12.5)	5 (7.9)		9 (7.2)	12 (12.2)	12 (8.1)	9 (12.2)	21 (9.4)
계	25 (100)	30 (100)	32 (100)	6 (100)	7 (100)	35 (100)	24 (100)	63 (100)	1 (100)	125 (100)	98 (100)	149 (100)	74 (100)	223 (100)

6) 자신의 전공학과가 다른 전공학과에 비해 취업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자신의 전공학과가 다른 전공학과에 비해 취업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은 [그림 3-6]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43.0%의 학생이 '보통이다'로 응답하였으며, '조금 많다' 24.2%, '조금 적다' 20.6%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6] 자신의 전공학과가 다른 전공학과에 비해 취업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단과대학별로는 <표 3-6>에 나타난 것 처럼 인문대학의 경우, 다른 전공학과에 비하여 취업기회가 '매우 적다' 28.0%, '조금 적다' 36.0%로 응답하였다. 반면에 사범대학은 '조금 많다' 33.3%, '매우 많다' 16.7%로 응답하였다.

학년별로는 4학년에 비하여 3학년들이 자신의 전공학과가 다른 전공학과에 비하여 취업할 기회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대체로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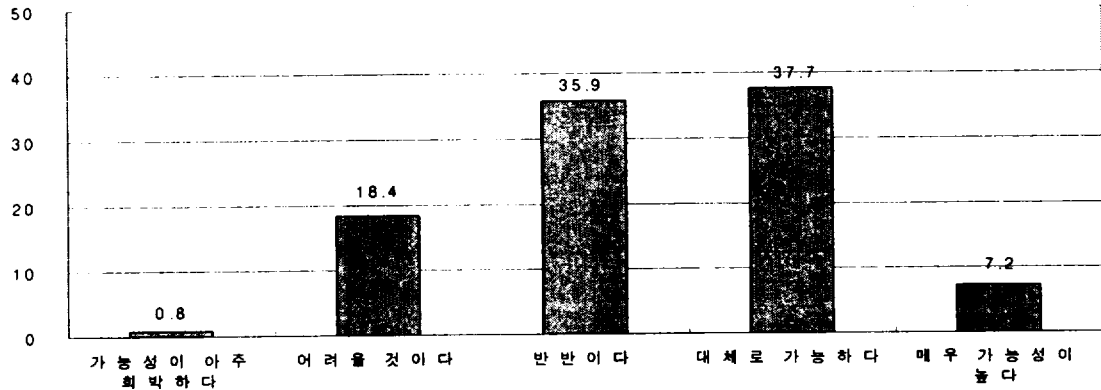
<표 3-6> 자신의 전공학과가 다른 전공학과에 비해 취업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년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3	4	남	여	
매우 적다	7 (28.0)		3 (9.4)			6 (17.1)	3 (12.5)	1 (1.6)		8 (6.4)	12 (12.2)	12 (8.1)	8 (10.8)	20 (9.0)
조금 적다	9 (36.0)	8 (26.7)	2 (6.3)	2 (33.3)	2 (28.6)	6 (17.1)	5 (20.8)	12 (19.0)		21 (16.8)	25 (25.5)	34 (22.8)	12 (16.2)	46 (20.6)
보통이다	8 (32.0)	16 (53.3)	18 (56.3)	1 (16.7)	2 (28.6)	13 (37.1)	11 (45.8)	26 (41.3)	1 (100)	59 (47.2)	37 (37.8)	62 (41.6)	34 (45.9)	96 (43.0)
조금 많다	1 (4.0)	5 (16.7)	8 (25.0)	2 (33.3)	3 (42.9)	10 (28.6)	5 (20.8)	20 (31.7)		33 (26.4)	21 (21.4)	36 (24.2)	18 (24.3)	54 (24.2)
매우 많다		1 (3.3)	1 (3.1)	1 (16.7)				4 (6.3)		4 (3.2)	3 (3.1)	5 (3.4)	2 (2.7)	7 (3.2)
계	25 (100)	30 (100)	32 (100)	6 (100)	7 (100)	35 (100)	24 (100)	63 (100)	1 (100)	125 (100)	98 (100)	149 (100)	74 (100)	223 (100)

7) 대학 졸업 후 진로선택 가능성

대학 졸업 후 진로선택 가능성에 대한 응답은 아래의 [그림 3-7]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7]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37.7%의 학생이 '대체로 가능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반이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35.9%, '어려울 것이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18.4%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7] 대학졸업 후 진로선택 가능성

단과대학별로는 <표 3-7>에 나타난 것 처럼 대체로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사범대학의 경우 50.0%, 인문대학의 경우에는 44.0%의 학생이 진로선택이 '대체로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진로선택이 '대체로 가능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을 학년별로 살펴보면 3학년의 경우, 42.4%인 반면에 4학년의 경우에는 31.6%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4학년이 되면서 진로선택의 가능성을 보다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성별로는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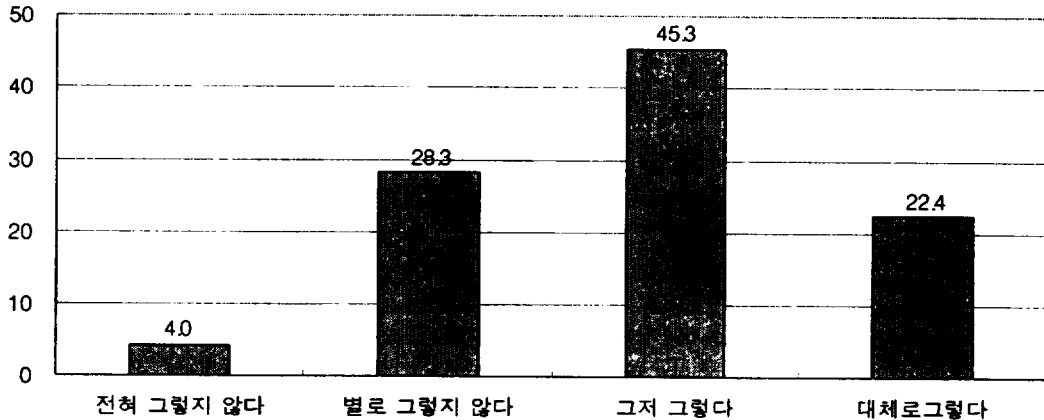
<표 3-7> 대학 졸업 후 진로선택 가능성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3	4	남	여	
가 능 성 이 희박하다					1 (14.3)	1 (2.9)				2 (1.6)		1 (0.7)	1 (1.4)	2 (0.8)
어 려 울 것 이 다	4 (16.0)	7 (23.3)	6 (18.8)	1 (16.7)	1 (14.3)	5 (14.3)	4 (16.7)	13 (20.6)		17 (13.6)	24 (24.5)	29 (19.5)	12 (16.2)	41 (18.4)
반 반 이 다	9 (36.0)	10 (33.3)	11 (34.4)	1 (16.7)	3 (42.9)	14 (40.0)	11 (45.8)	20 (31.7)	1 (100)	44 (35.2)	36 (36.7)	50 (33.6)	30 (40.5)	80 (35.9)
대 체 로 가 능 하 다	11 (44.0)	10 (33.3)	13 (40.6)	3 (50.0)	1 (14.3)	12 (34.3)	9 (37.5)	25 (39.7)		53 (42.4)	31 (31.6)	57 (38.3)	27 (36.5)	84 (37.7)
매 우 가 능 성 이 높 다	1 (4.0)	3 (10.0)	2 (6.3)	1 (16.7)	1 (14.3)	3 (8.6)		5 (7.9)		9 (7.2)	7 (7.1)	12 (8.1)	4 (5.4)	16 (7.2)
계	25 (100)	30 (100)	32 (100)	6 (100)	7 (100)	35 (100)	24 (100)	63 (100)	1 (100)	125 (100)	98 (100)	149 (100)	74 (100)	223 (100)

8) 우리 사회에서 채용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가?

우리 사회에서 채용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은 [그림 3-8]과 같다. [그림 3-8]을 보면 45.3%의 학생이 '그저 그렇다'고 답하였으며, 다음으로 28.3%의 학생들이 '별로 그렇지 않다', 22.4%의 학생이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8] 우리 사회에서 채용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가?

<표 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단과대학별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리 사회에서 채용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인문대학 44.0%, 경상대학 43.7%, 생명자원과학대학 42.9%로 타 대학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우리 사회에서 채용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비율 27.5%로 나타났으나, 여자의 경우는 41.9%로 나타났다.

<표 3-8> 우리 사회에서 채용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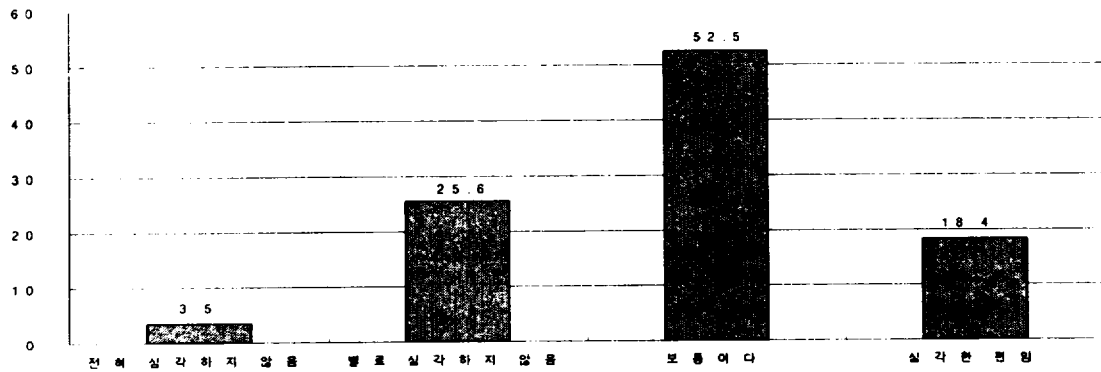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대학별									학년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3	4	남	여	
전혀 그렇지 않다	2 (8.0)	1 (3.3)	1 (3.1)			3 (8.6)		2 (3.2)		4 (3.2)	5 (5.1)	7 (4.7)	2 (2.7)	9 (4.0)
별로 그렇지 않다	9 (36.0)	7 (23.3)	13 (40.6)	2 (33.3)	3 (42.9)	7 (20.0)	7 (29.2)	15 (23.8)		37 (29.6)	26 (26.5)	34 (22.8)	29 (39.2)	63 (28.3)
그저 그렇다	7 (28.0)	15 (50.0)	14 (43.8)	2 (33.3)	2 (28.6)	19 (54.3)	10 (41.7)	31 (49.2)	1 (100)	58 (46.4)	43 (43.9)	73 (49.0)	28 (37.8)	101 (45.3)
대체로 그렇다	7 (28.0)	7 (23.3)	4 (12.5)	2 (33.3)	2 (28.6)	6 (17.1)	7 (29.2)	15 (23.8)		26 (20.8)	24 (24.5)	35 (23.5)	15 (20.3)	50 (22.4)
계	25 (100)	30 (100)	32 (100)	6 (100)	7 (100)	35 (100)	24 (100)	63 (100)	1 (100)	125 (100)	98 (100)	149 (100)	74 (100)	223 (100)

9) 채용과정에서 차별의 심각성 정도

(1) 남녀차별

남녀차별에 대한 심각성을 묻는 설문에 대한 응답은 아래의 [그림 3-9]와 같다. [그림 3-9]에 보는 바와 같이, 52.5%의 학생이 '보통이다'라고 답하였으며, 다음으로 25.6%의 학생들이 '별로 심각하지 않음', 18.4%의 학생이 '심각하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9] 남녀차별

남녀차별에 대한 심각성을 조사한 결과 <표 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과대학별로는 인문대학 학생들이 남녀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32%로 타 대학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사범대학과 해양과학대학의 경우에는 '전혀 심각하지 않다'와 '별로 심각하지 않다'를 합하여 각각 50.0%, 40.0%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3학년은 '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이 32.8%로 4학년의 16.3%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녀별로 보면 남자의 경우, '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29.5%로 여자의 17.6% 보다 많은 반면에 '심각한 편이다'는 남자가 12.1%인 반면에 여자는 31.1%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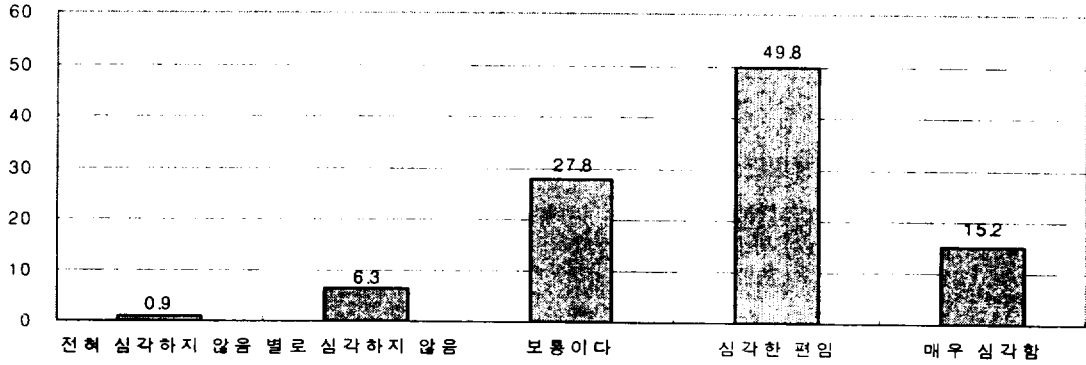
<표 3-9> 남녀차별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3	4	남	여	
전혀 심각하지 않음		1 (3.3)	1 (3.1)	1 (16.7)		2 (5.7)		3 (4.8)		2 (1.6)	6 (6.1)	8 (5.4)		8 (3.5)
별로 심각하지 않음	5 (20.0)	7 (23.3)	7 (21.9)	2 (33.3)	2 (28.6)	12 (34.3)	3 (12.5)	19 (30.2)		41 (32.8)	16 (16.3)	44 (29.5)	13 (17.6)	57 (25.6)
보통이다	12 (48.0)	17 (56.7)	16 (50.0)	2 (33.3)	4 (57.1)	18 (51.4)	16 (66.7)	31 (49.2)	1 (100)	60 (48.0)	57 (58.2)	79 (53.0)	38 (51.4)	117 (52.5)
심각한 편임	8 (32.0)	5 (16.7)	8 (25.0)	1 (16.7)	1 (14.3)	3 (8.6)	5 (20.8)	10 (15.9)		22 (17.6)	19 (19.4)	18 (12.1)	23 (31.1)	41 (18.4)
계	25 (100)	30 (100)	32 (100)	6 (100)	7 (100)	35 (100)	24 (100)	63 (100)	1 (100)	125 (100)	98 (100)	149 (100)	74 (100)	223 (100)

(2) 학력 및 출신학교 차별

학력 및 출신학교 차별의 심각성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아래의 [그림 3-10]과 같다. [그림 3-10]에 보는 바와 같이, 49.8%의 학생이 '심각하다'고 답하였으며, 다음으로 27.8%의 학생들이 '보통이다', 15.2%의 학생이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0] 학력 및 출신학교 차별

학력 및 출신학교 차별에 대한 심각성을 조사한 결과 <표 3-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과대학별로는 인문대학, 생명자원과학대학 학생들이 '심각한 편이다'와 '매우 심각한 편이다'를 합쳐서 각각 80.0%와 85.7%로 학력차별이 심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정대학과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은 '심각한 편이다'와 '매우 심각한 편이다'를 합쳐서 60%이하로 타 대학에 비하여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년별로, 성별로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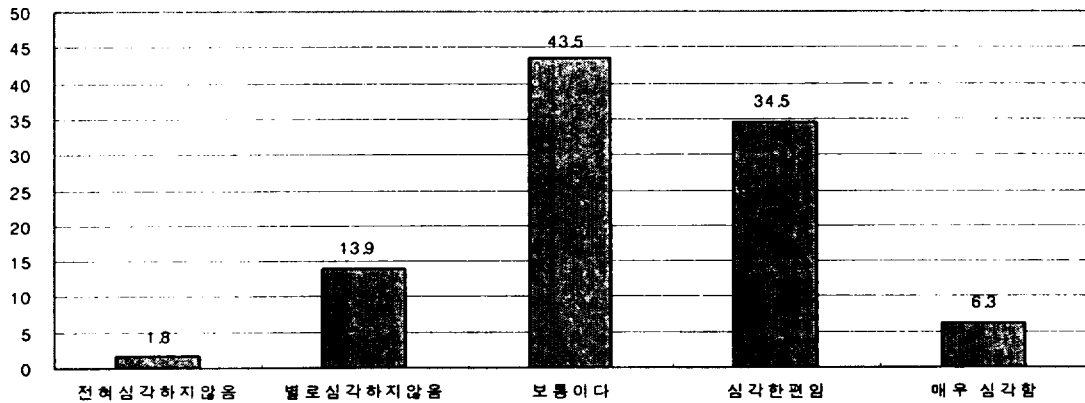
<표 3-10> 학력 및 출신학교 차별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년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3	4	남	여	
전혀 심각하지 않음				1 (16.7)				1 (1.6)			2 (2.0)	2 (1.3)		2 (0.9)
별로 심각하지 않음		2 (6.7)	2 (6.3)			3 (8.6)	2 (8.3)	5 (7.9)		5 (4.0)	9 (9.2)	10 (6.7)	4 (5.4)	14 (6.3)
보 통	5 (20.0)	10 (33.3)	6 (18.8)	1 (16.7)	1 (14.3)	10 (28.6)	9 (37.5)	20 (31.7)		40 (32.0)	22 (22.4)	43 (28.9)	19 (25.7)	62 (27.8)
심 각 한 편 임	16 (64.0)	12 (40.0)	17 (53.1)	3 (50.0)	4 (57.1)	17 (48.6)	12 (50.0)	30 (47.6)		64 (51.2)	47 (48.0)	72 (48.3)	39 (52.7)	111 (49.8)
매 우 심 각 함	4 (16.0)	6 (20.0)	7 (21.9)	1 (16.7)	2 (28.6)	5 (14.3)	1 (4.2)	7 (11.1)	1 (100)	16 (12.8)	18 (18.4)	22 (14.8)	12 (16.2)	34 (15.2)
계	25 (100)	30 (100)	32 (100)	6 (100)	7 (100)	35 (100)	24 (100)	63 (100)	1 (100)	125 (100)	98 (100)	149 (100)	74 (100)	223 (100)

(3) 외모/신체조건 차별

외모/신체조건 차별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묻는 설문에 대한 응답은 아래의 [그림 3-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43.5% 학생이 '보통이다'고 답하였으며, 다음으로 34.5%의 학생이 '심각한 편', 13.9%의 학생이 '별로 심각하지 않다'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1] 외모/신체조건 차별

단과대학별로는 <표 3-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문대학과 생명자원과학대학의 경우에는 '심각한 편이다'와 '매우 심각한 편이다'를 합하여 각각 68.0%와 85.7%로 타 대학에 비하여 높게 나타난 반면에 법정대학, 사범대학, 해양과학대학, 공과대학의 경우에는 '심각한 편이다'와 '매우 심각한 편이다'를 합하여 각각 36.6%, 33.3%, 25.8%, 30.2%로 타 대학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로는 '심각한 편이다'와 '매우 심각한 편이다'를 합하여 남자의 경우에는 32.3%인 반면에 여자는 58.1%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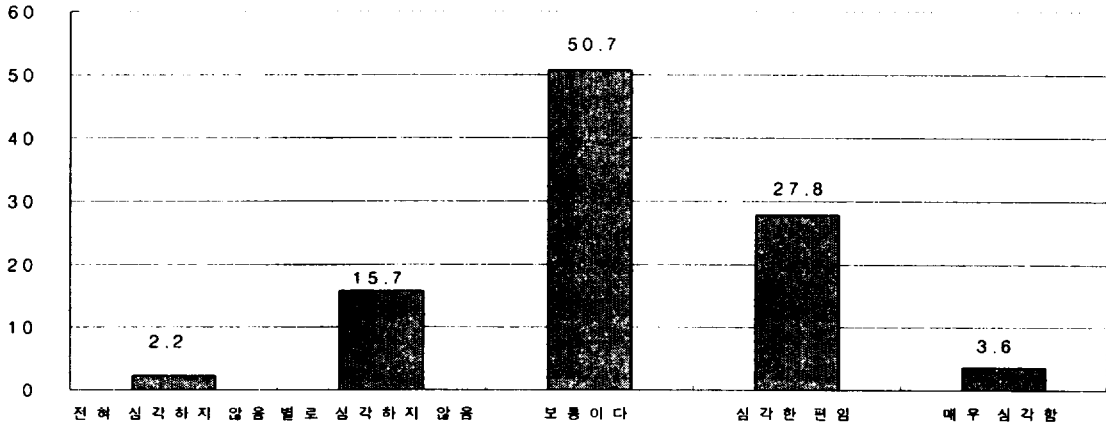
<표 3-11> 외모/신체조건 차별

<단위 : 명(%)>

구분	대 학 별									학년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3	4	남	여	
전혀 심각하지 않음						1 (2.9)	1 (4.2)	2 (3.2)		3 (2.4)	1 (1.0)	3 (2.0)	1 (1.4)	4 (1.8)
별로 심각하지 않음	1 (4.0)	4 (13.3)	5 (15.6)	1 (16.7)		6 (17.1)	1 (4.2)	13 (20.6)		15 (12.0)	16 (16.3)	26 (17.4)	5 (6.8)	31 (13.9)
보통	7 (28.0)	15 (50.0)	11 (34.4)	3 (50.0)	1 (14.3)	19 (54.3)	12 (50.0)	29 (46.0)		55 (44.0)	42 (42.9)	72 (48.3)	25 (33.8)	97 (43.5)
심각한 편임	14 (56.0)	10 (33.3)	12 (37.5)		4 (57.1)	8 (22.9)	10 (41.7)	18 (28.6)	1 (100)	44 (35.2)	33 (33.7)	43 (28.9)	34 (45.9)	77 (34.5)
매우 심각함	3 (12.0)	1 (3.3)	4 (12.5)	2 (33.3)	2 (28.6)	1 (2.9)		1 (1.6)		8 (6.4)	6 (6.1)	5 (3.4)	9 (12.2)	14 (6.3)
계	25 (100)	30 (100)	32 (100)	6 (100)	7 (100)	35 (100)	24 (100)	63 (100)	1 (100)	125 (100)	98 (100)	149 (100)	74 (100)	223 (100)

(4) 연령차별

연령차별에 대한 심각성을 묻는 설문에 대한 응답은 아래의 [그림 3-12]와 같다. [그림 3-12]을 보면 50.7%의 학생이 '보통이다'라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27.8%의 학생이 '심각한 편이다', 15.7%의 학생이 '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2] 연령차별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표 3-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상대학의 경우, '심각한 편이다'와 '매우 심각한 편이다'를 합하여 53.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해양과학 대학과 공과대학의 경우에는 '심각한 편이다'와 '매우 심각한 편이다'를 합하여 각각 17.2%, 22.2%로 타 대학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심각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24.2%인 반면에 여학생의 경우는 35.1%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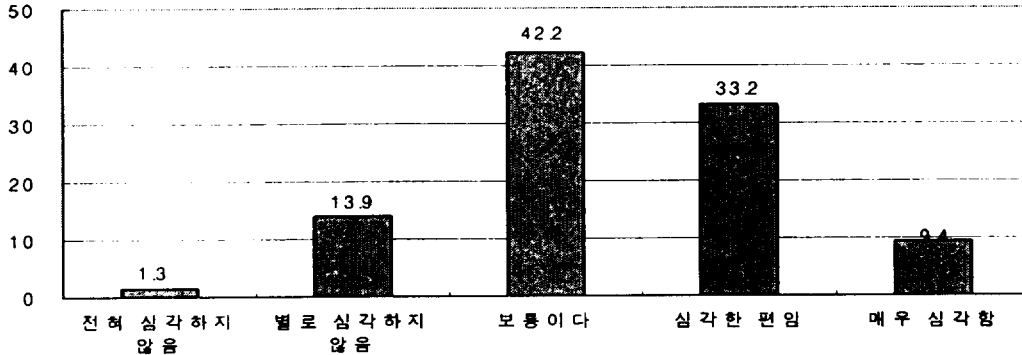
<표 3-12> 연령차별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3	4	남	여	
전혀 심각하지 않음	1 (4.0)	1 (3.3)		1 (16.7)		1 (2.9)		1 (1.6)		2 (1.6)	3 (3.1)	4 (2.7)	1 (1.4)	5 (2.2)
별로 심각하지 않음	6 (24.0)	1 (3.3)	2 (6.3)		1 (14.3)	6 (17.1)	2 (8.3)	17 (27.0)		20 (16.0)	15 (15.3)	28 (18.8)	7 (9.5)	35 (15.7)
보 통	8 (32.0)	18 (60.0)	13 (40.6)	3 (50.0)	3 (42.9)	22 (62.9)	14 (58.3)	31 (49.2)	1 (100)	60 (48.0)	53 (54.1)	77 (51.7)	36 (48.6)	113 (50.7)
심 각 한 편 임	8 (32.0)	10 (33.3)	16 (50.0)	2 (33.3)	2 (28.6)	5 (14.3)	7 (29.2)	1 (19.0)		39 (31.2)	23 (23.5)	36 (24.2)	26 (35.1)	62 (27.8)
매 심 각 함	2 (8.0)		1 (3.1)		1 (14.3)	1 (2.9)	1 (4.2)	2 (3.2)		4 (3.2)	4 (4.1)	4 (2.7)	4 (5.4)	8 (3.6)
계	25 (100)	30 (100)	32 (100)	6 (100)	7 (100)	35 (100)	24 (100)	63 (100)	1 (100)	125 (100)	98 (100)	149 (100)	74 (100)	223 (100)

(5) 지역차별

지역차별에 대한 심각성을 묻는 설문에 대한 응답은 아래의 [그림 3-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42.2%의 학생이 '보통이다'고, 다음으로 33.2%의 학생이 '심각한 편이다', 13.9%의 학생이 '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3] 지역차별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표 3-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상대학교와 사범대학교의 경우, '심각한 편이다'와 '매우 심각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각각 62.5%, 66.7%로 타 대학에 비하여 높게 나타난 반면에, 자연과학대학교와 공과대학은 33.3%와 36.5%로 비교적 낮았으며, 해양과학대학은 22.8%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3학년의 경우, '심각한 편이다'와 '매우 심각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45.6%인 반면에, 4학년은 38.7%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심각한 편이다'와 '매우 심각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남학생 40.3%인 반면에, 여자는 47.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3> 지역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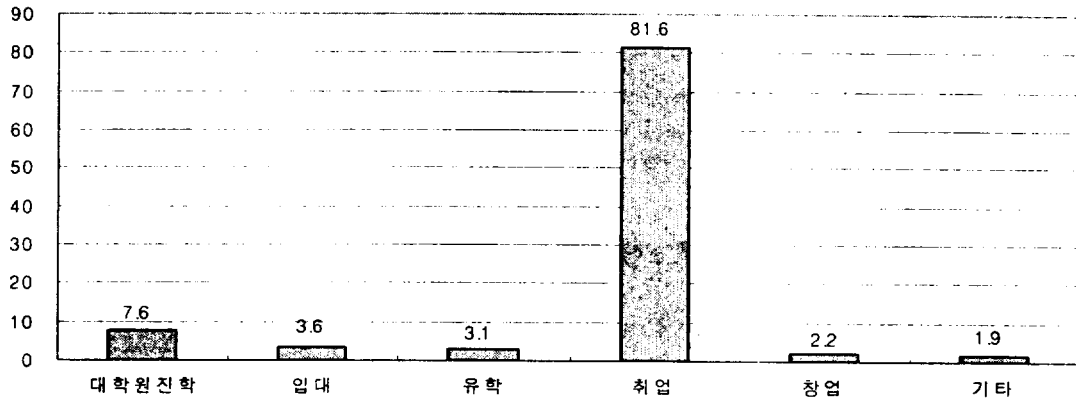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대 학 별									학년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3	4	남	여	
전혀 심각하지 않음	1 (4.0)						1 (4.2)	1 (1.6)		2 (1.6)	1 (1.0)	2 (1.3)	1 (1.4)	3 (1.3)
별로 심각하지 않음	2 (8.0)	3 (10.0)	3 (9.4)		2 (28.6)	4 (11.4)	2 (8.3)	15 (23.8)		14 (11.2)	17 (17.3)	22 (14.8)	9 (12.2)	31 (13.9)
보통	8 (32.0)	13 (43.3)	9 (28.1)	2 (33.3)	2 (28.6)	23 (65.7)	13 (54.2)	24 (38.1)		52 (41.6)	42 (42.9)	65 (43.6)	29 (39.2)	94 (42.2)
심각한 편	11 (44.0)	12 (40.0)	13 (40.6)	3 (50.0)	2 (28.6)	6 (17.1)	6 (25.0)	21 (33.3)		48 (38.4)	26 (26.5)	48 (32.2)	26 (35.1)	74 (33.2)
매우 심각한 편	3 (12.0)	2 (6.7)	7 (21.9)	1 (16.7)	1 (14.3)	2 (5.7)	2 (8.3)	2 (3.2)	1 (100)	9 (7.2)	12 (12.2)	12 (8.1)	9 (12.2)	21 (9.4)
계	25 (100)	30 (100)	32 (100)	6 (100)	7 (100)	35 (100)	24 (100)	63 (100)	1 (100)	125 (100)	98 (100)	149 (100)	74 (100)	223 (100)

2. 취업관련 요인

1) 졸업 후 진로선택

진로 의식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선택은 [그림 3-14]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취업을 원하는 학생이 81.6%, 대학원 진학을 원하는 학생이 7.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제주대학생들은 졸업 후에 취업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 3-14] 졸업 후 진로 선택

단과대학별로는 <표 3-14>에 나타난 것 처럼 법정대학은 90.0%의 학생이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과대학의 경우는 88.9%의 학생이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년별로 성별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4> 졸업 후 진로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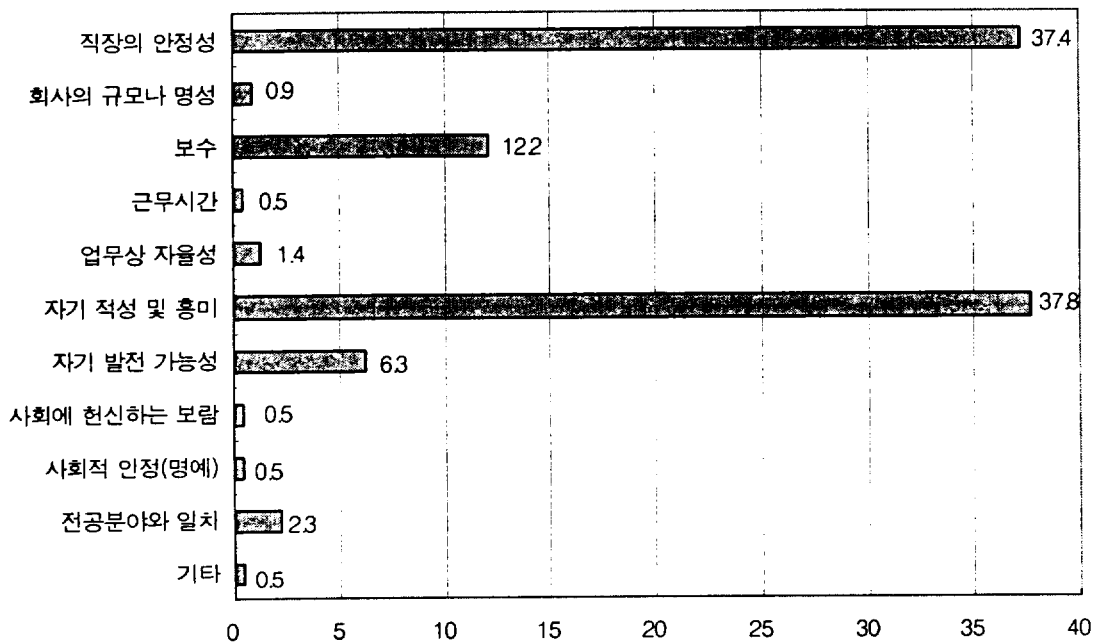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3	4	남	여	
대 학 원 학	1 (4.0)	1 (3.3)		1 (16.7)	3 (42.9)	5 (14.3)	2 (8.3)	4 (6.3)		7 (5.6)	10 (10.2)	12 (8.1)	5 (6.8)	17 (7.6)
입 대		2 (6.7)	1 (3.1)	1 (16.7)			4 (16.7)			3 (2.4)	5 (5.1)	8 (5.4)		8 (3.6)
유 학	2 (8.0)		2 (6.3)	1 (16.7)				1 (1.6)	1 (100)	6 (4.8)	1 (1.0)	2 (1.3)	5 (6.8)	7 (3.1)
취 업	21 (84.0)	27 (90.0)	28 (87.5)	3 (50.0)	3 (42.9)	28 (80.0)	16 (66.7)	56 (88.9)		104 (83.2)	78 (79.6)	122 (81.9)	60 (81.1)	182 (81.6)
창 업	1 (4.0)		1 (3.1)		1 (14.3)		1 (4.2)	1 (1.6)		5 (4.0)		2 (1.3)	3 (4.1)	5 (2.2)
기 타						2 (5.7)	1 (4.2)	1 (1.6)			4 (4.1)	3 (2.0)	1 (1.4)	4 (1.9)
계	25 (100)	30 (100)	32 (100)	6 (100)	7 (100)	35 (100)	24 (100)	63 (100)	1 (100)	125 (100)	98 (100)	149 (100)	74 (100)	223 (100)

2)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1)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 1순위

직업을 선택할 때 1순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림 3-15]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를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37.8%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직장의 안정성'이 37.4%, '보수' 12.2%, '자기 발전 가능성' 6.3%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5]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 1순위

단과대학별로는 <표 3-15>에 나타난 것 처럼 법정대학, 해양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의 경우에는 '직장의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에, 다른 대학들은 '자기 적성 및 흥미'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학년별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녀별로는 차이가 있었는데 남자의 경우에는 41.9%의 학생들이 '직장의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에 여자의 경우에는 '자기 적성 및 흥미'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43.2%로 가장 많았다.

<표 3-15>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 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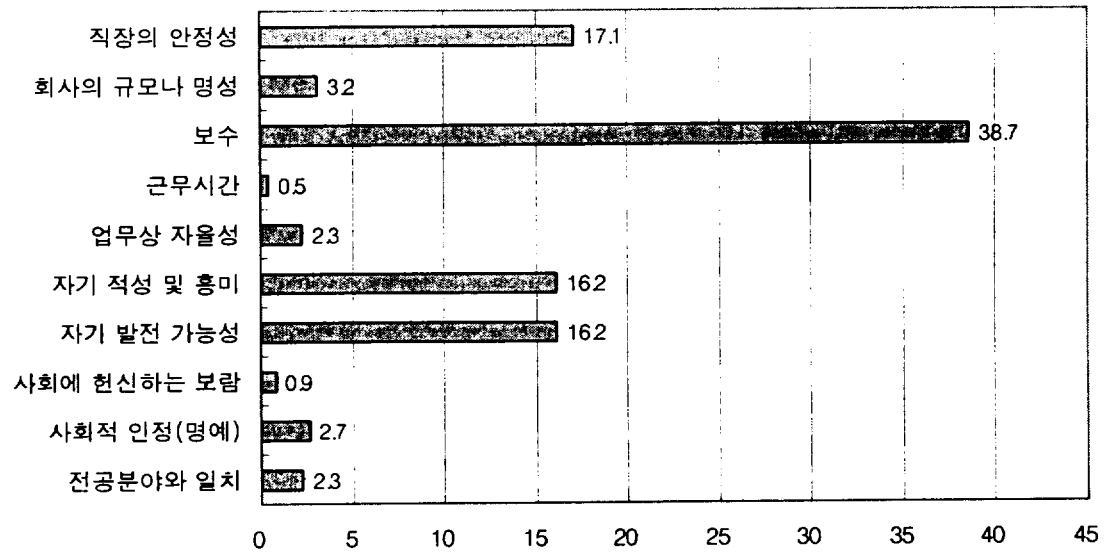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3	4	남	여	
직 장 의 안 정 성	8 (32.0)	11 (37.9)	7 (21.9)	2 (33.3)	1 (14.3)	18 (51.4)	12 (50.0)	24 (38.1)		48 (38.7)	35 (35.7)	62 (41.9)	21 (28.4)	83 (37.4)
회 사 의 규 모 나 명 성		1 (3.4)	1 (3.1)							2 (1.6)		1 (0.7)	1 (1.4)	2 (0.9)
보 수	4 (16.0)	6 (20.7)	6 (18.8)			3 (8.6)		8 (12.7)		14 (11.3)	13 (13.3)	17 (11.5)	10 (13.5)	27 (12.2)
근 무 시 간							1 (4.2)				1 (1.0)		1 (1.4)	1 (0.5)
업 무 상 자 율 성		1 (3.4)				1 (2.9)		1 (1.6)		1 (0.8)	2 (2.0)	3 (2.0)		3 (1.4)
자 기 적 성 및 흥 미	11 (44.0)	8 (27.6)	16 (50.0)	3 (50.0)	4 (57.1)	9 (25.7)	10 (41.7)	22 (34.9)	1 (100)	49 (39.5)	35 (35.7)	52 (35.1)	32 (43.2)	84 (37.8)
자 기 발 전 가 능 성	2 (8.0)	1 (3.4)	2 (6.3)	1 (16.7)	1 (14.3)	3 (8.6)		4 (6.3)		6 (4.8)	8 (8.2)	8 (5.4)	6 (8.1)	14 (6.3)
사 회 에 헌 신 하 는 보 람					1 (14.3)						1 (1.0)	1 (0.7)		1 (0.5)
사 회 적 인 정 (명 예)						1 (2.9)					1 (1.0)	1 (0.7)		1 (0.5)
전 공 분 야 와 일 치							1 (4.2)	4 (6.3)		3 (2.4)	2 (2.0)	3 (2.0)	2 (2.7)	5 (2.3)
기 타		1 (3.4)								1 (0.8)			1 (1.4)	1 (0.5)
계	25 (100)	29 (100)	32 (100)	6 (100)	7 (100)	35 (100)	24 (100)	63 (100)	1 (100)	124 (100)	98 (100)	148 (100)	74 (100)	222 (100)

(2)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 2순위

직업을 선택할 때 2순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림 3-16]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수'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38.7%, '직장의 안정성' 17.1%, '자기 적성 및 흥미'와 '자기 발전 가능성' 16.2%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는 <표 3-16>에 나타난 것 처럼 인문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 학생들이 '보수'가 2순위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학년별로, 성별로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이 모두 보수가 2순위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3-16]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 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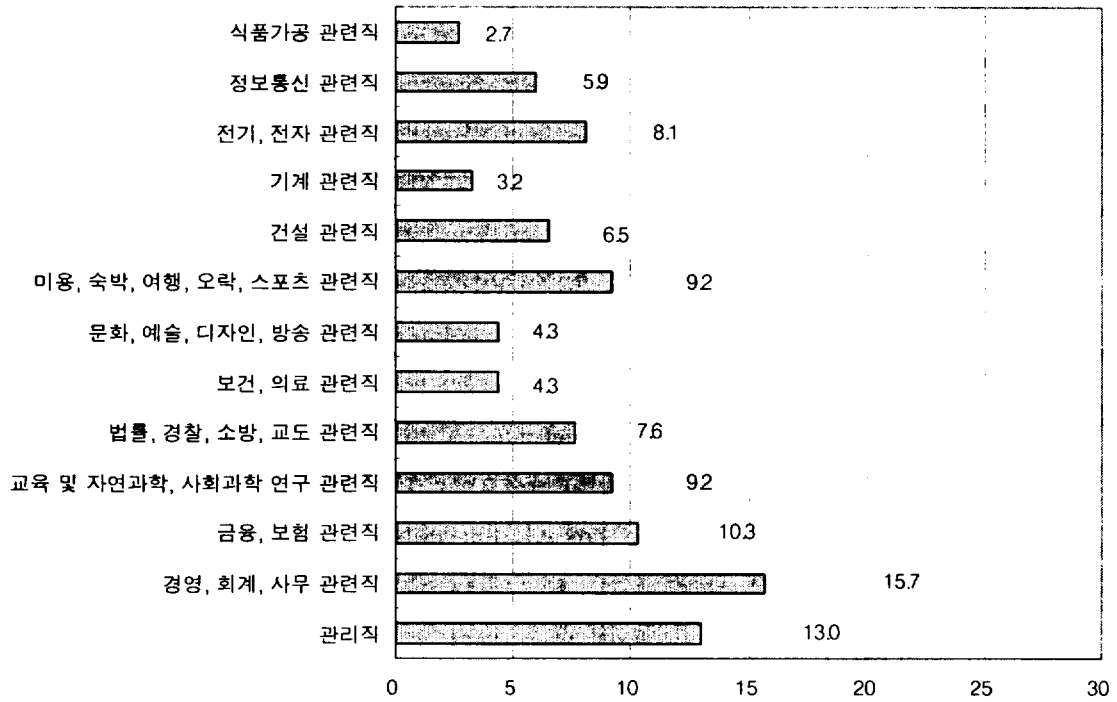
<표 3-16>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 2순위

<단위 : 명(%)>

구분	대학별									학년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3	4	남	여	
직장 안정성	5 (20.0)	6 (20.7)	5 (15.6)			4 (11.4)	4 (16.7)	14 (22.2)		18 (14.5)	20 (20.4)	25 (16.9)	13 (17.6)	38 (17.1)
회사의 규모나 명성			1 (3.1)			3 (8.6)	1 (4.2)	2 (3.2)		7 (5.6)		6 (4.1)	1 (1.4)	7 (3.2)
보수	5 (20.0)	8 (27.6)	15 (46.9)	4 (66.7)	4 (57.1)	13 (37.1)	11 (45.8)	25 (39.7)	1 (100)	47 (37.9)	39 (39.8)	58 (39.2)	28 (37.8)	86 (38.7)
근무시간		1 (3.4)									1 (1.0)	1 (0.7)		2 (0.5)
업무상 자율성					1 (14.3)	1 (2.9)		3 (4.8)		3 (2.4)	2 (2.0)	4 (2.7)	1 (1.4)	5 (2.3)
자기 적성 및 흥미	8 (32.0)	7 (24.1)	2 (6.3)	1 (16.7)	1 (14.3)	6 (17.1)	4 (16.7)	7 (11.1)		20 (16.1)	16 (16.3)	21 (14.2)	15 (20.3)	36 (16.2)
자기 발전 가능성	7 (28.0)	4 (13.8)	6 (18.8)	1 (16.7)	1 (14.3)	8 (22.9)	2 (8.3)	7 (11.1)		21 (16.9)	15 (15.3)	23 (15.5)	13 (17.6)	36 (16.2)
사회에 헌신하는 보람		2 (6.9)								1 (0.8)	1 (1.0)	1 (0.7)	1 (1.4)	2 (0.9)
사회적 인정(명예)		1 (3.4)	2 (6.3)				1 (4.2)	2 (3.2)		3 (2.4)	3 (3.1)	4 (2.7)	2 (2.7)	6 (2.7)
전공분야와 일치			1 (3.1)				1 (4.2)	3 (4.8)		4 (3.2)	1 (1.0)	5 (3.4)		5 (2.3)
계	25 (100)	29 (100)	32 (100)	6 (100)	7 (100)	35 (100)	24 (100)	63 (100)	1 (100)	124 (100)	98 (100)	148 (100)	74 (100)	222 (100)

3) 졸업 후 희망하는 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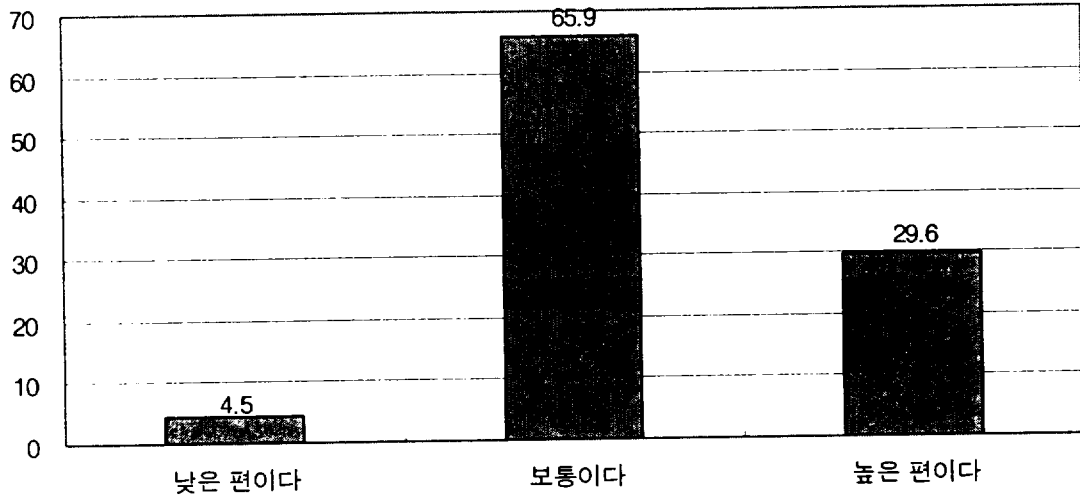
학생들이 취업하고 싶어하는 직종은 [그림 3-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영·회계·사무 관련직'에 취업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15.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관리직'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13.0%, '금융·보험 관련직' 10.3%,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관련직'과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 관련직을 희망하는 학생이 9.2%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7] 졸업 후 희망하는 직업

4) 희망하는 직업의 사회적 지위는 어느 정도 높다고 생각하는가?

희망하는 직업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응답은 [그림 3-18]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65.9%의 학생이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높은 편이다'로 응답한 학생은 29.6%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8] 희망하는 직업의 사회적 지위

단과대학별로는 <표 3-17>에 보는 바와 같이 사범대학 학생들이 자신들이 희망하는 직업의 사회적 지위가 '높은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50.0%로 가장 높은 반면에, 법정대학 학생들은 16.7%의 학생들만 '높은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학년별, 성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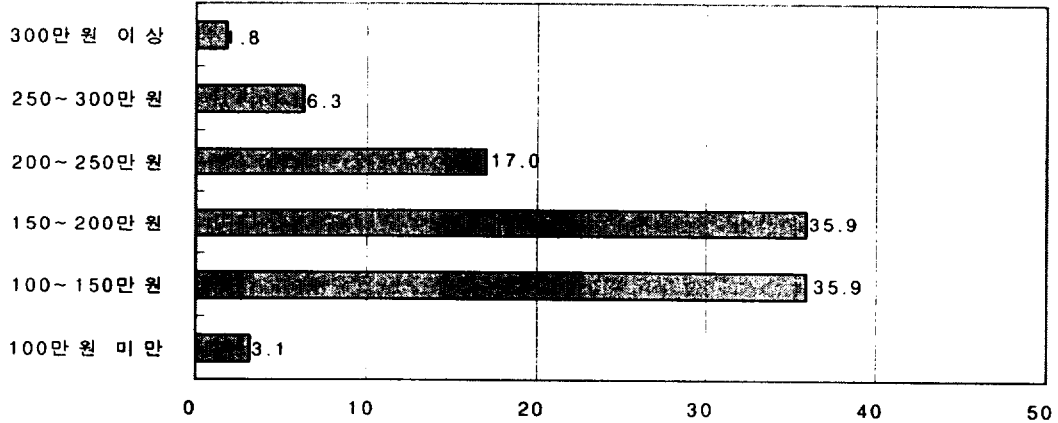
<표 3-17> 희망하는 직업의 사회적 지위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3	4	남	여	
낮 은 편	2 (8.0)	1 (3.3)	1 (3.1)				2 (8.3)	4 (6.3)		3 (2.4)	7 (7.1)	6 (4.0)	4 (5.4)	10 (4.5)
보 통	15 (60.0)	24 (80.0)	20 (62.5)	3 (50.0)	5 (71.4)	25 (71.4)	15 (62.5)	39 (61.9)	1 (100)	81 (64.8)	66 (67.3)	97 (65.1)	50 (67.6)	147 (65.9)
높 은 편	8 (32.0)	5 (16.7)	11 (34.4)	3 (50.0)	2 (28.6)	10 (28.6)	7 (29.2)	20 (31.7)		41 (32.8)	25 (25.5)	46 (30.9)	20 (27.0)	66 (29.6)
계	25 (100)	30 (100)	32 (100)	6 (100)	7 (100)	35 (100)	24 (100)	63 (100)	1 (100)	125 (100)	98 (100)	149 (100)	74 (100)	223 (100)

5) 첫 취업시 급여 수준

취업 후 처음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은 [그림 3-19]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0~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학생과 150~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모두 35.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17.0%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9] 첫 취업시 급여 수준

단과대학별로는 <표 3-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문대학 학생들의 희망 보수가 다른 대학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공과대학생들의 희망 보수가 다른 대학들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보면 3학년 보다 4학년 학생들의 희망 보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 보다 여자의 희망 보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8> 첫 취업시 급여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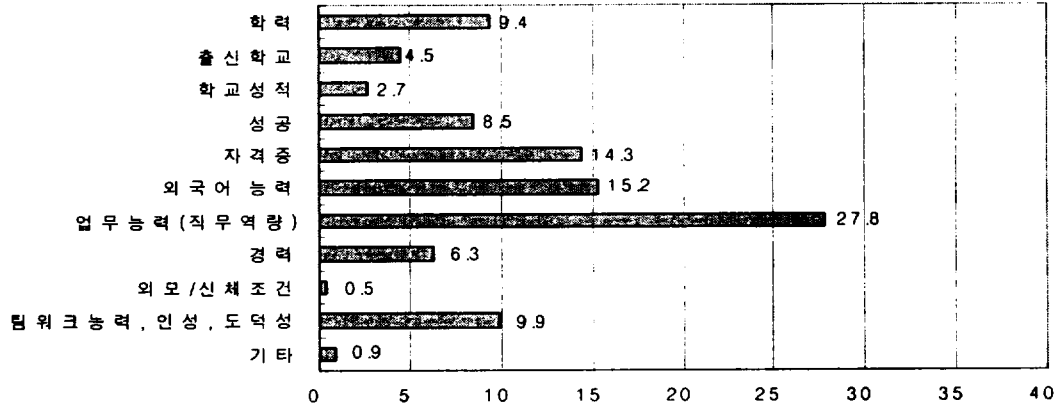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3	4	남	여	
100만원 미만	1 (4.0)	2 (6.7)	1 (3.1)			1 (2.9)	1 (4.2)	1 (1.6)			7 (7.1)	2 (1.3)	5 (6.8)	7 (3.1)
100~150만원	14 (56.0)	9 (30.0)	11 (34.4)	1 (16.7)	1 (14.3)	14 (40.0)	8 (33.3)	22 (34.9)		40 (32.0)	40 (40.8)	47 (31.5)	33 (44.6)	80 (35.9)
150~200만원	8 (32.0)	12 (40.0)	11 (34.4)	3 (50.0)	5 (71.4)	14 (40.0)	9 (37.5)	18 (28.6)		50 (40.0)	30 (30.6)	56 (37.6)	24 (32.4)	80 (35.9)
200~250만원	1 (4.0)	5 (16.7)	7 (21.9)	2 (33.3)		3 (8.6)	6 (25.0)	13 (20.6)	1 (100)	22 (17.6)	16 (16.3)	29 (19.5)	9 (12.2)	38 (17.0)
250~300만원	1 (4.0)	2 (6.7)	1 (3.1)			3 (8.6)		7 (11.1)		9 (7.2)	5 (5.1)	13 (8.7)	1 (1.4)	14 (6.3)
300만원			1 (3.1)		1 (14.3)			2 (3.2)		4 (3.2)		2 (1.3)	2 (2.7)	4 (1.8)
계	25 (100)	30 (100)	32 (100)	6 (100)	7 (100)	35 (100)	24 (100)	63 (100)	1 (100)	125 (100)	98 (100)	149 (100)	74 (100)	223 (100)

6) 기업이 직원채용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

(1) 기업이 직원채용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 - 1순위

기업이 직원채용에서 1순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그림 3-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27.8%의 학생이 '업무능력(직무역량)'이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외국어 능력' 15.2%, '자격증' 14.3%로 나타났다.



[그림 3-20] 직원채용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 - 1순위

<표 3-19> 직원채용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 - 1순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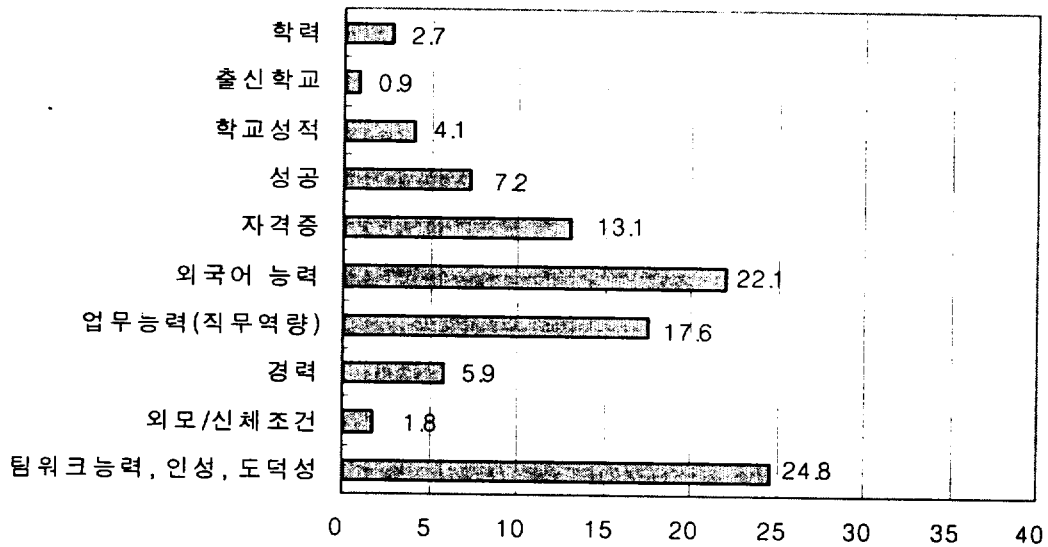
구분	대학별									학년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3	4	남	여	
학력	3 (12.0)	2 (6.7)	1 (3.1)	2 (33.3)	1 (14.3)	5 (14.3)	4 (16.7)	3 (4.8)		9 (7.2)	12 (12.2)	13 (8.7)	8 (10.8)	21 (9.4)
출신 학교		3 (10.0)	1 (3.1)		1 (14.3)	1 (2.9)		3 (4.8)	1 (100)	4 (3.2)	6 (6.1)	6 (4.0)	4 (5.4)	10 (4.5)
학교 성적	1 (4.0)	2 (6.7)				1 (2.9)	2 (8.3)			2 (1.6)	4 (4.1)	3 (2.0)	3 (4.1)	6 (2.7)
성공			3 (9.4)	1 (16.7)	1 (14.3)	3 (8.6)	3 (12.5)	8 (12.7)		11 (8.8)	8 (8.2)	15 (10.1)	4 (5.4)	19 (8.5)
자격증	3 (12.0)	4 (13.3)	3 (9.4)		1 (14.3)	7 (20.0)	2 (8.3)	12 (19.0)		19 (15.2)	13 (13.3)	24 (16.1)	8 (10.8)	32 (14.3)
외국어능력	3 (12.0)	7 (23.3)	11 (34.4)		1 (14.3)	4 (11.4)	3 (12.5)	5 (7.9)		19 (15.2)	15 (15.3)	18 (12.1)	16 (21.6)	34 (15.2)
업무능력 (직무역량)	13 (52.0)	10 (33.3)	10 (31.3)	1 (16.7)	1 (14.3)	7 (20.0)	5 (20.8)	15 (23.8)		37 (29.6)	25 (25.5)	36 (24.2)	26 (35.1)	62 (27.8)
경력			1 (3.1)			4 (11.4)	1 (4.2)	8 (12.7)		7 (5.6)	7 (7.1)	14 (9.4)		14 (6.3)
외모/신체 조건		1 (3.3)									1 (1.0)	1 (0.7)		1 (0.5)
팀워크능력, 인성, 도덕성	2 (8.0)	1 (3.3)	2 (6.3)	2 (33.3)	1 (14.3)	1 (2.9)	4 (16.7)	9 (14.3)		16 (12.8)	6 (6.1)	18 (12.1)	4 (5.4)	22 (9.9)
기타						2 (5.7)				1 (0.8)	1 (1.0)	1 (0.7)	1 (1.4)	2 (0.9)
계	25 (100)	30 (100)	32 (100)	6 (100)	7 (100)	35 (100)	24 (100)	63 (100)	1 (100)	125 (100)	98 (100)	149 (100)	74 (100)	223 (100)

단과대학별로, 학년별로는 <표 3-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슷한 분포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문대학의 경우, '업무능력(직무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52.0%로 타 대학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별로 보면, 남녀 모두 '업무능력(직무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을 하였으나 남자는 24.2%에 그친 반면에, 여자는 35.1%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남자의 경우, '자격증'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16.1%인 반면에, 여자의 경우는 '외국어 능력'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21.6%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직원채용에서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 - 2순위

기업이 직원채용에서 2순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아래의 [그림 3-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4.8%의 학생이 '팀워크 능력, 인성, 도덕성'이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는 22.1%의 학생이 '외국어 능력', 17.6%의 학생들이 '업무능력(직무역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1] 직원채용에서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 - 2순위

단과대학별로, 학년별로, 성별로는 <표 3-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슷한 분포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0> 직원채용에서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 - 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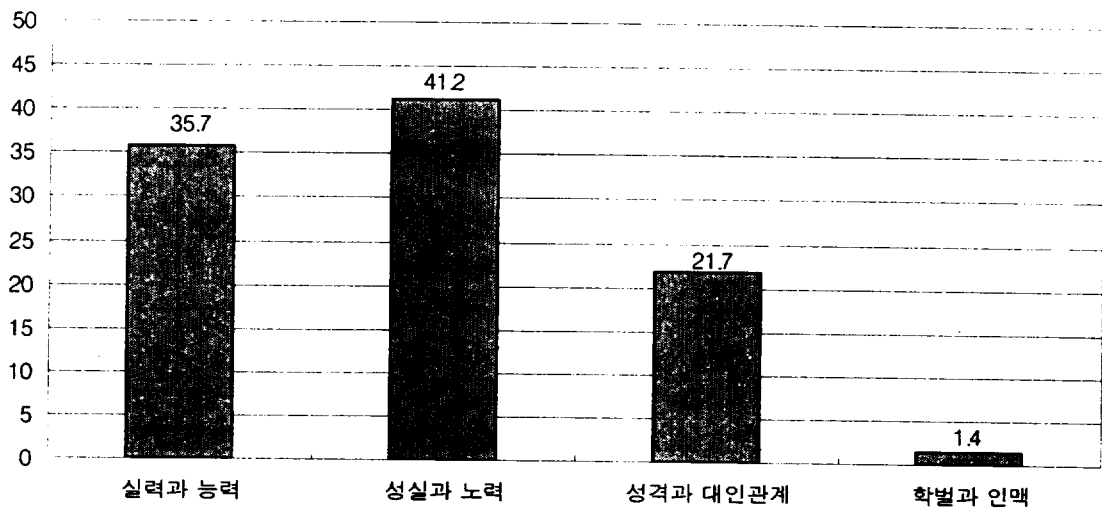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3	4	남	여	
학 력	1 (4.0)	1 (3.3)	1 (3.2)			2 (5.7)		1 (1.6)		2 (1.6)	4 (4.1)	4 (2.7)	2 (2.7)	6 (2.7)
출 신 학 교	1 (4.0)	1 (3.3)								2 (1.6)			2 (2.7)	2 (0.9)
학 교 성 적		1 (3.3)	2 (6.5)	1 (16.7)	2 (28.6)	1 (2.9)		2 (3.2)		5 (4.0)	4 (4.1)	6 (4.0)	3 (4.1)	9 (4.1)
전 공	1 (4.0)	1 (3.3)				2 (5.7)	5 (20.8)	7 (11.1)		8 (6.5)	8 (8.2)	12 (8.1)	4 (5.5)	16 (7.2)
자 격 증	2 (8.0)	2 (6.7)	5 (16.1)	1 (16.7)	1 (14.3)	7 (20.0)	4 (16.7)	7 (11.1)		15 (12.1)	14 (14.3)	21 (14.1)	8 (11.0)	29 (13.1)
외국어능력	7 (28.0)	8 (26.7)	7 (22.6)	1 (16.7)		9 (25.7)	1 (4.2)	16 (25.4)		26 (21.0)	23 (23.5)	33 (22.1)	16 (21.9)	49 (22.1)
업무능력 (직무역량)	3 (12.0)	4 (13.3)	3 (9.7)	2 (33.3)	2 (28.6)	5 (14.3)	7 (29.2)	12 (19.0)	1 (100)	22 (17.7)	17 (17.3)	29 (19.5)	10 (13.7)	39 (17.6)
경 력	1 (4.0)	3 (10.0)	2 (6.5)				3 (12.5)	4 (6.3)		6 (4.8)	7 (7.1)	5 (3.4)	8 (11.0)	13 (5.9)
외모/신체 조 건		1 (3.3)	3 (9.7)							2 (1.6)	2 (2.0)	1 (0.7)	3 (4.1)	4 (1.8)
팀워크능력, 인성,도덕성	9 (36.0)	8 (26.7)	8 (25.8)	1 (16.7)	2 (28.6)	9 (25.7)	4 (16.7)	14 (22.2)		36 (29.0)	19 (19.4)	38 (25.5)	17 (23.3)	55 (24.8)
계	25 (100)	30 (100)	31 (100)	6 (100)	7 (100)	35 (100)	24 (100)	63 (100)	1 (100)	124 (100)	98 (100)	149 (100)	73 (100)	222 (100)

7) 성공적인 직장생활에 필요한 요소

학생들이 성공적인 직장생활에 필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인지가 [그림 3-22]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실과 노력' 41.2%, '실력과 능력' 35.7%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성격과 대인관계' 21.7%, '학벌과 인맥' 1.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1>을 살펴보면, 각 단과대학별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력과 능력'이 성공적인 직장생활에 필요한 요소라고 응답한 단과대학으로는 법정대학, 경상대학, 사범대학, 생명자원과학대학이었으며, '성실과 노력'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해양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으로 나타났다. 인문대학의 경우에는 '실력과 능력', '성실과 노력'이 44.0%로 같았다.



[그림 3-22] 성공적인 직장생활에 필요한 요소

학년별, 성별로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3학년의 경우 39.5%의 학생이 '실력과 능력'이 성공적인 직장생활에 필요한 요소라고 응답한 반면, 4학년의 경우, 44.3%의 학생이 '성실과 노력'이 성공적인 직장생활에 필요한 요소라고 응답하여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 47.6%의 학생이 '성실과 노력'이 성공적인 직장생활에 필요한 요소라고 응답한 반면, 여자의 경우, 47.3%의 학생이 '실력과 능력'이라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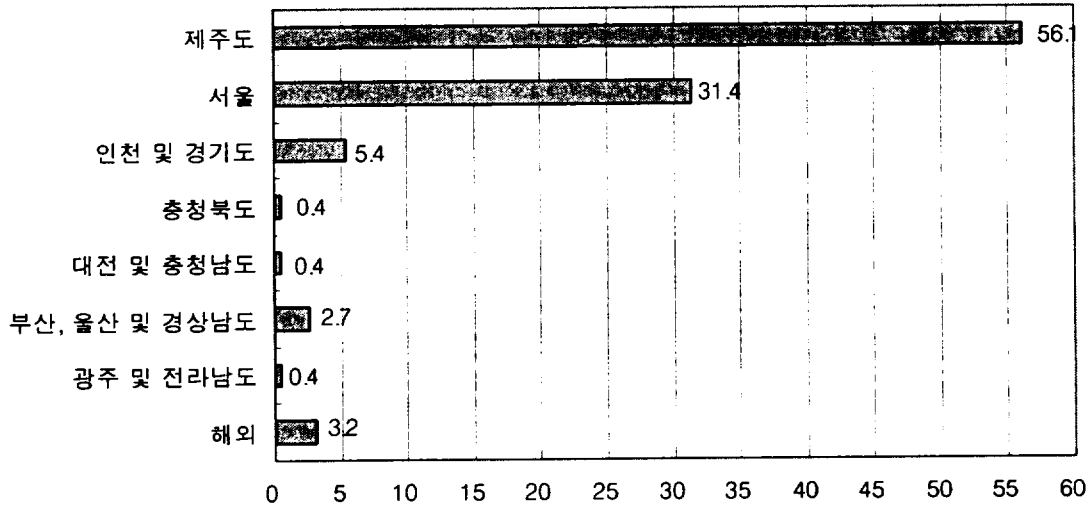
<표 3-21> 성공적인 직장생활에 필요한 요소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3	4	남	여	
실 력 과 능 력	11 (44.0)	14 (46.7)	14 (43.8)	4 (66.7)	3 (50.0)	11 (31.4)	6 (25.0)	15 (24.2)	1 (100)	49 (39.5)	30 (30.9)	44 (29.9)	35 (47.3)	79 (35.7)
성 실 과 노 력	11 (44.0)	10 (33.3)	8 (25.0)	1 (16.7)	2 (33.3)	15 (42.9)	10 (41.7)	34 (54.8)		48 (38.7)	43 (44.3)	70 (47.6)	21 (28.4)	91 (41.2)
성 격 과 대 인 관 계	3 (12.0)	5 (16.7)	9 (28.1)	1 (16.7)	1 (16.7)	8 (22.9)	8 (33.3)	13 (21.0)		26 (21.0)	22 (22.7)	32 (21.8)	16 (21.6)	48 (21.7)
학 벌 과 인 맥		1 (3.3)	1 (3.1)			1 (2.9)				1 (0.8)	2 (2.1)	1 (0.7)	2 (2.7)	3 (1.4)
계	25 (100)	30 (100)	32 (100)	6 (100)	6 (100)	35 (100)	24 (100)	62 (100)	1 (100)	124 (100)	97 (100)	147 (100)	74 (100)	221 (100)

8)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은 아래의 [그림 3-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학생 전체의 56.1%가 제주도라고 응답하였으며, 서울 31.4%, 인천 및 경기도 5.4%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23]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표 3-22>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3	4	남	여	
제 주 도	13 (52.0)	24 (80.0)	10 (31.3)	4 (66.7)	3 (42.9)	21 (60.0)	13 (54.2)	37 (58.7)		68 (54.4)	57 (58.2)	85 (57.0)	40 (54.1)	125 (56.1)
서 울	8 (32.0)	5 (16.7)	17 (53.1)		2 (28.6)	10 (28.6)	8 (33.3)	19 (30.2)	1 (100)	43 (34.4)	27 (27.6)	46 (30.9)	24 (32.4)	70 (31.4)
인 천 및 경 기 도	2 (8.0)		3 (9.4)		1 (14.3)	1 (2.9)	1 (4.2)	4 (6.3)		5 (4.0)	7 (7.1)	10 (6.7)	2 (2.7)	12 (5.4)
충 청 북 도							1 (4.2)				1 (1.0)		1 (1.4)	1 (0.4)
대 전 및 충 청 남 도				1 (16.7)						1 (0.8)		1 (0.7)		1 (0.4)
부 산, 울 산 및 경 상 남 도				1 (16.7)	1 (14.3)	3 (8.6)		1 (1.6)		3 (2.4)	3 (3.1)	4 (2.7)	2 (2.7)	6 (2.7)
광 주 및 전 라 남 도							1 (4.2)			1 (0.8)		1 (0.7)		1 (0.4)
해 외	2 (8.0)	1 (3.3)	2 (6.3)					2 (3.2)		4 (3.2)	3 (3.1)	2 (1.3)	5 (6.8)	7 (3.2)
계	25 (100)	30 (100)	32 (100)	6 (100)	7 (100)	35 (100)	24 (100)	63 (100)	1 (100)	125 (100)	98 (100)	149 (100)	74 (100)	22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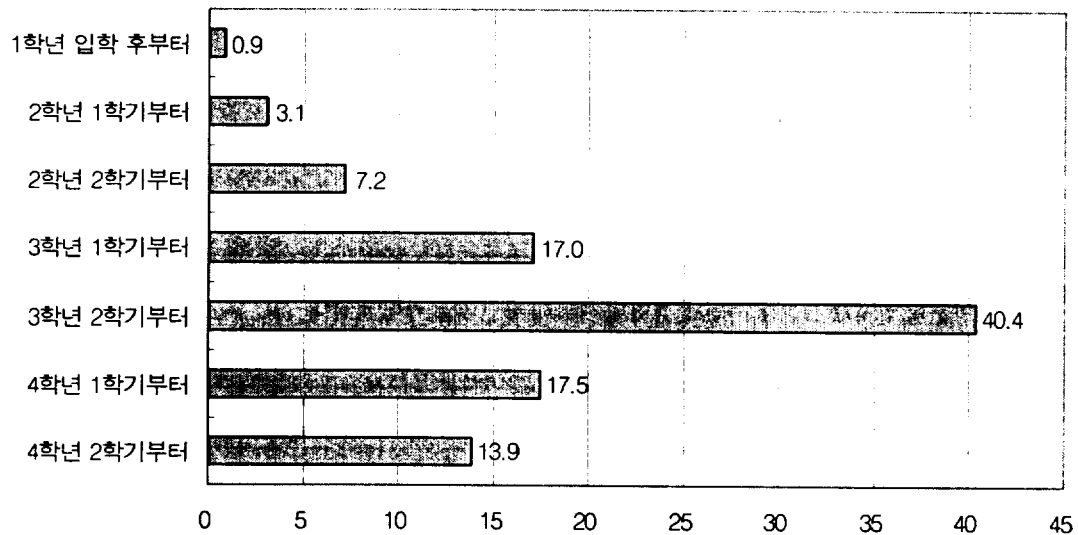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을 조사한 결과 <표 3-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과대학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경상대학의 경우, 53.1%의 학생들이 서울에 취업하기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법정대학의 경우, 80.0%의 학생들이 제주지역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년별, 성별로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았다.

3. 취업준비

1) 취업준비 시작 시기

취업준비 시작 시기를 묻는 설문에 대한 응답은 아래의 [그림 3-24]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24]를 보면 설문에 참여한 학생의 40.4%가 3학년 2학기부터 취업준비를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4학년 1학기 17.5%, 3학년 1학기 17%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24] 취업준비 시작 시기

자신의 취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시기는 <표 3-23>에 나타난 것 처럼 단과대학별로는 사범대학이 다른 대학들 보다 빠른 3학년 2학기 이전부터 취업준비를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해양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의 경우에는 4학년 부터 취업준비를 시작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각각 37.1%, 41.6%, 36.5%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비교를 해보면 3학년의 경우, 55.2%의 학생들이 3학년 2학기부터 취업준비를 시작한다고 응답한 반면에 4학년의 경우에는 4학년 1학기부터 취업준비를 시작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32.7%, 4학년 2학기부터 취업준비를 시작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30.6%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37.6%, 여학생의 경우 45.9%가 3학년 2학기부터 진로준비를 시작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3-23> 취업준비 시작 시기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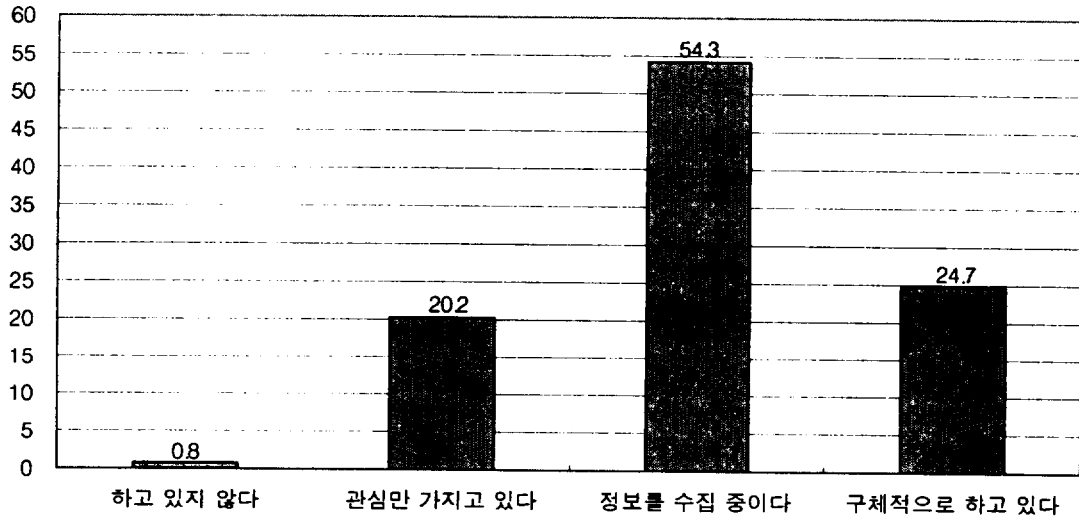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3	4	남	여	
1 학 년 입학후 부터		1 (3.3)					1 (4.2)				2 (2.0)	1 (0.7)	1 (1.4)	2 (0.9)
2 학 년 1학기 부터	1 (4.0)	1 (3.3)	1 (3.1)	1 (16.7)				2 (3.2)	1 (100)	7 (5.6)		6 (4.0)	1 (1.4)	7 (3.1)
2 학 년 2학기 부터		2 (6.7)	2 (6.3)	1 (16.7)		2 (5.7)	2 (8.3)	7 (11.1)		10 (8.0)	6 (6.1)	12 (8.1)	4 (5.4)	16 (7.2)
3 학 년 1학기 부터	5 (20.0)	4 (13.3)	4 (12.5)	2 (33.3)	1 (14.3)	5 (14.3)	5 (20.8)	12 (19.0)		31 (24.8)	7 (7.1)	25 (16.8)	13 (17.6)	38 (17.0)
3 학 년 2학기 부터	12 (48.0)	13 (43.3)	18 (56.3)	2 (33.3)	5 (71.4)	15 (42.9)	6 (25.0)	19 (30.2)		69 (55.2)	21 (21.4)	56 (37.6)	34 (45.9)	90 (40.4)
4 학 년 1학기 부터	5 (20.0)	9 (30.0)	4 (12.5)		1 (14.3)	7 (20.0)	2 (8.3)	11 (17.5)		7 (5.6)	32 (32.7)	26 (17.4)	13 (17.6)	39 (17.5)
4 학 년 2학기 부터	2 (8.0)		3 (9.4)			6 (17.1)	8 (33.3)	12 (19.0)		1 (.8)	30 (30.6)	23 (15.4)	8 (10.8)	31 (13.9)
계	25 (100)	30 (100)	32 (100)	6 (100)	7 (100)	35 (100)	24 (100)	63 (100)	1 (100)	125 (100)	98 (100)	149 (100)	74 (100)	223 (100)

2) 진로선택을 위한 대비

진로선택을 위한 대비상황은 아래의 [그림 3-25]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25]을 보면, 전체 학생의 54.3%가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진로준비를 하고 있다'는 학생이 24.7%, '관심만 가지고 있다'는 학생이 20.2%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는 <표 3-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범대학의 경우, 다른 대학 보다 빨리 진로선택을 위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는 인문대학 학생들이 구체

적으로 진로선택을 준비하거나 구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준비를 하는 학생이 88.0%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3-25] 진로선택을 위한 대비

학년별로는 3학년과 4학년 모두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지만, 3학년의 경우에는 '관심만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27.2%로 4학년의 11.2% 보다 많았으며,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3학년은 14.4%이었지만, 4학년 37.8%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녀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4> 진로선택을 위한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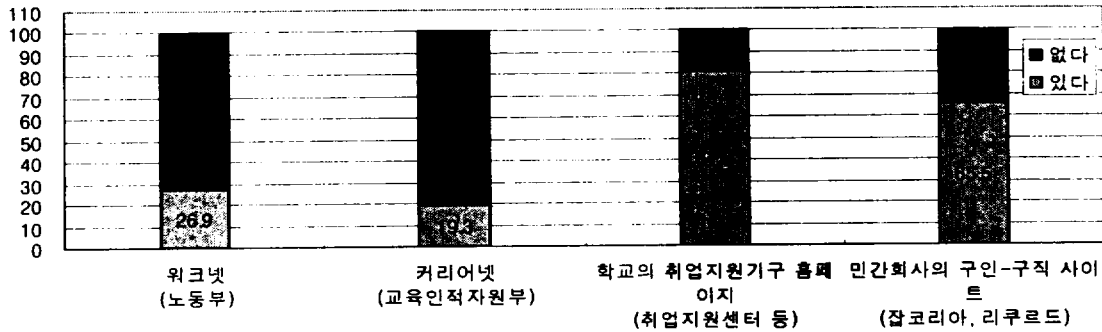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3	4	남	여	
하고 있지 않다		1 (3.3)					1 (4.2)			1 (0.8)	1 (1.0)	2 (1.3)		2 (0.9)
관심만 가지고 있다	3 (12.0)	6 (20.0)	7 (21.9)		2 (28.6)	9 (25.7)	5 (20.8)	13 (20.6)		34 (27.2)	11 (11.2)	27 (18.1)	18 (24.3)	45 (20.2)
정보를 수집 중이다	14 (56.0)	15 (50.0)	20 (62.5)	4 (66.7)	4 (57.1)	21 (60.0)	12 (50.0)	31 (49.2)		72 (57.6)	49 (50.0)	80 (53.7)	41 (55.4)	121 (54.3)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	8 (32.0)	8 (26.7)	5 (15.6)	2 (33.3)	1 (14.3)	5 (14.3)	6 (25.0)	19 (30.2)	1 (100)	18 (14.4)	37 (37.8)	40 (26.8)	15 (20.3)	55 (24.7)
계	25 (100)	30 (100)	32 (100)	6 (100)	7 (100)	35 (100)	24 (100)	63 (100)	1 (100)	125 (100)	98 (100)	149 (100)	74 (100)	223 (100)

3) 취업사이트 이용 경험

(1) 방문 경험이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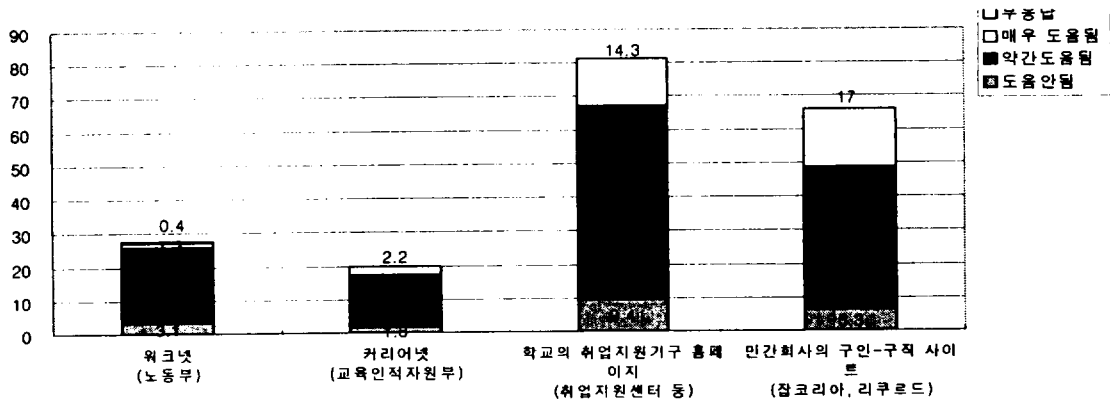
취업을 위해 인터넷 사이트 이용 경험에 대한 응답은 [그림 3-26]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26]을 보면, 인터넷 사이트 중 학교의 취업지원기구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학생이 81.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민간회사의 구인-구직 사이트를 이용하는 학생이 65.5%, 워크넷을 이용하는 학생이 26.9%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6] 인터넷 사이트 이용 경험

(2) 방문 경험이 있다면, 도움 정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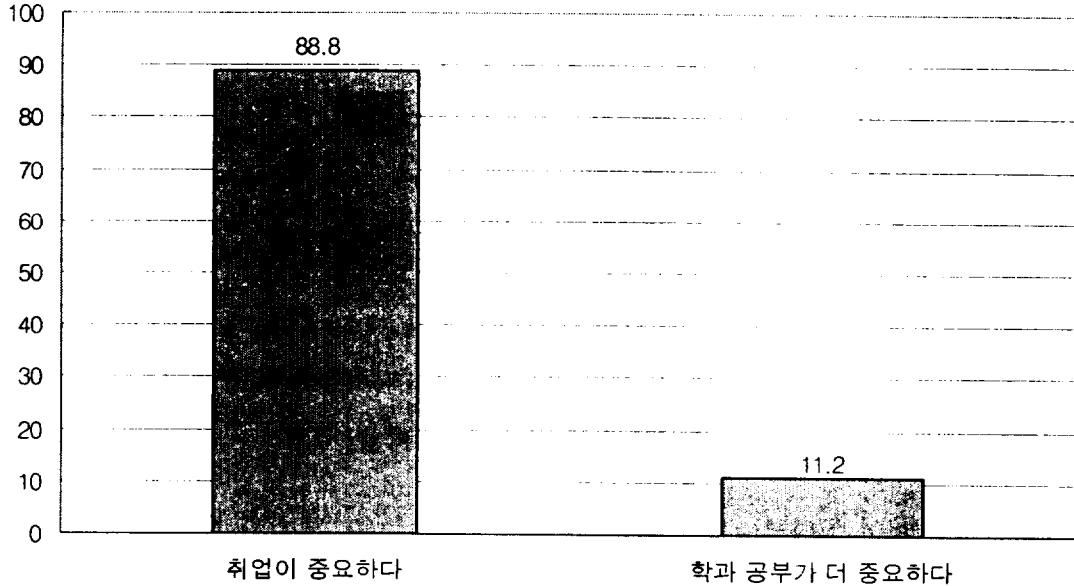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한 경험이 있다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응답은 [그림 3-27]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27]을 보면 민간회사의 구인-구직 사이트는 '매우 도움되었다' 17.0%, '약간 도움되었다'가 42.6%로 나타났다. 학교의 취업지원기구 홈페이지는 '약간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학생이 57.8%,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학생이 14.3%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7] 인터넷 사이트의 도움 정도

4) 취업준비와 학과 공부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취업준비와 학과 공부를 하는 것 중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응답은 아래의 [그림 3-28]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28]을 보면 '취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88.8%, '학과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11.2%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8] 취업준비와 학과 공부 중 중요하다고 생각 것

다음으로 취업준비와 학과공부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표 3-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과대학별, 학년별, 성별로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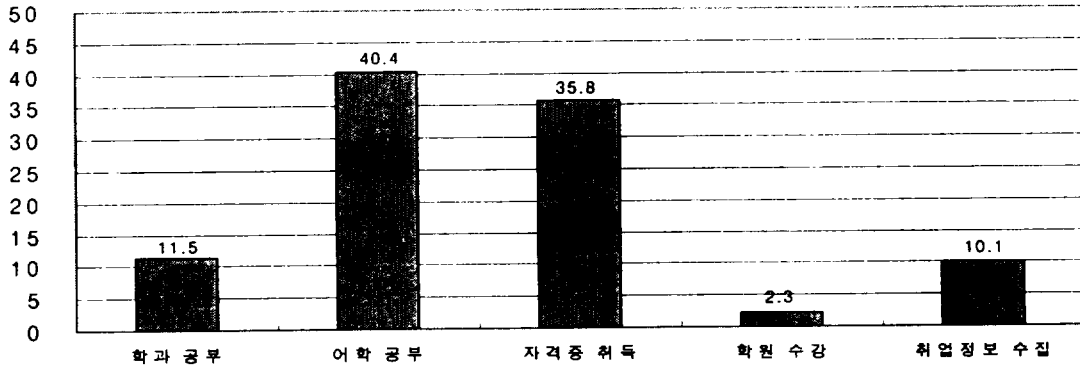
<표 3-25> 취업준비와 학과공부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년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3	4	남	여	
취업이 더 중요하다	23 (92.0)	27 (90.0)	28 (87.5)	5 (83.3)	5 (71.4)	32 (91.4)	21 (87.5)	57 (90.5)		111 (88.8)	87 (88.8)	133 (89.3)	65 (87.8)	198 (88.8)
학과공부가 더 중요하다	2 (8.0)	3 (10.0)	4 (12.5)	1 (16.7)	2 (28.6)	3 (8.6)	3 (12.5)	6 (9.5)	1 (100)	14 (11.2)	11 (11.2)	16 (10.7)	9 (12.2)	25 (11.2)
계	25 (100)	30 (100)	32 (100)	6 (100)	7 (100)	35 (100)	24 (100)	63 (100)	1 (100)	125 (100)	98 (100)	149 (100)	74 (100)	223 (100)

5) 취업을 위하여 중점을 두고 공부하는 것

취업을 위하여 중점을 두고 공부하는 것은 [그림 3-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학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40.4%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격증 취득' 35.8%, '학과 공부'가 11.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29] 취업을 위하여 중점을 두고 공부하는 것

단과대학별로는 <표 3-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학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단과대학으로는 인문대학, 법정대학, 경상대학, 사범대학, 생명자원과학대학이었으며, 자연과학대학과 공과대학은 '자격증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해양과학대학은 '어학공부'와 '자격증 공부' 모두 37.1%로 같게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자의 경우 41.7%가 '자격증 공부'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에 여자는 '어학 공부'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50.0%로 남녀 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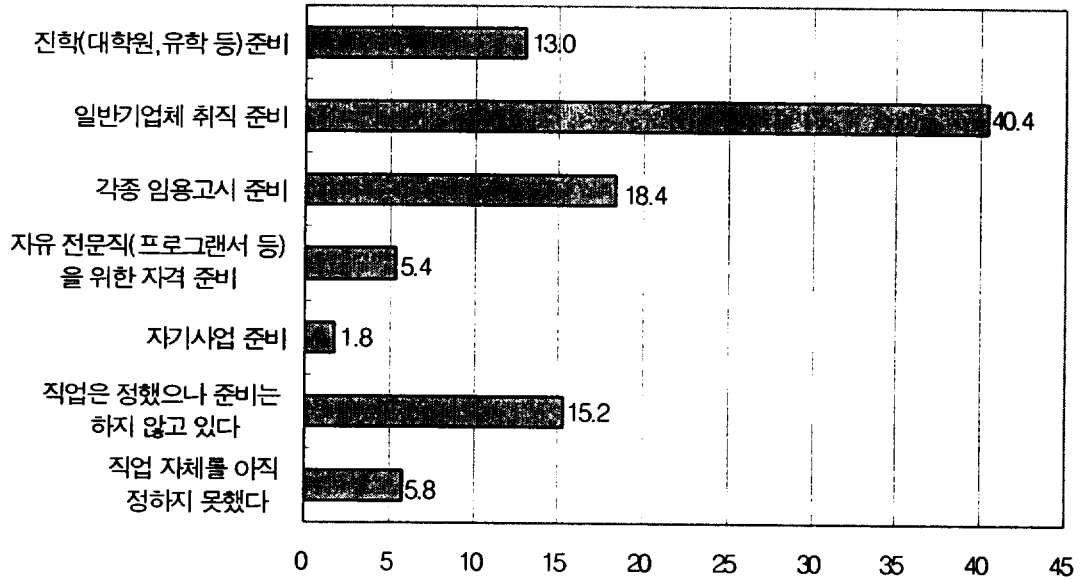
<표 3-26> 취업을 위하여 중점을 두고 공부하는 것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년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3	4	남	여	
학 공 부	2 (8.3)	2 (6.7)	3 (9.4)	1 (16.7)	2 (28.6)	3 (8.6)	6 (25.0)	5 (8.5)	1 (100)	15 (12.3)	10 (10.4)	17 (11.8)	8 (10.8)	25 (11.5)
어 학 부	14 (58.3)	16 (53.3)	20 (62.5)	3 (50.0)	3 (42.9)	13 (37.1)	1 (4.2)	18 (30.5)		48 (39.3)	40 (41.7)	51 (35.4)	37 (50.0)	88 (40.4)
자 격 증 부	8 (33.3)	2 (6.7)	8 (25.0)	1 (16.7)	2 (28.6)	13 (37.1)	11 (45.8)	33 (55.9)		43 (35.2)	35 (36.5)	60 (41.7)	18 (24.3)	78 (35.8)
학 원 수		1 (3.3)		1 (16.7)		1 (2.9)	2 (8.3)			2 (1.6)	3 (3.1)	3 (2.1)	2 (2.7)	5 (2.3)
취 업 정 보 수		9 (30.0)	1 (3.1)			5 (14.3)	4 (16.7)	3 (5.1)		14 (11.5)	8 (8.3)	13 (9.0)	9 (12.2)	22 (10.1)
계	24 (100)	30 (100)	32 (100)	6 (100)	7 (100)	35 (100)	24 (100)	59 (100)	1 (100)	122 (100)	96 (100)	144 (100)	74 (100)	218 (100)

6) 취업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

취업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래의 [그림 3-30]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30]을 보면, '일반기업체 취직 준비' 40.4%, '각종 임용고시 준비' 18.4%, 직업은 정했으나 아직 준비하지 않는 학생이 15.2%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0] 취업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

단과대학별로는 <표 3-27>에 나타난 것 처럼 '일반기업체 취직준비'를 하는 학생이 인문대학의 경우, 52.0%, 공과대학 54.0%, 경상대학 50.0%, 법정대학 33.3%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3학년 37.6%, 4학년 43.9%로 '일반기업체 취직 준비'를 많이 하는 것 같았지만, 3학년은 '직업은 정했지만 준비는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이 22.4%로 4학년의 6.1%보다 높았으며, 4학년은 각종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24.5%인 반면에, 3학년은 13.6%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남녀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일반기업체 취직준비'를 가장 많이 하는 것은 같았지만, 남자는 44.3%인 반면에, 여자는 32.4%로 차이가 있었으며, 다음으로 여자는 '각종 임용고시를 준비'한다는 학생이 25.7%로 남자의 14.8%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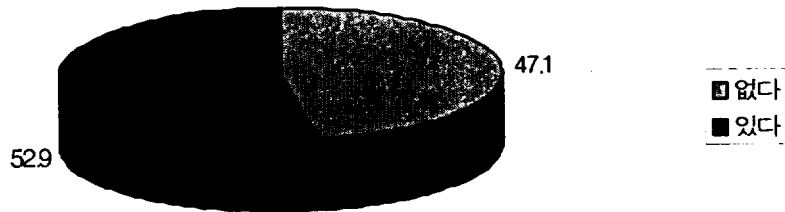
<표 3-27> 취업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3	4	남	여	
진 학 준 비	3 (12.0)	3 (10.0)	2 (6.3)	2 (33.3)	2 (28.6)	5 (14.3)	3 (12.5)	8 (12.7)	1 (100)	17 (13.6)	12 (12.2)	17 (11.4)	12 (16.2)	29 (13.0)
일반기업체 취 직 준 비	13 (52.0)	10 (33.3)	16 (50.0)	1 (16.7)	1 (14.3)	11 (31.4)	4 (16.7)	34 (54.0)		47 (37.6)	43 (43.9)	66 (44.3)	24 (32.4)	90 (40.4)
임 용 고 시 준 비	5 (20.0)	8 (26.7)	1 (3.1)	3 (50.0)	2 (28.6)	8 (22.9)	9 (37.5)	5 (7.9)		17 (13.6)	24 (24.5)	22 (14.8)	19 (25.7)	41 (18.4)
자 유 전 문 직 준 비		1 (3.3)	6 (18.8)		2 (28.6)		2 (8.3)	1 (1.6)		6 (4.8)	6 (6.1)	10 (6.7)	2 (2.7)	12 (5.4)
자 기 사 업 준 비						2 (5.7)	1 (4.2)	1 (1.6)		3 (2.4)	1 (1.0)	3 (2.0)	1 (1.4)	4 (1.8)
작업은 정했거나 준비는 안함	2 (8.0)	6 (20.0)	6 (18.8)			7 (20.0)	2 (8.3)	11 (17.5)		28 (22.4)	6 (6.1)	24 (16.1)	10 (13.5)	34 (15.2)
작업을 정하지 못 함	2 (8.0)	2 (6.7)	1 (3.1)			2 (5.7)	3 (12.5)	3 (4.8)		7 (5.6)	6 (6.1)	7 (4.7)	6 (8.1)	13 (5.8)
계	25 (100)	30 (100)	32 (100)	6 (100)	7 (100)	35 (100)	24 (100)	63 (100)	1 (100)	125 (100)	98 (100)	149 (100)	74 (100)	223 (100)

7) 자격증 취득 여부

자격증 취득 여부에 대한 결과는 아래의 [그림 3-31]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31]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52.9%였으며,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은 47.1%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1] 자격증 취득 여부

단과대학별, 학년별로는 <표 3-28>에 보는 바와 같이,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로는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학생이 사범대학의 경우 66.7%, 해양과학대학 62.9%, 인문대학 60.0%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비교해 보면, 3학년 44.0%와 4학년 64.3%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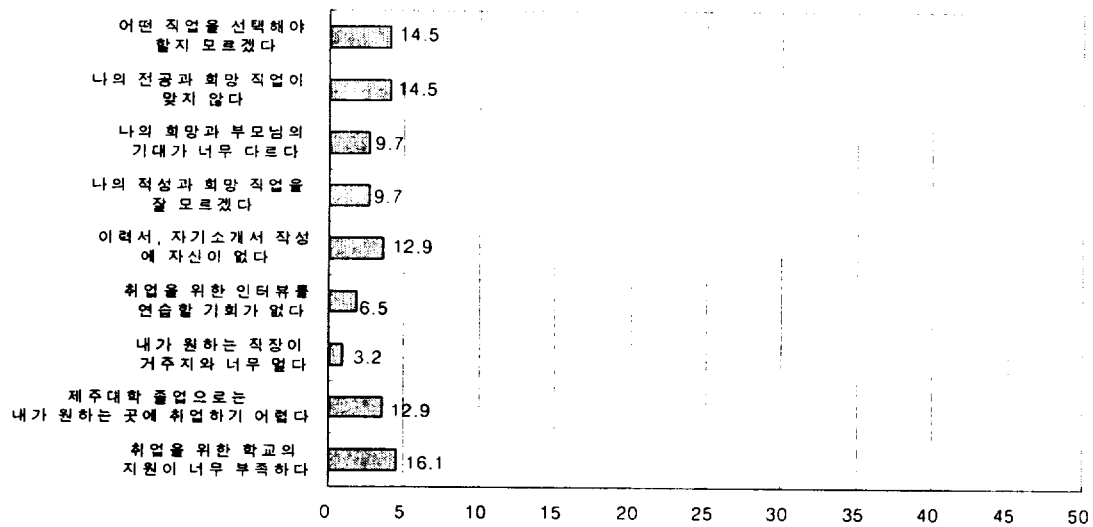
<표 3-28> 자격증 취득 여부

<단위 : 명(%)>

구분	대학별									학년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3	4	남	여	
없다	10 (40.0)	16 (53.3)	15 (46.9)	2 (33.3)	4 (57.1)	13 (37.1)	11 (45.8)	33 (52.4)	1 (100)	70 (56.0)	35 (35.7)	71 (47.7)	34 (45.9)	105 (47.1)
있다	15 (60.0)	14 (46.7)	17 (53.1)	4 (66.7)	3 (42.9)	22 (62.9)	13 (54.2)	30 (47.6)		55 (44.0)	63 (64.3)	78 (52.3)	40 (54.1)	118 (52.9)
계	25 (100)	30 (100)	32 (100)	6 (100)	7 (100)	35 (100)	24 (100)	63 (100)	1 (100)	125 (100)	98 (100)	149 (100)	74 (100)	223 (100)

8) 취업을 준비하기 어려운 이유

학생들이 취업을 준비하기 어려운 이유는 아래의 [그림 3-32]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와 '나의 전공과 희망 직업이 맞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이 14.5%,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에 자신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12.9%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2] 취업을 준비하는데 어려운 이유

취업을 준비하는데 어려운 이유는 <표 3-29>에 나타난 것 처럼 단과대학별, 학년별, 성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문대학의 경우, 60.0%의 학생이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응답하였고, 경상대학의 경우,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에 자신이 없다' 30.8%로 나타났다. 3학

년의 경우,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와 '제주대학 졸업으로는 내가 원하는 곳 취업 하기가 어렵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13.9%인데 반하여 4학년의 경우, '나의 전공과 희망 직업이 맞지 않는다'와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에 자신이 없다'가 19.2%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 '나의 전공과 희망 직업이 맞지 않는다' 19.0%, 여학생의 경우,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와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에 자신이 없다'에 20.0%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4학년이 되면서 자신의 능력이 부족함을 실감하는 학생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29> 취업을 준비하는데 어려운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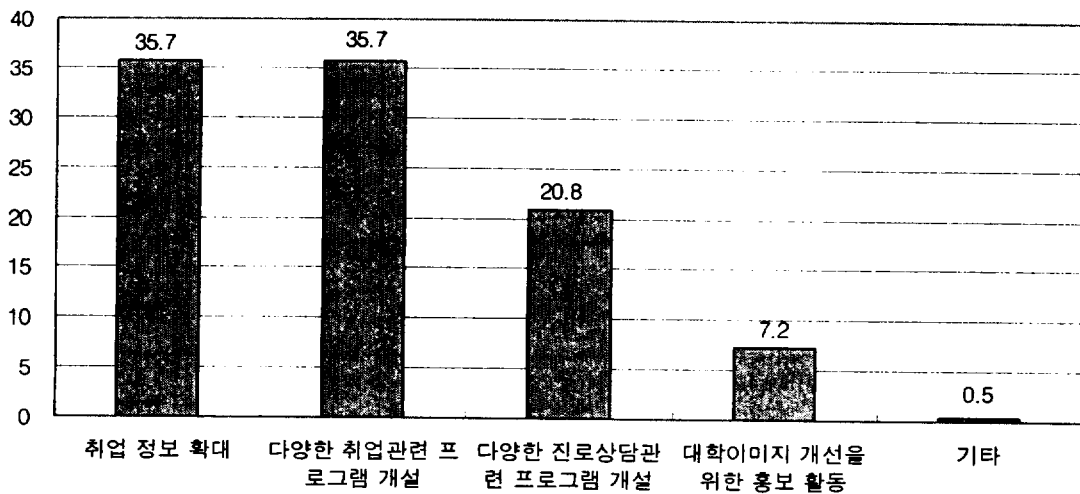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3	4	남	여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	3 (60.0)	1 (10.0)		1 (33.3)		1 (14.3)	1 (14.3)	2 (12.5)		5 (13.9)	4 (15.5)	5 (11.9)	4 (20.0)	9 (14.5)
나의 전공과 희망 직업이 맞지 않는다		2 (20.0)	2 (15.4)			1 (14.3)	2 (28.6)	2 (12.5)		4 (11.1)	5 (19.2)	8 (19.0)	1 (5.0)	9 (14.5)
나의 희망과 부모님의 기대가 너무 다르다			1 (7.7)			1 (14.3)	1 (14.3)	3 (18.8)		4 (11.1)	2 (7.7)	4 (9.5)	2 (10.0)	6 (9.7)
나의 적성과 희망을 잘 모르겠다		2 (20.0)				2 (28.6)		2 (12.5)		4 (11.1)	2 (7.7)	3 (7.1)	3 (15.0)	6 (9.7)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에 자신이 없다	1 (20.0)		4 (30.8)				2 (28.6)	1 (6.3)		3 (8.3)	5 (19.2)	4 (9.5)	4 (20.0)	8 (12.9)
취업을 위한 연습 할 기회가 없다	1 (20.0)	1 (10.0)	2 (15.4)							4 (11.1)		3 (7.1)	1 (5.0)	4 (6.5)
내가 원하는 직장이 너무 멀다		1 (10.0)					1 (14.3)				2 (7.7)	1 (2.4)	1 (5.0)	2 (3.2)
제주대학 졸업으로는 내가 원하는 곳에 취업하기 어렵다			3 (23.1)	1 (33.3)	1 (100)	1 (14.3)		2 (12.5)		5 (13.9)	3 (11.5)	7 (16.7)	1 (5.0)	8 (12.9)
취업을 위한 학교의 지원이 너무 부족하다		3 (30.0)	1 (7.7)	1 (33.3)		1 (14.3)		4 (25.0)		7 (19.4)	3 (11.5)	7 (16.7)	3 (15.0)	10 (16.1)
계	5 (100)	10 (100)	13 (100)	3 (100)	1 (100)	7 (100)	7 (100)	16 (100)		36 (100)	26 (100)	42 (100)	20 (100)	62 (100)

4. 취업 활성화를 위한 제안

1) 취업과 관련하여 학교에 기대하는 것

제주대학생들이 취업과 관련하여 학교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설문에 [그림 3-33]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취업정보 확대'와 '다양한 취업관련 프로그램 개설'을 원하는 학생이 35.7%로 가장 높았으며, '다양한 진로상담관련 프로그램 개설'을 기대하는 학생이 20.8%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학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을 원하는 학생이 7.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33] 취업과 관련하여 학교에 기대하는 것

제주대학생들이 취업과 관련하여 학교에 기대하는 것들을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표 3-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문대학, 법정대학, 경상대학의 경우에는 '다양한 취업관련 프로그램'을 개설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생명자원과학대학은 '다양한 진로상담관련 프로그램 개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해양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의 경우에는 '취업정보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법정대학의 경우에는 타 대학과 달리 '대학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7.6%로 나타났다.

취업정보 확대와 다양한 취업관련 프로그램 개설을 응답한 학생들을 학년별, 성별로 살펴보면 3학년, 4학년, 남녀 모두 '취업정보 확대'와 '다양한 취업관련 프로그램 개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런데 여자의 경우, '다양한 진로상담관련 프로그램 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8.4%로 17.0%에 그친 남자에 비하여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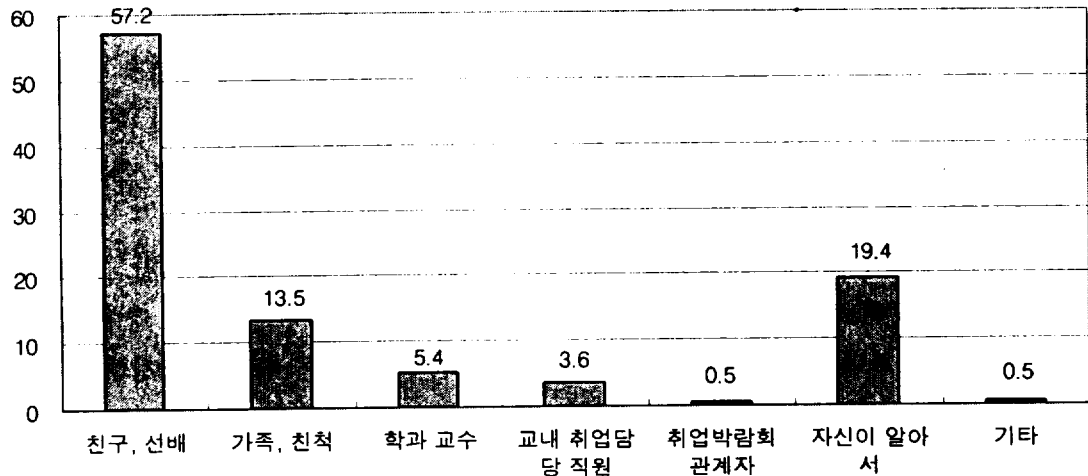
<표 3-30> 취업과 관련하여 학교에 기대하는 것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3	4	남	여	
취업 정보대	7 (28.0)	4 (13.8)	9 (28.1)	1 (16.7)	2 (28.6)	15 (44.1)	12 (50.0)	28 (44.4)	1 (100)	43 (34.4)	36 (37.5)	56 (38.1)	23 (31.1)	79 (35.7)
다양한취업관련프로그램	11 (44.0)	11 (37.9)	11 (34.4)	2 (33.3)	2 (28.6)	14 (41.2)	5 (20.8)	23 (36.5)		43 (34.4)	36 (37.5)	56 (38.1)	23 (31.1)	79 (35.7)
다양한진로상담관련프로그램개설	7 (28.0)	5 (17.2)	8 (25.0)	2 (33.3)	3 (42.9)	4 (11.8)	7 (29.2)	10 (15.9)		28 (22.4)	18 (18.8)	25 (17.0)	21 (28.4)	46 (20.8)
대학이미지개선을위한홍보활동		8 (27.6)	4 (12.5)	1 (16.7)		1 (2.9)		2 (3.2)		10 (8.0)	6 (6.3)	9 (6.1)	7 (9.5)	16 (7.2)
기 타		1 (3.4)								1 (0.8)		1 (0.7)		1 (0.5)
계	25 (100)	29 (100)	32 (100)	6 (100)	7 (100)	34 (100)	24 (100)	63 (100)	1 (100)	125 (100)	96 (100)	147 (100)	74 (100)	221 (100)

2) 진로상담 대상

진로와 관련된 상담을 하는 대상은 아래의 [그림 3-34]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57.2%의 학생들이 친구나 선배와 진로에 대하여 의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신이 알아서 하는 학생이 19.4%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4] 진로상담 대상

진로상담 대상은 친구나 선배, 가족과 친척이 가장 많았으며 단과대학별로, 학년별, 성별로 살펴보면 <표 3-31>에 보는 바와 같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생명자원과학대학의 경우, 57.1%의 학생이 '가족과 친척'을 대상으로 진로에 대한 상담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1> 진로상담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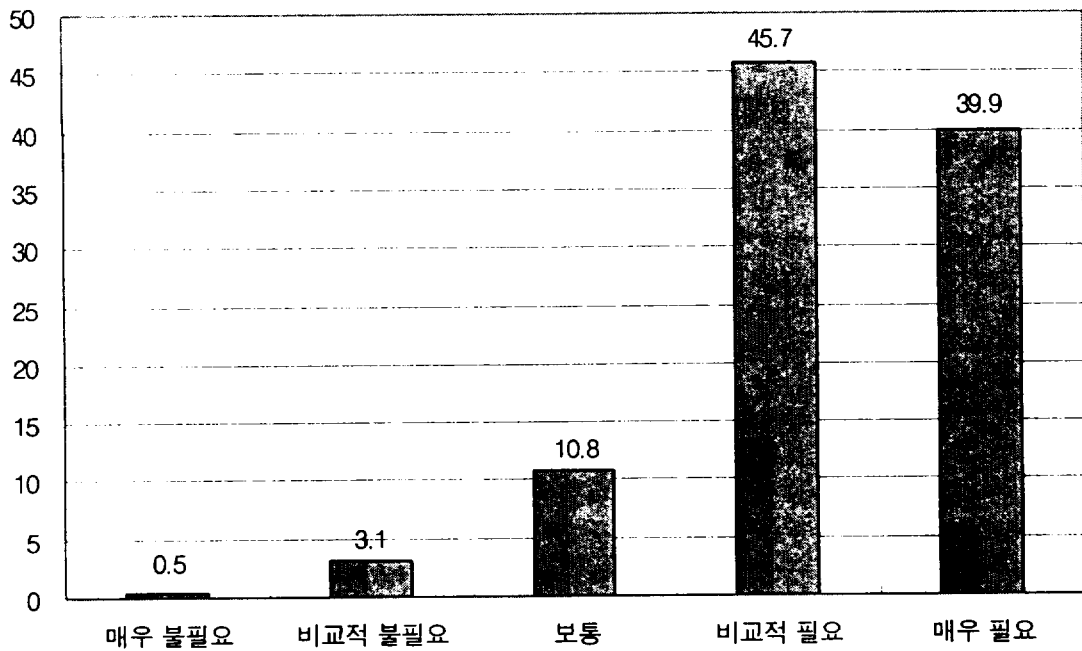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년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3	4	남	여	
친구, 선배	10 (41.7)	17 (56.7)	14 (43.8)	3 (50.0)	2 (28.6)	24 (68.6)	14 (58.3)	42 (66.7)	1 (100)	73 (58.9)	54 (55.1)	87 (58.8)	40 (54.1)	127 (57.2)
가족, 친척	4 (16.7)	3 (10.0)	2 (6.3)	1 (16.7)	4 (57.1)	1 (2.9)	6 (25.0)	9 (14.3)		16 (12.9)	14 (14.3)	20 (13.5)	10 (13.5)	30 (13.5)
학과 교수		2 (6.7)	2 (6.3)	1 (16.7)		3 (8.6)	1 (4.2)	3 (4.8)		6 (4.8)	6 (6.1)	11 (7.4)	1 (1.4)	12 (5.4)
교내 취업 담당 직원	1 (4.2)	2 (6.7)	4 (12.5)				1 (4.2)			4 (3.2)	4 (4.1)	2 (1.4)	6 (8.1)	8 (3.6)
취업박람회 관계자		1 (3.3)									1 (1.0)	1 (0.7)		1 (0.5)
자신 알아서	9 (37.5)	5 (16.7)	10 (31.3)	1 (16.7)	1 (14.3)	7 (20.0)	2 (8.3)	8 (12.7)		24 (19.4)	19 (19.4)	27 (18.2)	16 (21.6)	43 (19.3)
기 타								1 (1.6)		1 (.8)			1 (1.4)	1 (0.5)
계	24 (100)	30 (100)	32 (100)	6 (100)	7 (100)	35 (100)	24 (100)	63 (100)	1 (100)	124 (100)	98 (100)	148 (100)	74 (100)	222 (100)

3) 소속학과 교수가 학생들의 진로에 대하여 상담하는 것이 필요한가?

학과 교수가 학생들의 진로에 대하여 상담하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가 아래의 [그림 3-35]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과 교수가 학생들의 진로에 대하여 상담하는 것이 '비교적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45.7%,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39.9%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학과 교수들이 학생들의 진로에 대하여 상담하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조사결과를 단과대학별로 비교해보았을 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인문대학의 경우 60.0%의 학생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비교적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법정대학 43.3%, 사범대학 66.7%, 공과대학 55.6%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 비교해 보면 소속학과 교수들이 학생들의 진로에 대하여 상담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을 보면 남자는 36.9%였으나, 여자는 45.9%에 이르고 있다.



[그림 3-35] 소속학과 교수가 학생들의 진로에 대하여 상담하는 것이 필요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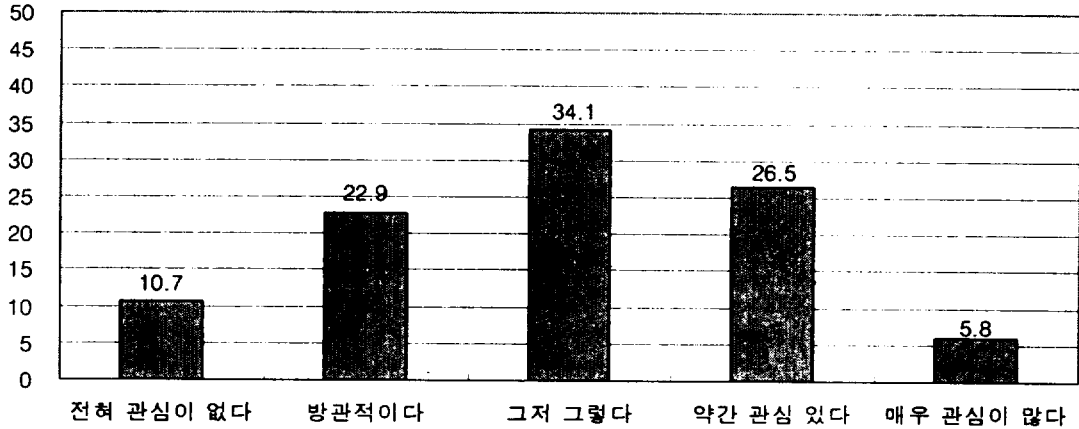
<표 3-32> 소속학과 교수가 학생들의 진로에 대하여 상담하는 것이 필요한가?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3	4	남	여	
매 불 필 요								1 (1.6)		1 (0.8)		1 (0.7)		1 (0.5)
비 교 적 불 필 요	1 (4.0)	2 (6.7)	1 (3.1)		2 (28.6)	1 (2.9)				3 (2.4)	4 (4.1)	5 (3.4)	2 (2.7)	7 (3.1)
보 통		7 (23.3)	6 (18.8)		1 (14.3)	1 (2.9)	3 (12.5)	6 (9.5)		12 (9.6)	12 (12.2)	22 (14.8)	2 (2.7)	24 (10.8)
비 교 적 필 요	9 (36.0)	13 (43.3)	11 (34.4)	4 (66.7)	2 (28.6)	15 (42.9)	12 (50.0)	35 (55.6)	1 (100)	59 (47.2)	43 (43.9)	66 (44.3)	36 (48.6)	102 (45.7)
매 우 필 요	15 (60.0)	8 (26.7)	14 (43.8)	2 (33.3)	2 (28.6)	18 (51.4)	9 (37.5)	21 (33.3)		50 (40.0)	39 (39.8)	55 (36.9)	34 (45.9)	89 (39.9)
계	25 (100)	30 (100)	32 (100)	6 (100)	7 (100)	35 (100)	24 (100)	63 (100)	1 (100)	125 (100)	98 (100)	149 (100)	74 (100)	223 (100)

4) 교수들의 취업에 대한 관심 정도

교수들의 취업에 대한 관심 정도를 조사한 결과 [그림 3-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34.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약간 관심 있다'는 응답이 26.5%, '방관적'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22.9%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6] 교수들의 취업에 대한 관심 정도

교수들의 취업에 대한 관심 정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3-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과대학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대학과 경상대학의 경우, 교수들의 취업에 대한 관심이 타 대학에 비하여 낮게 나타난 반면, 해양과학대학, 공과대학의 경우에는 교수들이 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3-33> 교수들의 취업에 대한 관심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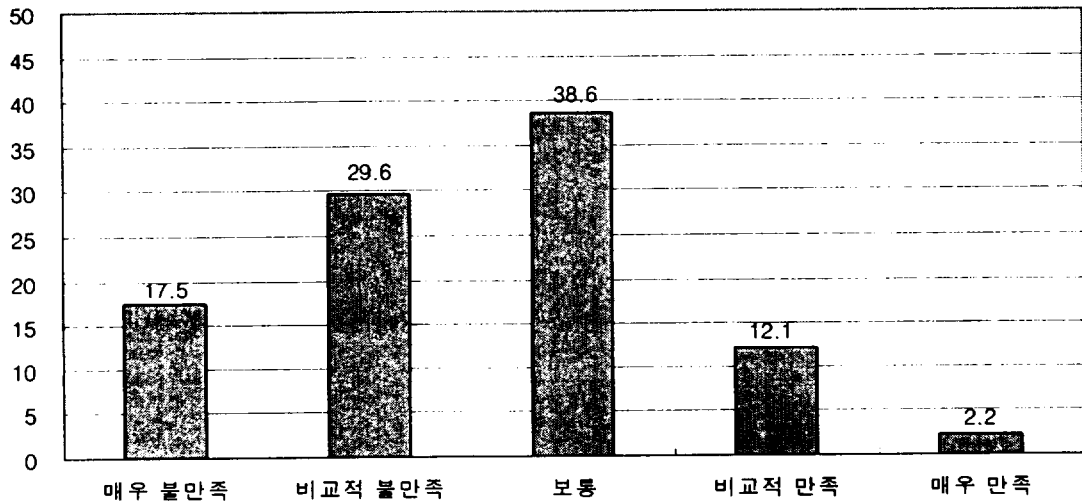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년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3	4	남	여	
전혀 관심이 없다	5 (20.0)	2 (6.7)	6 (18.8)		1 (14.3)	4 (11.4)	2 (8.3)	4 (6.3)		15 (12.0)	9 (9.2)	14 (9.4)	10 (13.5)	24 (10.7)
방관적이다	8 (32.0)	11 (36.7)	9 (28.1)	2 (33.3)	3 (42.9)	4 (11.4)	7 (29.2)	7 (11.1)		23 (18.4)	28 (28.6)	29 (19.5)	22 (29.7)	51 (22.9)
그저 그렇다	10 (40.0)	6 (20.0)	13 (40.6)	2 (33.3)	1 (14.3)	12 (34.3)	8 (33.3)	24 (38.1)		42 (33.6)	34 (34.7)	52 (34.9)	24 (32.4)	76 (34.1)
약간 관심이 있다	1 (4.0)	10 (33.3)	4 (12.5)	2 (33.3)	2 (28.6)	14 (40.0)	6 (25.0)	19 (30.2)	1 (100)	34 (27.2)	25 (25.5)	45 (30.2)	14 (18.9)	59 (26.5)
매우 관심이 있다	1 (4.0)	1 (3.3)				1 (2.9)	1 (4.2)	9 (14.3)		11 (8.8)	2 (2.0)	9 (6.0)	4 (5.4)	13 (5.8)
계	25 (100)	30 (100)	32 (100)	6 (100)	7 (100)	35 (100)	24 (100)	63 (100)	1 (100)	125 (100)	98 (100)	149 (100)	74 (100)	223 (100)

학년별로 살펴보면 교수들이 학생들의 취업에 대하여 '방관적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학년은 18.4%인데 비하여 4학년은 28.6%로 나타났다. 남녀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교수들이 학생들의 취업에 대하여 '방관적이다'(19.5%)라고 여기는 학생 보다 '약간 관심이 있다'(30.2%)고 여기는 학생이 많은 반면에 여자들은 '약간 관심이 있다'(18.9%)고 여기는 학생보다 '방관적이다'(29.7%)라고 여기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소속학과 교수가 제공한 상담 및 지도에 대한 만족도

소속학과 교수가 제공한 상담 및 지도에 대하여 만족하는 정도는 [그림 3-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38.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비교적 불만족'이 29.6%, '매우 불만족'이 17.5%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제주대학교 학생들은 소속학과 교수가 제공하는 상담 및 지도에 대체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3-37] 소속학과 교수가 제공한 상담 및 지도에 대한 만족도

단과대학별로 소속학과 교수가 제공한 상담 및 지도에 대한 만족하는 정도를 비교한 결과 <표 3-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과대학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생명자원과학대학의 경우에는 '매우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57.1%로 타 대학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해양과학대학의 경우에는 '비교적 만족한다'와 '매우 만족한다'가 각각 20.0%, 2.9%로 타 대학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비교한 결과에도 차이가 있었는데 3학년의 경우, '비교적 불만족 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20.8%인 반면에, 4학년은 40.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차이가

있었는데 남자의 경우, '비교적 불만족 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24.8%인 반면에, 여자의 경우 39.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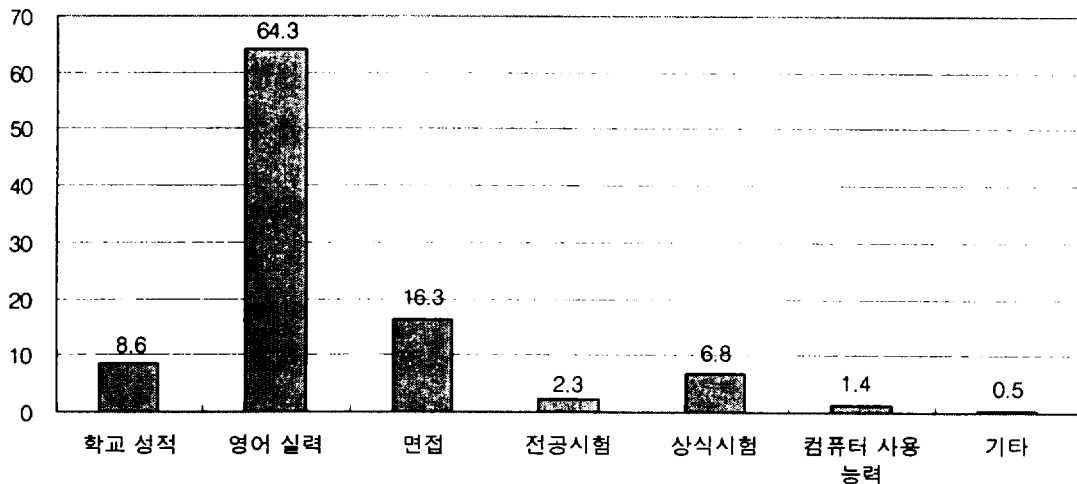
<표 3-34> 소속학과 교수가 제공한 상담 및 지도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년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3	4	남	여		
매 불 만	우 족	8 (32.0)	4 (13.3)	7 (21.9)		4 (57.1)	7 (20.0)	4 (16.7)	5 (7.9)		23 (18.4)	16 (16.3)	21 (14.1)	18 (24.3)	39 (17.5)
비 교 만	적 족	8 (32.0)	12 (40.0)	10 (31.3)	1 (16.7)	1 (14.3)	6 (17.1)	12 (50.0)	16 (25.4)		26 (20.8)	40 (40.8)	37 (24.8)	29 (39.2)	66 (29.6)
보 통		8 (32.0)	11 (36.7)	11 (34.4)	4 (66.7)	1 (14.3)	14 (40.0)	6 (25.0)	30 (47.6)	1 (100)	57 (45.6)	29 (29.6)	69 (46.3)	17 (23.0)	86 (38.6)
비 교 만	적 족	1 (4.0)	3 (10.0)	4 (12.5)		1 (14.3)	7 (20.0)	1 (4.2)	10 (15.9)		15 (12.0)	12 (12.2)	19 (12.8)	8 (10.8)	27 (12.1)
매 만	우 족				1 (16.7)		1 (2.9)	1 (4.2)	2 (3.2)		4 (3.2)	1 (1.0)	3 (2.0)	2 (2.7)	5 (2.2)
계		25 (100)	30 (100)	32 (100)	6 (100)	7 (100)	35 (100)	24 (100)	63 (100)	1 (100)	125 (100)	98 (100)	149 (100)	74 (100)	223 (100)

6) 취업할 때 자신 없는 분야

제주대 학생들이 취업할 때 자신 없어 하는 분야에 대한 설문 결과는 다음 [그림 3-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어 실력'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64.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면접'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16.3%, '학교 성적'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8.6%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8] 취업할 때 자신 없는 분야

취업할 때 자신 없어 하는 분야를 단과대학별로 비교해보면 <표 3-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문대학의 경우 '영어 실력'이 자신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타 대학보다 낮은 반면에 '면접'과 '상식시험'이 자신 없다는 응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범대학의 경우에는 '영어 실력'이 자신 없다는 비율이 33.3%인데 비하여 '면접'이 자신 없다는 비율이 50.0%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3학년은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는 학생이 69.4%였지만 4학년은 57.7%로 나타났다. 남녀별로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는 응답을 한 학생의 비율이 68.0%인 반면에 여자는 56.8%로 나타났으며, '상식시험'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남자가 3.4%인 반면에 여자는 13.5%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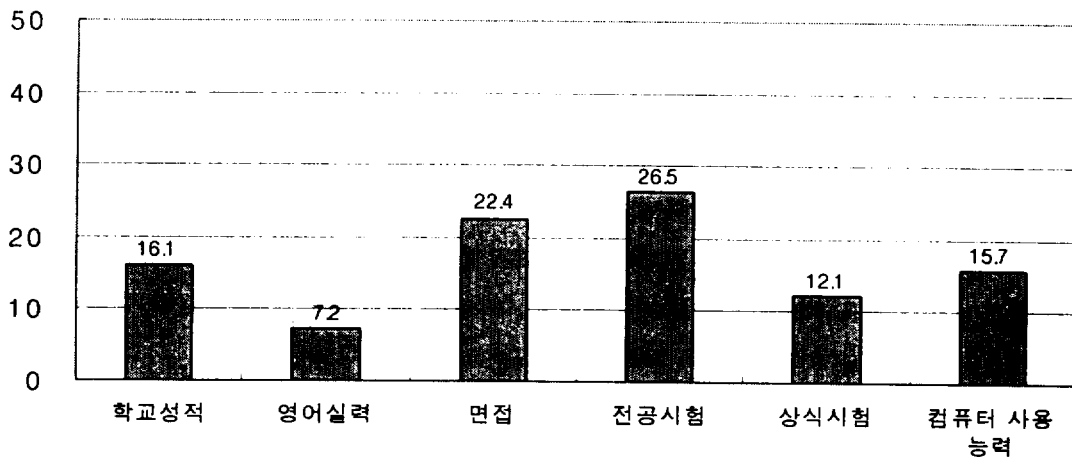
<표 3-35> 취업할 때 자신 없는 분야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년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3	4	남	여	
학교 성적	2 (8.0)	1 (3.3)	3 (9.4)		1 (14.3)	3 (8.6)	5 (20.8)	4 (6.6)		8 (6.5)	11 (11.3)	12 (8.2)	7 (9.5)	19 (8.6)
영어 실력	10 (40.0)	20 (66.7)	23 (71.9)	2 (33.3)	3 (42.9)	28 (80.0)	14 (58.3)	41 (67.2)	1 (100)	86 (69.4)	56 (57.7)	100 (68.0)	42 (56.8)	142 (64.3)
면 접	7 (28.0)	5 (16.7)	5 (15.6)	3 (50.0)	1 (14.3)	3 (8.6)	2 (8.3)	10 (16.4)		18 (14.5)	18 (18.6)	23 (15.6)	13 (17.6)	36 (16.3)
전공 시험				1 (16.7)		1 (2.9)	2 (8.3)	1 (1.6)		2 (1.6)	3 (3.1)	5 (3.4)		5 (2.3)
상식 시험	6 (24.0)	3 (10.0)	1 (3.1)		1 (14.3)		1 (4.2)	3 (4.9)		9 (7.3)	6 (6.2)	5 (3.4)	10 (13.5)	15 (6.8)
컴퓨터 사용능력		1 (3.3)			1 (14.3)			1 (1.6)			3 (3.1)	2 (1.4)	1 (1.4)	3 (1.4)
기 타								1 (1.6)		1 (0.8)			1 (1.4)	1 (0.5)
계	25 (100)	30 (100)	32 (100)	6 (100)	7 (100)	35 (100)	24 (100)	61 (100)	1 (100)	124 (100)	97 (100)	147 (100)	74 (100)	221 (100)

7) 취업할 때 자신 있는 분야

제주대학생들이 취업할 때 자신 있어 하는 분야는 [그림 3-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공시험'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26.5%, '면접'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22.4%, '학교 성적'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16.1%, '컴퓨터 사용능력'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15.7%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9] 취업할 때 자신 있는 분야

취업할 때 자신 있어 하는 분야를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표 3-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대학의 특성에 따라 많은 차이를 나타내었다. 학년별로는 3학년의 경우, 30.4%의 학생이 '전공시험'이 자신 있다고 응답한 반면에, 4학년의 경우, 24.5%의 학생이 '면접'에 자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상식시험'에 자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4.8%로 6.8%에 그친 여자 보다 높았으나, '학교 성적'이 자신 있다고 응답한 남자는 12.8%인 반면에, 여자는 23.0%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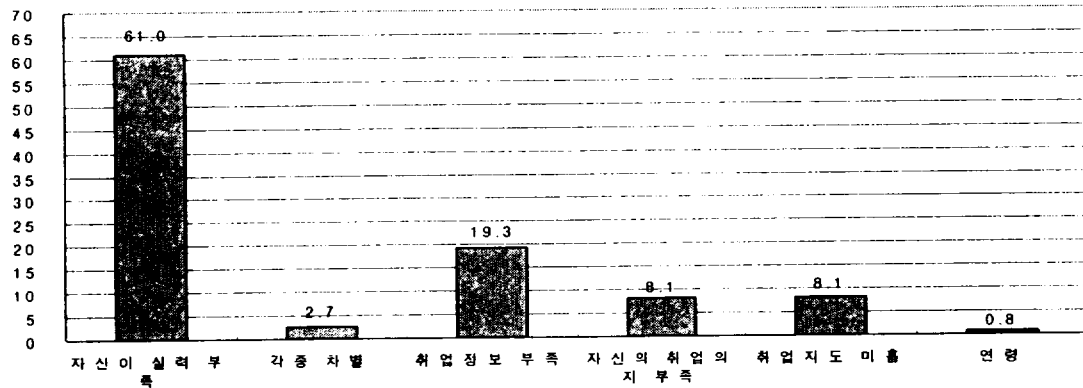
<표 3-36> 취업할 때 자신 있는 분야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3	4	남	여	
학 교 성 적	7 (28.0)	10 (33.3)	5 (15.6)	1 (16.7)		1 (2.9)	5 (20.8)	7 (11.1)		19 (15.2)	17 (17.3)	19 (12.8)	17 (23.0)	36 (16.1)
영 어 실 력	1 (4.0)	1 (3.3)	2 (6.3)	1 (16.7)	3 (42.9)		1 (4.2)	7 (11.1)		9 (7.2)	7 (7.1)	11 (7.4)	5 (6.8)	16 (7.2)
면 접	4 (16.0)	5 (16.7)	10 (31.3)	2 (33.3)	2 (28.6)	8 (22.9)	3 (12.5)	16 (25.4)		26 (20.8)	24 (24.5)	36 (24.2)	14 (18.9)	50 (22.4)
전 공 시 험	10 (40.0)	6 (20.0)	7 (21.9)		1 (14.3)	14 (40.0)	8 (33.3)	12 (19.0)	1 (100)	38 (30.4)	21 (21.4)	38 (25.5)	21 (28.4)	59 (26.5)
상 식 시 험	1 (4.0)	3 (10.0)	5 (15.6)	2 (33.3)	1 (14.3)	6 (17.1)	3 (12.5)	6 (9.5)		16 (12.8)	11 (11.2)	22 (14.8)	5 (6.8)	27 (12.1)
컴 퓨 터 사 용 능 력	2 (8.0)	5 (16.7)	3 (9.4)			6 (17.1)	4 (16.7)	15 (23.8)		17 (13.6)	18 (18.4)	23 (15.4)	12 (16.2)	35 (15.7)
계	25 (100)	30 (100)	32 (100)	6 (100)	7 (100)	35 (100)	24 (100)	63 (100)	1 (100)	125 (100)	98 (100)	149 (100)	74 (100)	223 (100)

8) 취업할 때 가장 장애가 되는 요인

제주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취업할 때 장애가 되는 요인은 아래의 [그림 3-4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의 실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61.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취업정보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19.3%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0] 취업할 때 가장 장애가 되는 요인

취업할 때 장애가 되는 요인을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표 3-4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단과대학에서 '자신의 실력이 부족하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런데 인문대학과,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의 경우, 취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타 대학 보다 많았다. 그리고 인문대학과 해양과학대학의 경우, '취업지도가 미흡하다'는 응답이 타 대학 보다 높은 편이었다.

학년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남녀별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남자들은 '자신의 실력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65.1%로 여자의 52.7% 보다 높은 반면에, 여자는 '취업정보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25.7%로 남자의 16.1%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7> 취업할 때 가장 장애가 되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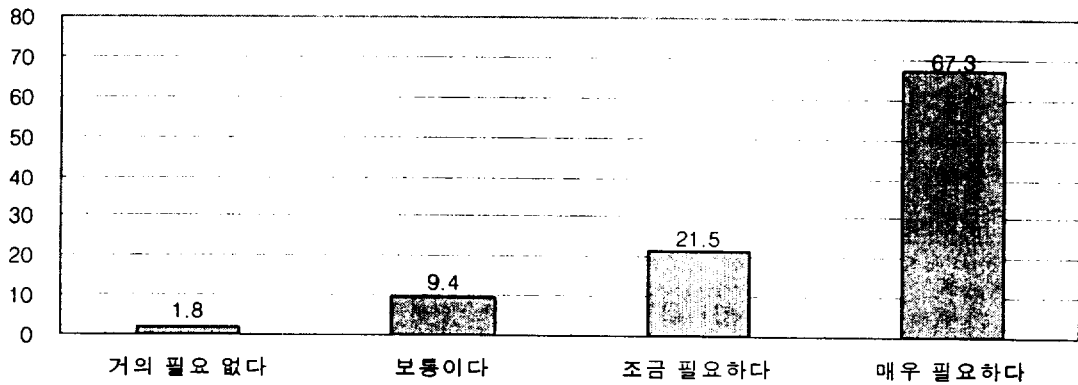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대학별									학년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3	4	남	여	
자신의 실력 부족	13 (52.0)	20 (66.7)	23 (71.9)	4 (66.7)	4 (57.1)	20 (57.1)	13 (54.2)	39 (61.9)		77 (61.6)	59 (60.2)	97 (65.1)	39 (52.7)	136 (61.0)
각종 차별		1 (3.3)	1 (3.1)		1 (14.3)	2 (5.7)		1 (1.6)		2 (1.6)	4 (4.1)	6 (4.0)		6 (2.7)
취업 정보 부족	6 (24.0)	4 (13.3)	6 (18.8)	1 (16.7)	1 (14.3)	4 (11.4)	5 (20.8)	16 (25.4)		27 (21.6)	16 (16.3)	24 (16.1)	19 (25.7)	43 (19.3)
자신의 취업의 지 부족	1 (4.0)	4 (13.3)	1 (3.1)		1 (14.3)	3 (8.6)	3 (12.5)	5 (7.9)		6 (4.8)	12 (12.2)	12 (8.1)	6 (8.1)	18 (8.1)
취업 지도 미흡	5 (20.0)	1 (3.3)	1 (3.1)			6 (17.1)	2 (8.3)	2 (3.2)	1 (100)	11 (8.8)	7 (7.1)	9 (6.0)	9 (12.2)	18 (8.1)
연령				1 (16.7)			1 (4.2)			2 (1.6)		1 (0.7)	1 (1.4)	2 (0.8)
계	25 (100)	30 (100)	32 (100)	6 (100)	7 (100)	35 (100)	24 (100)	63 (100)	1 (100)	125 (100)	98 (100)	149 (100)	74 (100)	223 (100)

9) 취업 준비를 위하여 학교가 지원해야 할 분야의 필요성 정도

(1) 취업정보 확대

취업정보 확대에 대한 응답은 [그림 3-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학생의 67.3%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조금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21.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1] 취업정보 확대

취업정보 확대의 필요성을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표 3-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큰 차이가 없지만 인문대학의 경우,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92.0%에 달하였으며, 자연과학대학도 79.2%로 타 대학에 비하여 높은 편이었다. 성별, 학년별로는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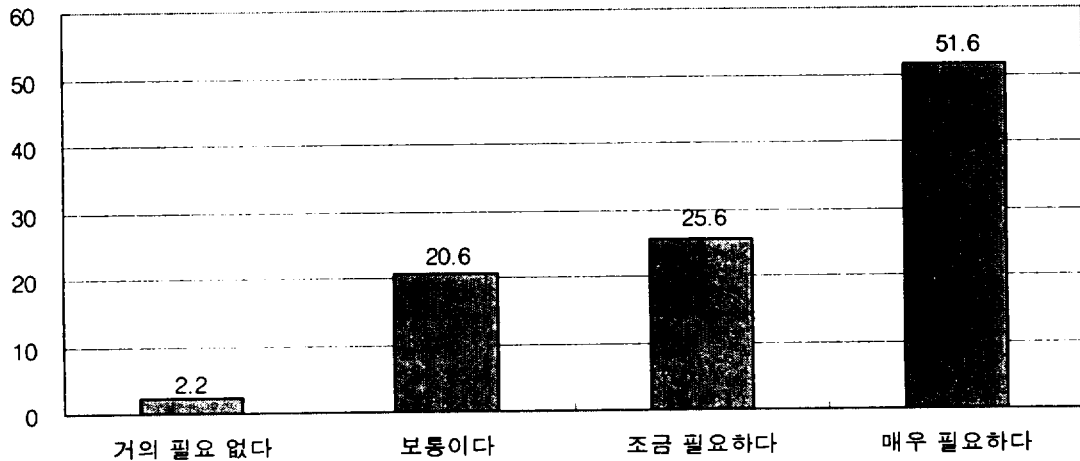
<표 3-38> 취업정보 확대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년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3	4	남	여	
거의 필요 없다		1 (3.3)	1 (3.1)					2 (3.2)		1 (0.8)	3 (3.1)	4 (2.7)		4 (1.8)
보통이다		1 (3.3)	3 (9.4)	1 (16.7)	1 (14.3)	4 (11.4)	4 (16.7)	6 (9.5)	1 (100)	11 (8.8)	10 (10.2)	15 (10.1)	6 (8.1)	21 (9.4)
조금 필요하다	2 (8.0)	9 (30.0)	9 (28.1)	3 (50.0)	3 (42.9)	8 (22.9)	1 (4.2)	13 (20.6)		29 (23.2)	19 (19.4)	33 (22.1)	15 (20.3)	48 (21.5)
매우 필요하다	23 (92.0)	19 (63.3)	19 (59.4)	2 (33.3)	3 (42.9)	23 (65.7)	19 (79.2)	42 (66.7)		84 (67.2)	66 (67.3)	97 (65.1)	53 (71.6)	150 (67.3)
계	25 (100)	30 (100)	32 (100)	6 (100)	7 (100)	35 (100)	24 (100)	63 (100)	1 (100)	125 (100)	98 (100)	149 (100)	74 (100)	223 (100)

(2) 기업체 취업설명회 확대

기업체 취업설명회 확대에 대한 응답은 아래의 [그림 3-42]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학생의 51.6%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조금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25.6%, '보통이다'고 응답한 학생이 20.6%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2] 기업체 취업설명회 확대

기업체 취업설명회 확대 필요성을 단과대학별로, 성별로, 학년별로 살펴보면 <표 3-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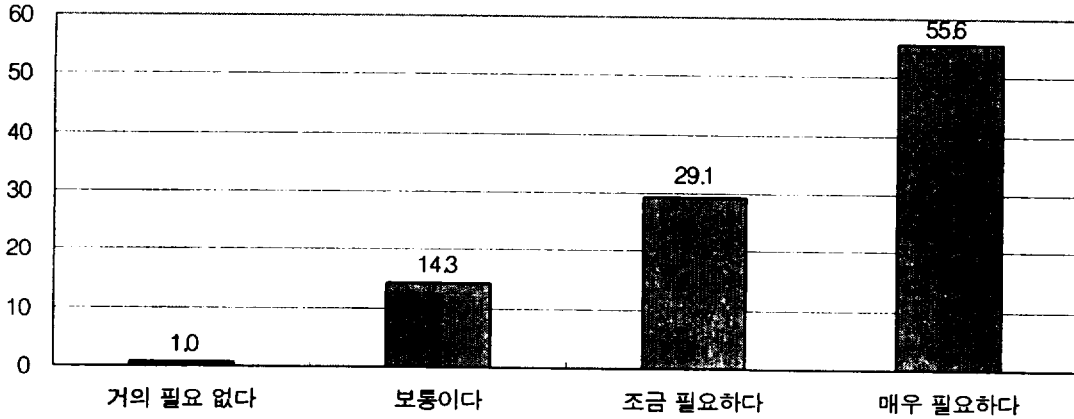
<표 3-39> 기업체 취업설명회 확대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년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3	4	남	여	
거 의 필요 없다	1 (4.0)	1 (3.3)	2 (6.3)					1 (1.6)		3 (2.4)	2 (2.0)	3 (2.0)	2 (2.7)	5 (2.2)
보 통 이 다	5 (20.0)	3 (10.0)	9 (28.1)	1 (16.7)	3 (42.9)	6 (17.1)	5 (20.8)	13 (20.6)	1 (100)	30 (24.0)	16 (16.3)	31 (20.8)	15 (20.3)	46 (20.6)
조 금 필요 하 다	4 (16.0)	8 (26.7)	6 (18.8)	3 (50.0)	2 (28.6)	10 (28.6)	3 (12.5)	21 (33.3)		33 (26.4)	24 (24.5)	40 (26.8)	17 (23.0)	57 (25.6)
매 우 필요 하 다	15 (60.0)	18 (60.0)	15 (46.9)	2 (33.3)	2 (28.6)	19 (54.3)	16 (66.7)	28 (44.4)		59 (47.2)	56 (57.1)	75 (50.3)	40 (54.1)	115 (51.6)
계	25 (100)	30 (100)	32 (100)	6 (100)	7 (100)	35 (100)	24 (100)	63 (100)	1 (100)	125 (100)	98 (100)	149 (100)	74 (100)	223 (100)

(3) 취업상담 확대

취업상담 확대 대한 응답은 아래의 [그림 3-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학생의 55.6%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조금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29.1%, '보통이다'고 응답한 학생이 14.3%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3] 취업상담 확대

취업상담 확대의 필요성을 단과대학별, 학년별로 살펴보면 <표 3-4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로는 차이는 보였는데 남자의 경우,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51.0%인 반면에 여자의 경우, 64.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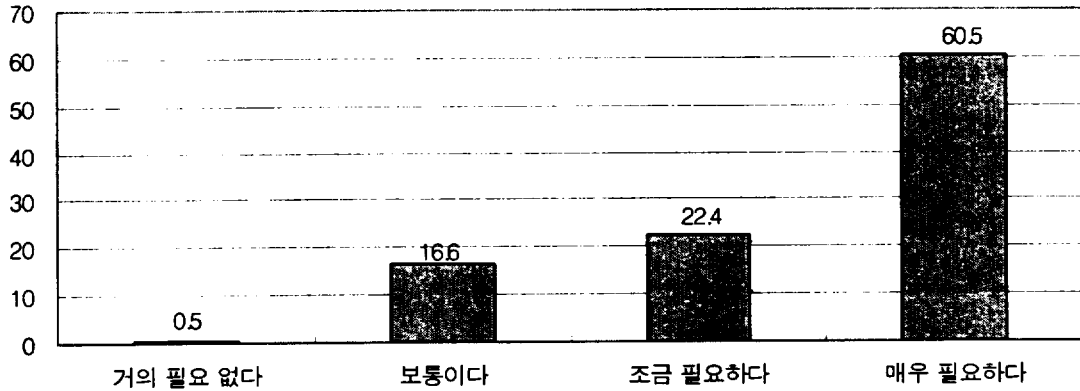
<표 3-40> 취업상담 확대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3	4	남	여	
거의 필요 없다								2 (3.2)		2 (1.6)		2 (1.3)		2 (1.0)
보통이다	2 (8.0)	3 (10.0)	5 (15.6)	1 (16.7)	2 (28.6)	3 (8.6)	5 (20.8)	10 (15.9)	1 (10.0)	16 (12.8)	16 (16.3)	24 (16.1)	8 (10.8)	32 (14.3)
조금 필요하다	5 (20.0)	10 (33.3)	7 (21.9)	2 (33.3)	2 (28.6)	10 (28.6)	4 (16.7)	25 (39.7)		38 (30.4)	27 (27.6)	47 (31.5)	18 (24.3)	65 (29.1)
매우 필요하다	18 (72.0)	17 (56.7)	20 (62.5)	3 (50.0)	3 (42.9)	22 (62.9)	15 (62.5)	26 (41.3)		69 (55.2)	55 (56.1)	76 (51.0)	48 (64.9)	124 (55.6)
계	25 (100)	30 (100)	32 (100)	6 (100)	7 (100)	35 (100)	24 (100)	63 (100)	1 (100)	125 (100)	98 (100)	149 (100)	74 (100)	223 (100)

(4) 실무위주 전공과목 강화

실무위주 전공과목 강화에 대한 응답은 [그림 3-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학생의 60.5%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조금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22.4%,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16.6%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4] 실무위주 전공과목 강화

실무위주 전공과목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단과대학별로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학년별, 성별로는 차이를 보였다. 학년별로는 3학년의 경우,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57.6%인 것에 비하여 4학년의 경우는 64.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자의 경우,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56.4%인 반면에 여자들은 68.9%로 남자 보다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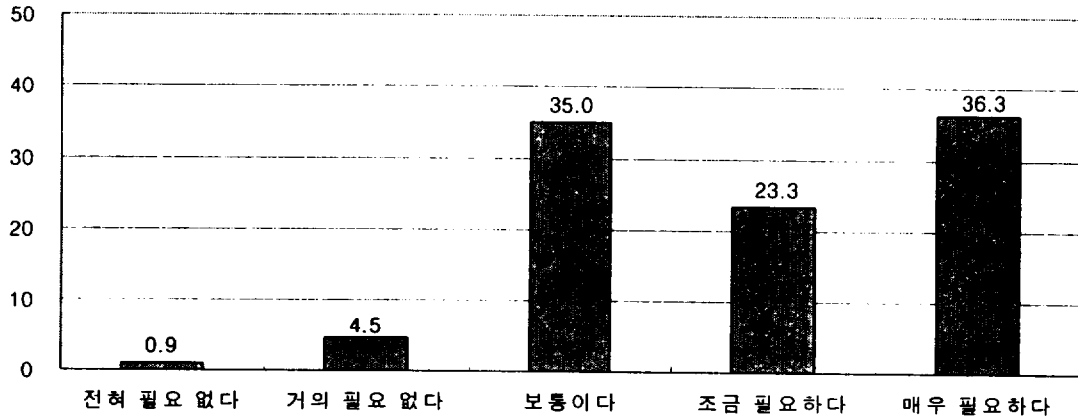
<표 3-41> 실무위주 전공과목 강화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년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3	4	남	여	
거의 필요 없다						1 (2.9)				1 (0.8)		1 (0.7)		1 (0.5)
보통이다	4 (16.0)	4 (13.3)	4 (12.5)	2 (33.3)	2 (28.6)	5 (14.3)	3 (12.5)	12 (19.0)	1 (100)	23 (18.4)	14 (14.3)	25 (16.8)	12 (16.2)	37 (16.6)
조금 필요하다	4 (16.0)	7 (23.3)	8 (25.0)	2 (33.3)	2 (28.6)	8 (22.9)	4 (16.7)	15 (23.8)		29 (23.2)	21 (21.4)	39 (26.2)	11 (14.9)	50 (22.4)
매우 필요하다	17 (68.0)	19 (63.3)	20 (62.5)	2 (33.3)	3 (42.9)	21 (60.0)	17 (70.8)	36 (57.1)		72 (57.6)	63 (64.3)	84 (56.4)	51 (68.9)	135 (60.5)
계	25 (100)	30 (100)	32 (100)	6 (100)	7 (100)	35 (100)	24 (100)	63 (100)	1 (100)	125 (100)	98 (100)	149 (100)	74 (100)	223 (100)

(5) 대학이미지 적극 홍보

대학이미지 적극 홍보에 대한 응답은 아래의 [그림 3-45]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45]을 보면 전체 학생의 36.3%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보통이다'고 응답한 학생이 35.0%, '조금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23.3%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5] 대학이미지 적극 홍보

<표 3-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단과대학별로 대학이미지 홍보에 대한 분포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과대학의 경우,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20.6%에 그쳐 타 단과대학 보다 낮게 나타났다.

학년별로도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성별로 비교해 보면, 남자의 경우, '매우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32.9%인 반면에, 여자는 43.2%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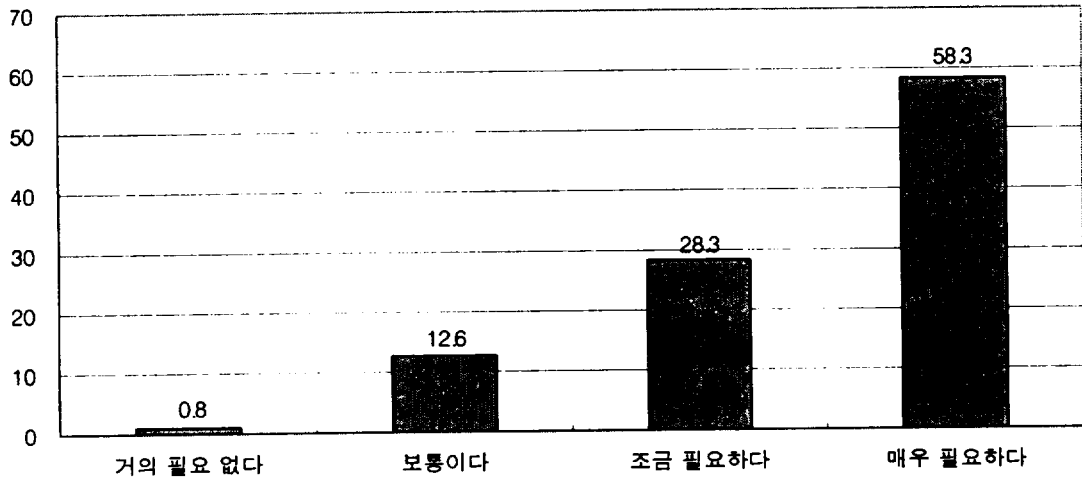
<표 3-42> 대학이미지 적극 홍보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3	4	남	여	
전혀 필요 없다						1 (2.9)		1 (1.6)		1 (0.8)	1 (1.0)	2 (1.3)		2 (0.9)
거 의 필요 없다	1 (4.0)	1 (3.3)	3 (9.4)		1 (14.3)	1 (2.9)		3 (4.8)		6 (4.8)	4 (4.1)	7 (4.7)	3 (4.1)	10 (4.5)
보통이다	8 (32.0)	5 (16.7)	10 (31.3)		3 (42.9)	13 (37.1)	8 (33.3)	30 (47.6)	1 (100)	41 (32.8)	37 (37.8)	52 (34.9)	26 (35.1)	78 (35.0)
조 금 필요하다	6 (24.0)	9 (30.0)	6 (18.8)	2 (33.3)		8 (22.9)	5 (20.8)	16 (25.4)		31 (24.8)	21 (21.4)	39 (26.2)	13 (17.6)	52 (23.3)
매 우 필요하다	10 (40.0)	15 (50.0)	13 (40.6)	4 (66.7)	3 (42.9)	12 (34.3)	11 (45.8)	13 (20.6)		46 (36.8)	35 (35.7)	49 (32.9)	32 (43.2)	81 (36.3)
계	25 (100)	30 (100)	32 (100)	6 (100)	7 (100)	35 (100)	24 (100)	63 (100)	1 (100)	125 (100)	98 (100)	149 (100)	74 (100)	223 (100)

(6) 면접을 위한 훈련 확대

면접을 위한 훈련 확대에 대한 응답은 아래의 [그림 3-46]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46]을 보면 전체 학생의 58.3%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조금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28.3%, '보통이다'고 응답한 학생이 12.6%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6] 면접을 위한 훈련 확대

<표 3-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단과대학별로 큰 차이는 없었지만, 공과대학의 경우, 면접을 위한 훈련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율이 타 대학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남녀별로는 차이가 있었는데 남자의 경우,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51.7%인 반면에, 여자는 71.6%로 남자 보다 훨씬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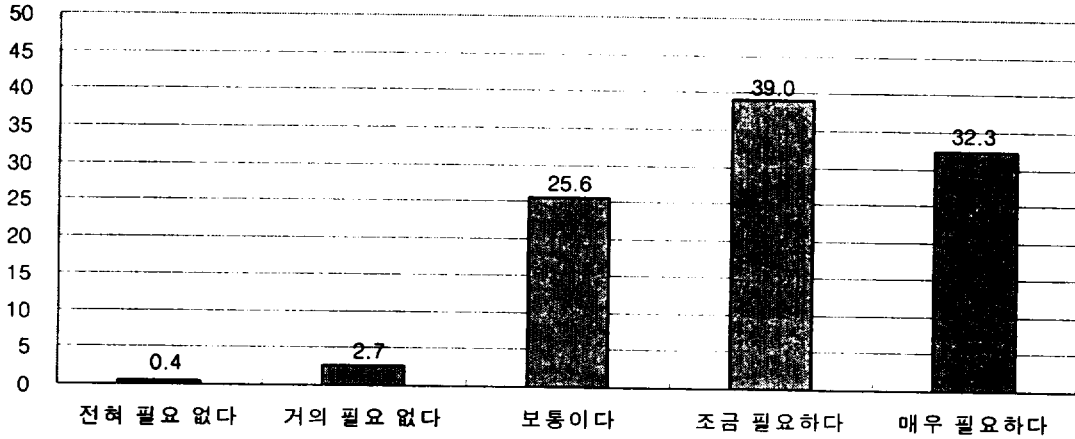
<표 3-43> 면접을 위한 훈련 확대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3	4	남	여	
거 의 필요 없다		1 (3.3)						1 (1.6)		1 (.8)	1 (1.0)	2 (1.3)		2 (0.8)
보 통 이 다	1 (4.0)	2 (6.7)	3 (9.4)		3 (42.9)	4 (11.4)	5 (20.8)	9 (14.3)	1 (100)	13 (10.4)	15 (15.3)	22 (14.8)	6 (8.1)	28 (12.6)
조 금 필요 하다	5 (20.0)	9 (30.0)	9 (28.1)	2 (33.3)	1 (14.3)	9 (25.7)	4 (16.7)	24 (38.1)		37 (29.6)	26 (26.5)	48 (32.2)	15 (20.3)	63 (28.3)
매 우 필요 하다	19 (76.0)	18 (60.0)	20 (62.5)	4 (66.7)	3 (42.9)	22 (62.9)	15 (62.5)	29 (46.0)		74 (59.2)	56 (57.1)	77 (51.7)	53 (71.6)	130 (58.3)
계	25 (100)	30 (100)	32 (100)	6 (100)	7 (100)	35 (100)	24 (100)	63 (100)	1 (100)	125 (100)	98 (100)	149 (100)	74 (100)	223 (100)

(7) 컴퓨터교육 강화

컴퓨터교육 강화에 대한 응답은 [그림 3-47]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47]을 보면 전체 학생의 39.0%가 '조금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32.3%,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25.6%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7] 컴퓨터교육 강화

컴퓨터교육 강화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3-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단과대학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문대학의 경우,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4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로도 차이는 약간의 보였는데 3학년의 경우,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28.8%인데 비하여 4학년의 경우에는 36.7%로 3학년 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비교해 보면 남자의 경우, '조금 필요하다'와 '매우 필요하다'를 합하여 67.8%인데 비하여 여자의 경우에는 78.4%로 남자 보다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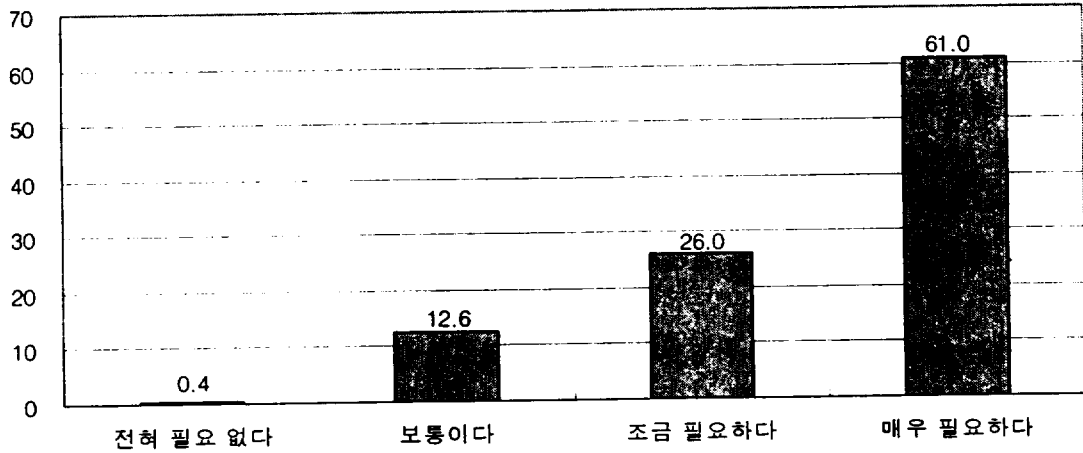
<표 3-44> 컴퓨터교육 강화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 년 별		성 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3	4	남	여	
전혀 필요 없다				1 (16.7)							1 (1.0)	1 (0.7)		1 (0.4)
거의 필요 없다	1 (4.0)		2 (6.3)			1 (2.9)		2 (3.2)		2 (1.6)	4 (4.1)	3 (2.0)	3 (4.1)	6 (2.7)
보통이다	3 (12.0)	7 (23.3)	10 (31.3)	3 (50.0)	2 (28.6)	8 (22.9)	7 (29.2)	16 (25.4)	1 (100)	31 (24.8)	26 (26.5)	44 (29.5)	13 (17.6)	57 (25.6)
조금 필요하다	9 (36.0)	13 (43.3)	11 (34.4)	1 (16.7)	3 (42.9)	17 (48.6)	8 (33.3)	25 (39.7)		56 (44.8)	31 (31.6)	56 (37.6)	31 (41.9)	87 (39.0)
매우 필요하다	12 (48.0)	10 (33.3)	9 (28.1)	1 (16.7)	2 (28.6)	9 (25.7)	9 (37.5)	20 (31.7)		36 (28.8)	36 (36.7)	45 (30.2)	27 (36.5)	72 (32.3)
계	25 (100)	30 (100)	32 (100)	6 (100)	7 (100)	35 (100)	24 (100)	63 (100)	1 (100)	125 (100)	98 (100)	149 (100)	74 (100)	223 (100)

(8) 영어교육 강화

영어교육 강화에 대한 응답은 [그림 3-48]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48]을 보면 전체 학생의 61.0%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조금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26.0%,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12.6%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8] 영어교육 강화

영어교육 강화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3-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단과대학별, 학년 별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사범대학의 경우에는 영어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낮다고 보고 하였다. 학년별로도 큰 차이가 없었지만, 성별로는 차이가 있었는데, 남자의 경우,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54.4%였으나, 여자의 경우 74.3%로 남자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45> 영어교육 강화

<단위 : 명(%)>

구 분	대 학 별									학년별		성별		계
	인문대	법정대	경상대	사범대	생명대	해양대	자연대	공과대	의과대	3	4	남	여	
전혀 필요 없다						1 (2.9)				1 (0.8)			1 (1.4)	1 (0.4)
보통이다	3 (12.0)	2 (6.7)		3 (50.0)	2 (28.6)	3 (8.6)	5 (20.8)	9 (14.3)	1 (100)	14 (11.2)	14 (14.3)	24 (16.1)	4 (5.4)	28 (12.6)
조금 필요하다	3 (12.0)	8 (26.7)	9 (28.1)	1 (16.7)	2 (28.6)	8 (22.9)	5 (20.8)	22 (34.9)		33 (26.4)	25 (25.5)	44 (29.5)	14 (18.9)	58 (26.0)
매우 필요하다	19 (76.0)	20 (66.7)	23 (71.9)	2 (33.3)	3 (42.9)	23 (65.7)	14 (58.3)	32 (50.8)		77 (61.6)	59 (60.2)	81 (54.4)	55 (74.3)	136 (61.0)
계	25 (100)	30 (100)	32 (100)	6 (100)	7 (100)	35 (100)	24 (100)	63 (100)	1 (100)	125 (100)	98 (100)	149 (100)	74 (100)	223 (100)

IV. 요약 및 결론

1. 요약

제주대학교 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2007학년도 재학생들의 일반적 사항, 진로와 관련된 제반사항들 예를 들면, 심리적인 특성 및 가치관, 채용의 공정성, 진로희망, 취업준비 상황, 취업 활성화를 위한 제안, 취업을 위해 학교가 지원해야 하는 분야 등에 대한 의견을 수집한 후 분석하여 향후 재학생들에게 보다 질 높은 대학생활 환경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근거를 발견하기 위하여 3, 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① 진로의식 ② 취업관련 요인 ③ 취업준비 ④ 취업 활성화를 위한 제안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총 2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223부가 자료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설문에 대한 응답은 빈도분석을 통한 백분율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의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먼저 대학에 진학한 이유로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기(20.2%)보다 전문적 기술 습득(36.6%)과 좋은 직장에 취업(34.7%)하기 위하여 진학했다고 응답한 학생이 많았다.

전공을 선택하게 된 동기는 적성과 흥미에 맞아서가 46.6%로 가장 많았으나, 성적 때문에 전공을 선택한 학생도 30.1%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범대학, 해양과학대학에서 성적 때문에 전공을 선택하였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많았다. 4학년의 경우에는 적성과 흥미에 맞아서 전공을 선택했다고 응답한 학생이 51.6%였지만, 3학년의 경우에는 42.7%로 줄어들은 반면, 성적 때문에 전공을 선택했다고 응답한 4학년 학생은 26.3%였으나, 3학년은 33.1%로 늘어났다.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남자의 경우, 적성과 흥미 때문에 전공을 선택한 비율이 여자 보다 다소 적은 반면에 성적 때문에 전공을 선택한 남자는 여자 보다 다소 많은 편이었다.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52.4%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 '만족한다'는 학생이 40.9%인 반면에, 여자의 경우, 47.3%로 남자 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공과 하고자 하는 일의 관련 정도

에서 66.9%가 관련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여자들이 남자들 보다 전공과 하고자 하는 일의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남자들은 성적에 맞추어 학과를 선택하는 학생이 많으므로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며, 전공과 하고자 하는 일과의 관련성도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여자는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학과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남자 보다 많으므로 전공에 대하여 만족하며, 전공과 하고자 하는 일과의 관련성도 남자 보다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자신의 전공학과가 다른 전공학과에 비하여 취업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많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27.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인문대학의 경우, 다른 전공학과에 비하여 취업 기회가 적다고 생각한 학생이 64.0%에 이르고 있다. 반면에, 사범대학은 취업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50.0%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사범대학을 제외한 다른 단과대학들 모두가 취업 기회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인문대학의 경우에는 타 대학에 비하여 취업하기가 어렵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졸업 후 진로선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44.9%로 나타났다. 3학년의 경우 49.6%인 반면에, 4학년의 경우에는 38.7%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4학년이 되면서 진로선택의 가능성을 보다 낮게 느끼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우리 사회에서 채용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22.4%의 학생만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우리 사회에서 채용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인문대학 44.0%, 경상대학 43.7%, 생명자원과학대학 42.9%로 타 대학 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우리사회에서 채용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비율 27.5%로 나타났으나, 여자의 경우는 41.9%로 나타났다.

채용과정에서 남녀차별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18.4%로 나타났다. '심각한 편이다'는 남자가 12.1%인 반면에, 여자는 31.1%로 나타났다. 학력차별은 49.8%의 학생이 '심각하다'고 답하였다. 인문대학, 생명자원과학대학 학생들 중에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80.0%와 85.7%로 나타났다.

외모/신체조건 차별에서는 40.8%의 학생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인문대학과 생명자원과학대학의 경우에는 '심각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각각 68.0%와 85.7%로 타 대학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남자의 경우에는 32.3%인 반면에 여자는 58.1%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차별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31.4%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 '심각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26.9%인 반면에, 여학생의 경

우는 40.5%로 나타났다.

지역차별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42.6%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3학년의 경우, '심각하다'고 한 학생이 45.6%인 반면에, 4학년은 38.7%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 40.3%인 반면에 여자는 47.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제주대학생들은 대체로 우리 사회에서 채용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인문대학, 경상대학, 생명자원과학대학의 경우, 채용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타 대학보다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인문대학과 생명자원과학대학은 남녀 차별과 외모/신체조건 차별도 심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학생들이 남학생들 보다 채용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자들은 채용과정에서 남녀차별과 외모/신체조건 차별 및 지역차별이 심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취업 관련 요인에 대한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졸업 후 취업을 원하는 학생이 81.6%, 대학원 진학을 원하는 학생이 7.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제주대 학생들은 졸업 후에 취업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직업을 선택할 때 1순위로 중요한 것이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라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37.8%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직장의 안정성'이 37.4%, '보수' 12.2%로 나타났다. 법정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의 경우에는 '직장의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에, 다른 대학들은 '자기 적성 및 흥미'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남자의 경우에는 41.9%의 학생들이 '직장의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에, 여자의 경우에는 '자기 적성 및 흥미'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43.2%로 가장 많았다.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2순위는 '보수'라고 응답한 학생은 38.7%, '직장의 안정성' 17.1%, '자기 적성 및 흥미' 16.2%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남자들은 직장을 선택할 때 안정성을 먼저 고려하는 반면에, 여학생들은 자기 적성과 흥미를 먼저 고려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보수도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생각된다.

졸업 후 희망하는 직업으로는 '경영·회계·사무 관련직'에 취업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15.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관리직'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13.0%, '금융·보험 관련직' 10.3%,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관련직'과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 관련직'을 희망하는 학생이 9.2%인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직업의 사회적 지위는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설문에는 65.9%의 학생이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높은 편

이다'로 응답한 학생은 29.6%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후 처음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은 100~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학생과 150~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모두 35.9%로 같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런데 인문대학 학생들의 희망 보수는 100~150만원이 56.0%로 가장 많아 다른 대학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공과대학생들의 희망 보수는 200만원이상이 34.9%로 다른 대학들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보면 3학년 보다 4학년 학생들의 희망 보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 보다 여자의 희망 보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직원채용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은 1순위가 '업무능력(직무역량)'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27.8%이며, 다음으로 '외국어 능력' 15.2%, '자격증' 14.3%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업무능력(직무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을 하였으나, 남자는 24.2%에 그친 반면에, 여자는 35.1%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남자의 경우 '자격증'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16.1%인 반면에, 여자의 경우는 '외국어 능력'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21.6%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채용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 2순위는 24.8%의 학생이 '팀워크 능력, 인성, 도덕성'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외국어 능력' 22.1%, '업무능력(직무역량)' 17.6%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학생들은 기업들이 직원을 채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업무능력이며, 다음으로 외국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팀워크 능력, 인성, 도덕성도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된다.

성공적인 직장생활에 필요한 요소는 '성실과 노력'(41.2%), '실력과 능력'(35.7%)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성격과 대인관계'(21.7%)로 나타났다. 3학년의 경우, 39.5%의 학생이 '실력과 능력'이 성공적인 직장생활에 필요한 요소라고 응답한 반면, 4학년의 경우, 44.3%의 학생이 '성실과 노력'이 성공적인 직장생활에 필요한 요소라고 응답하여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자의 경우, 47.6%의 학생이 '성실과 노력'이 성공적인 직장생활에 필요한 요소라고 응답한 반면, 여자의 경우 47.3%의 학생이 '실력과 능력'이라고 응답하였다.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은 재학생 전체의 56.1%가 제주도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서울 31.4%, 인천 및 경기도 5.4%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상대학의 경우, 53.1%의 학생들이 서울에 취업하기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취업준비에 대한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취업준비를 시작하는 시기는 설문 에 참여한 학생의 40.4%가 3학년 2학기부터 취업준비를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

음으로 4학년 1학기 17.5%, 3학년 1학기 17.0%순으로 나타났다. 3학년의 경우, 55.2%의 학생들이 3학년 2학기부터 취업준비를 시작한다고 응답한 반면에, 4학년의 경우에는 4학년 1학기부터 취업준비를 시작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32.7%, 4학년 2학기부터 취업준비를 시작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30.6%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37.6%가 3학년 2학기에 시작하지만, 4학년 때 취업준비를 하는 학생도 32.8%를 넘는 등 개인차가 많은 반면에, 여학생의 경우에는 45.9%가 3학년 2학기부터 진로준비를 시작하며, 남자에 비하여 개인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선택을 위한 대비는 전체 학생의 54.3%가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진로준비를 하고 있다'는 학생이 24.7%, '관심만 가지고 있다'는 학생이 20.2%인 것으로 나타났다. 3학년과 4학년 모두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지만, 3학년의 경우에는 '관심만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27.2%로 4학년의 11.2% 보다 많았으며,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3학년은 14.4%이었지만, 4학년 37.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주로 3학년 2학기에 진로 준비를 시작하지만 4학년이 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진로준비를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남자들은 취업을 준비하는 시기가 개인별로 차이가 많은 반면에, 여자들은 개인차가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취업을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지에 대한 설문에 학교의 취업지원기구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학생이 81.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민간회사의 구인-구직 사이트를 이용하는 학생이 65.5%, 워크넷을 이용하는 학생이 26.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터넷 사이트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민간회사의 구인-구직 사이트는 '약간 도움 되었다'가 42.6%, '매우 도움 되었다' 17.0%로 조사된 반면에, 학교의 취업지원기구 홈페이지는 '약간 도움이 되었다' 57.8%, '매우 도움이 되었다' 14.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취업을 위하여 주로 방문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학교의 취업지원기구 홈페이지이며, 이 사이트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다른 사이트 보다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취업준비와 학과 공부 중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한 설문에 '취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88.8%, '학과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11.2%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취업을 위하여 중점을 두고 공부하는 것에는 '어학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40.4%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격증 공부' 35.8%, '학과 공부' 11.5% 순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 41.7%가 '자격증 공부'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에 여자는 '어학 공부'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50.0%로 남녀 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취업을 위하여 어떤 준비하고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일반기업체 취직준비' 40.4%, '각종 임용고시 준비' 18.4%, 직업은 정했으나 아직 준비하지 않는 학생이 15.2%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일반기업체 취직준비'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남자는 44.3%인 반면에, 여자는 32.4%로 차이가 있었으며, '각종 임용고시를 준비'한다는 학생이 여자는 25.7%로 남자의 14.8%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증 취득 여부를 묻는 설문에는 응답한 학생의 52.9%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단과대학별로 살펴보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학생이 사범대학의 경우, 66.7%, 해양과학대학 62.9%, 인문대학 60.0%로 타 대학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로 비교해 보면, 3학년 44.0%와 4학년 64.3%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

취업을 준비하기 어려운 이유를 묻는 설문에서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와 '나의 전공과 희망 직업이 맞지 않는다' 14.5%,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에 자신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12.9%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취업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조사하는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취업과 관련하여 학교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설문에서 '취업정보 확대'와 '다양한 취업관련 프로그램 개설'을 원하는 학생이 모두 35.7%로 같게 나타났으며, '다양한 진로상담관련 프로그램 개설'을 기대하는 학생은 20.8%로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에는 '다양한 진로상담관련 프로그램 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8.4%로 17.0%에 그친 남자에 비하여 높았다.

진로상담 대상은 57.2%의 학생들이 친구나 선배와 진로에 대하여 의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신이 알아서 하는 학생은 19.4%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학과 교수가 학생들의 진로에 대하여 상담하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비교적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45.7%,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39.9%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문대학의 경우, 60.0%의 학생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교수들의 취업에 대한 관심 정도를 묻는 설문에서 교수들은 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관심이 그저 그런 편으로(34.1%) 조금 있거나(26.5%), 매우 관심이 많은(5.8%) 교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대학과 경상대학의 경우, 교수들의 취업에 대한 관심이 타 대학에 비하여 적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해양과학대학과 공과대학의 경우에는 교수들이 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관심이 타 대학 보다 많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교수들이 학생들의 취업에 대하여 '방관적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학년은 18.4%인데 비하여 4학년은 28.6%로 나타났다. 남녀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교수들이 학생들의 취업에 대하여 '방관적이다'(19.5%)라고 생각하는 학생 보다 '약간 관심이 있다'(30.2%)고 생각하

는 학생이 많은 반면에, 여자들은 '약간 관심이 있다'(18.9%)고 생각하는 학생 보다 '방관적이다'(29.7%)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학과 교수가 제공한 상담 및 지도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불만족한다는 학생이 47.1%로 나타났다. 3학년의 경우, 불만족 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39.2%인 반면에, 4학년은 57.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차이가 있었는데 남자의 경우,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38.9%인 반면에, 여자의 경우, 63.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과 교수들로부터 취업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싶어 하지만, 교수들의 취업에 대한 관심은 많지 않은 편이며, 교수들이 제공하는 상담 및 지도에도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보다 3배이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는 인문대학의 경우, 진로에 대하여 교수들과 상담을 하고 싶어 하지만, 교수들이 학생들의 진로에 관심이 없으며, 교수들이 제공하는 상담 및 지도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상대학의 교수들의 경우, 타 대학에 비하여 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관심이 적은 반면에, 해양과학대학과 공과대학의 교수들은 관심이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별로는 교수들과 상담하고 싶은 욕구가 여자들이 남자들 보다 더 강하며, 교수들의 취업에 대한 관심은 남자들이 느끼는 것 보다 더 적다고 생각하고, 교수들이 제공하는 상담 및 지도에도 남자 보다 더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할 때 자신 없는 분야는 '영어 실력'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64.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면접'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16.3%, '학교 성적'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8.6%인 것으로 나타났다. 3학년은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는 학생이 69.4%였지만, 4학년은 57.7%로 나타났다. 남녀별로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는 응답을 한 학생의 비율이 68.0%인 반면에, 여자는 56.8%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식시험'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남자가 3.4%인 반면에, 여자는 13.5%로 나타났다. 여자들은 남자들 보다 어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많아 영어공부를 많이 하므로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의 비율이 남자 보다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취업할 때 자신 있는 분야는 '전공시험'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26.5%, '면접'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22.4%, '학교 성적'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16.1%, '컴퓨터 사용능력'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15.7%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3학년의 경우, 30.4%의 학생이 '전공시험'이 자신 있다고 응답한 반면에, 4학년의 경우, 24.5%의 학생이 '면접'에 자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상식시험'에 자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4.8%로 6.8%에 그친 여자 보다 높았으나, '학교 성적'이 자신 있다고 응답한 남자는 12.8%인

반면에, 여자는 23.0%로 나타났다.

취업할 때 가장 장애가 되는 요인은 '자신의 실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61.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취업정보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19.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의 경우, 취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타 대학보다 많았다. 그리고 인문대학과 해양과학대학의 경우, '취업지도가 미흡하다'는 응답이 타 대학 보다 높은 편이었다. 남자들은 '자신의 실력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65.1%로 여자의 52.7% 보다 높은 반면에, 여자는 '취업정보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25.7%로 남자의 16.1%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준비를 위하여 학교가 지원해야 할 분야로 취업정보를 확대해야 한다는 학생은 전체의 67.3%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조금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2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대학의 경우,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92.0%에 달하였으며, 자연과학대학도 79.2%로 타 대학에 비하여 높은 편이었다. 기업체 취업설명회 확대는 전체 학생의 51.6%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조금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25.6%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상담 확대는 전체 학생의 55.6%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조금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29.1%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51%인 반면에, 여자의 경우 64.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위주 전공과목 강화는 전체 학생의 60.5%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조금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22.4%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3학년의 경우,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57.6%인 것에 비하여 4학년의 경우는 64.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자의 경우,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56.4%인 반면에 여자들은 68.9%로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학이미지를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는 설문에 대하여 전체 학생의 36.3%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조금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23.3%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비교해 보면, 남자의 경우, '매우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32.9%인 반면에 여자는 43.2%로 높게 나타났다.

면접을 위한 훈련 확대는 전체 학생의 58.3%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조금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은 28.3%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51.7%인 반면에, 여자는 71.6%로 남자 보다 훨씬 높았다.

컴퓨터 교육 강화는 전체 학생의 39.0%가 '조금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32.3%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도 약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3학년의 경우,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28.8%인데 비하여 4학년의 경우에는

36.7%로 3학년 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비교해 보면, 남자의 경우, '조금 필요하다'와 '매우 필요하다'를 합하여 67.8%인데 비하여 여자의 경우에는 78.4%로 남자 보다 높게 나타났다.

영어교육 강화는 전체 학생의 61.0%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조금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26.0%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54.4%였으나, 여자의 경우 74.3%로 남자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취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학교가 지원해야할 분야는 취업정보 확대, 영어교육 강화, 실무위주의 전공 강화, 면접훈련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취업과 관련된 각종 지원사항에 대한 요구는 남자 보다 여자가 높으며, 취업정보에 대한 요구는 인문대학과 자연과학대학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2. 결론 및 제언

제주대학교 3, 4학년들 대상으로 진로의식을 조사·분석한 결과, 다양한 측면에서 의미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대학생들은 전문적 기술을 습득한 후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하여 대학에 진학하며, 80%가 넘는 학생들이 졸업 후에 곧 바로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 그리고 90%가 넘는 학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학과 공부 보다는 취업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은 학과 공부에 관심이 적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실무위주의 전공과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생들이 졸업 후에 취업을 원하고 있지만,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대학졸업 후 진로선택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3학년 보다는 4학년이 진로선택에 대한 가능성을 더 낮게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56% 정도의 학생들이 제주도에 취업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서울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3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제주대 학생들은 취업에 대한 정보는 주로 학교의 취업지원기구 홈페이지를 이용하며, 이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런데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제주도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것은 안정적인 것을 선호하는 제주도 사람들의 특성으로 인한 것도 있지만, 취업 활성화를 위한 제안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취업정보 확대를 원하였듯이 학생들이

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잘 아는 제주도 지역에 취업하기를 원하였을 가능성도 많다. 이것은 취업 준비를 위하여 학교가 지원해야 할 분야로 취업정보 확대를 원하는 학생들이 90%에 이르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제주대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때 제주도 지역내의 취업 정보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취업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취업할 기업체를 선정할 때,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로 본인의 적성이나 흥미라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직장의 안정성, 그리고 보수도 진로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생각된다. 진로준비는 주로 3학년 때부터 시작하지만, 4학년이 되면 보다 구체적으로 진로준비를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4학년이 될수록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학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학년별로 진로지도를 다르게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학년이 낮은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를 파악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결정된 진로를 대비하기 위한 면접방법 등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고학년이 될수록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제주대학교에서 학생들의 취업을 돕기 위하여 지원해야 할 분야는 취업 정보 확대, 영어교육 강화, 실무위주의 전공 강화, 면접훈련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취업 환경이나 제주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진로와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각 단과대학별로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진로 지도와 관련하여 가장 불만이 많은 단과대학은 인문대학인 것으로 생각된다. 인문대학 학생들은 타 대학에 비하여 취업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며, 그들이 희망하는 보수도 다른 대학 학생들이 희망하는 것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취업지도가 미흡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타 대학 보다 많았다. 그리고 그들은 진로에 대하여 교수들과 상담을 하고 싶어 하지만, 교수들이 학생들의 진로에 관심이 없으며, 교수들이 제공하는 상담 및 지도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남녀차별과 외모/신체조건 차별이 심하며, 전반적으로 채용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타 대학 보다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경상대학과 생명자원과학대학의 경우에도 채용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타 대학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명자원과학대학은 남녀차별과 외모/신체조건

차별도 심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상대학 교수들의 경우, 타 대학에 비하여 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관심이 적은 반면에 해양과학대학과 공과대학의 교수들은 관심이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의 경우, 취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타 대학 보다 많았으며, 해양과학대학의 경우, '취업지도가 미흡하다'는 응답이 타 대학 보다 높은 편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진로지도를 할 때, 각 단과대학별 희망사항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각 과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성별로도 다른 접근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직업을 선정하는 기준이나, 희망직업이 서로 다르다. 남자의 경우에는 직장의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에, 여자의 경우에는 자기 적성 및 흥미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남녀 모두 많은 학생들이 일반기업체 취직 준비를 하고 있지만, 여자의 경우에는 각종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남자 보다 많았다. 따라서,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영역, 또한 다른 데 예를 들면, 남자의 경우, 자격증 획득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여자보다 많았지만, 여자의 경우는 외국어 능력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많았다. 그리고 남자의 경우, 상식시험에 자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여자 보다 높았으나, 학교 성적이 자신 있다고 응답한 여자는 남자 보다 많았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남학생들은 각종 자격증 시험에 대한 안내와 안정적인 직장에 대한 안내를 해주는 반면에, 여학생들의 진로를 지도할 때는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먼저 파악하도록 하고, 일반기업체에 대한 안내 뿐만 아니라, 각종 임용고시에 대한 안내도 많이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채용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여학생수가 남학생 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남녀차별, 외모/신체조건 차별 및 지역차별이 심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학생들은 소속학과 교수들과 상담하고 싶은 욕구가 남학생들 보다 더 강하지만 교수들의 취업에 대한 관심은 남학생들이 느끼는 것 보다 더 적다고 생각하고, 교수들이 제공하는 상담 및 지도에도 남자 보다 더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여학생들을 위하여 다양한 취업관련 프로그램을 개설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진로상담관련 프로그램도 개설하고, 특히 소속학과 교수들이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상담 및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주대학 차원에서의 남녀간의 공정한 채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여섯째, 제주대학 학생들은 소속학과 교수들로부터 취업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싶어 하지

만, 실제로 이들은 주로 비전문가인 친구, 선·후배들과 진로상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수들의 취업에 대한 관심은 많지 않은 편이며, 교수들이 제공하는 상담 및 지도에도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 보다 3배이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제주대 학생들은 소속학과 교수들과 진로에 관한 상담을 하고 싶어 하고, 이들로부터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도움을 받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것은 아마도 소속학과 교수들이 자신들의 진로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또 때로는 교수들의 추천을 통하여 취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학과 교수들은 학생들과 진로에 대한 상담 횟수를 늘여서 이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시간을 자주 갖도록 하는 것이 학생들의 진로지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몇 가지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의 인원수가 학과별, 학년별로 차이가 커서 설문 결과를 학과, 학년별로 비교하기에는 다소의 무리가 있다. 다음에 진로 의식조사를 실시할 때는 각 단과대학별로 인원수를 비슷하게 하여 표집하여 비교한다면 각 단과대학별 특성이 잘 드러날 것으로 생각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각 단과대학 특성에 맞는 진로지도 과정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보다 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효과적인 진로지도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진로 의식조사에서는 전체적으로 개략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으나, 다음 후속연구에서는 이를 토대로 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면 적성과 흥미 때문에 3학년의 경우에는 42.7%로 낮게 나타나고, 4학년은 51.6%로 높고, 성적 때문에 전공을 선택했다고 응답한 4학년 학생은 26.3%였으나, 3학년은 33.1%로 늘어난 현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은 없는지 등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추후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과제가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대학 당국에 감사드리며, 연구 결과가 제주대학 학생들의 진로지도를 위한 정책수립 및 진로지도를 위한 여러가지 프로그램 개발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 교육통계편람(2001).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http://std.kedi.re.kr/jcgi-bin/publ/publ_yrbk_frme.htm.
- 김충기(2000). 진로교육과 진로상담. 서울 : 동문사.
- 김충기(2003). 생활지도와 상담. 서울 : 한국학술정보.
- 박행모, 문승태(2005). 대학생들의 진로계획 접근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과교육학회지, 18(2), 157-170.
- 안관수(2006). 대학 취업경쟁력 강화와 직업진로진도 방안. 경영교육논총 경논 43집, 173~191, 한국경영교육학회.
- 유계식, 이재창(1997). 대학생의 성공공포와 성취동기 및 성역할 정체감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9(1), 259~288.
- 이지훈, 이종구(2004). 교육, 훈련 개발 중심의 HRD 실행전략에 관한 연구. 직업능력개발연구, 31~6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통계청(2005). 경제활동인구연보. <http://kosis.nso.go.kr:7001/ups/>.
- Isaacson, L. E., & Brown, D. (2000). *Career information, career counseling, & career development(7th ed)*. Needham Heights, Massachusetts Allyn & Bacon.

<Abstract>

A Research on The Career Consciousness in 2007
- Focusing on the Juniors and the Seniors of
Cheju National University -

Kim Kyoung-soon, Kim Doo-hw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reer consciousness of Cheju national university students and to provide basic materials that can be some help to the career guidance and counseling.

The data were obtained through a number of senior and junior students at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December 2007. From the gathered information, which resulted in 202 responses that have been used in the study, were analyzed by frequency using SPSS/PC 12.0 program.

The result of this study are the following :

First, we need to provide practical education to help the student employment and to increase the interest in major by strengthening the major training course.

Second, we need to provide various information related to employment around the country. Most students gain career information from their friends and seniors, and mass media, not from school. The thoughtful consideration of finance and policy is requested which can offer systematic information in school, in order that they may easily adapt themselves to their environment.

Third, various career counseling programs need to be developed and applied to each student according to their learning stages. The field of support is increase of job preparation education, english education, strengthening the major training course and the interview training course.

Fourth, we need to develop various programs considering necessity and specific of

each college.

Fifth, it need to be aproached the career guidance according to their gender. Women's needs of job-seeking were very intensive but their preparation level is relatively low. Colleges' career support system and organization utility were ineffective because their programs were not specified for women. It is important to offer various counsel and guidance to women.

Sixth, a professor of college needs to increase career counsel with their students. It is important to job-seeking of students.

In addition,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possible follow-up projects are proposed in the conclusion section.